

정책연구 2000-4

제주지역 축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2000. 12

제주발전연구원

지역축제의 창의적 발전을 기대하며

여가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문화관광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에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도에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문화관광의 진흥'을 설정, 관광입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어서 2000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을 처음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1% 넘게 편성함으로써 문화관광 시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해 지역축제는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아래 고유의 전통문화가 재현된다면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의 질 향상과 관광객에게는 그 지역의 역사와 독특한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의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므로써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동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있다.

또한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의 응집과 지역문화의 발굴 및 체계화,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국제간 문화교류 촉진으로 인한 지역개발 잠재능력의 현재화(顯在化) 등 다양한 편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과연 제주지역의 축제가 얼마만큼 축제의 본래적 성격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는지 면밀한 진단과 반성을 하여야 할 시점이다.

현재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축제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축제의 개발이나 운영면에서는 미흡한게 현실이다.

또한 지자체 실시이후 각기 단체마다 산발적인 축제를 목적도 불명확하게 개최하고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축제는 지역간의 경쟁이 아니라 지역의 전통정신과 지역주민의 흥겨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제주지역 축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과제연구에 열성을 다해주신 탐라대학교 양영근교수님과 연구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2월

濟州發展研究院
院長 李文敎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목적	3
제 3 절 연구 방법	3
제 4 절 연구 범위	3
제 2 장 이론 연구	4
제 1 절 축제의 개념체계	4
1. 축제의 전통적 기능	4
2. 축제의 개념과 분류	7
3. 축제의 영향	11
제 2 절 축제의 추진 체계	14
1. 기획단계	14
2. 홍보 및 상품화 단계	20
3. 운영 단계	22
4. 사후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단계	23
제 3 장 국내·외 축제 사례분석	25
제 1 절 국내 사례분석	25
제 2 절 국외 사례분석	44
제 3 절 사례연구의 시사점	53
제 4 장 제주지역 축제의 현황분석	55
제 1 절 제주지역 축제 현황	55

1. 총괄 현황	55
2. 지방자치단체별 축제 현황	59
3. 최초 개최 연도별 축제 현황	59
4. 개최 월별 축제 현황	60
5. 예산 규모별 축제 현황	61
6. 개최 목적별 축제 현황	62
7. 축제 프로그램 구성 형식별 축제 현황	63
제 2 절 제주지역 축제의 현황 분석	64
1. 개최 목적과 프로그램 구성 형식	64
2. 최초 개최 연도별 분석	65
3. 지방자치단체별 축제 분석	67
4. 개최 시기 분포	68
 제 5 장 축제에 대한 신문의 보도내용 분석	 70
제 1 절 분석의 개요	70
제 2 절 분석 결과	70
1. 축제에 대한 보도 현황	70
2. 개별 축제별 보도 내용	71
3. 전체축제에 대한 보도 내용	92
 제 6 장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의견조사	 98
제 1 절 조사 설계	98
1. 조사대상 및 표본 추출방법	98
2. 자료 수집방법 및 조사 기간	98
3. 분석 방법	99
4. 축제별 설문 배포 및 회수 현황	100
5. 조사대상 축제 사례 분석	101

제 2 절 분석 결과	111
1. 제주도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111
2. 축제 참여자 의견조사	117
3. 제주도 축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72
제 3 절 시사점	182
1. 제주도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조사	182
2. 축제 참여자 의견 조사	182
3. 제주도 축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184
4. 종합 검토	185
 제 7 장 제주지역 축제의 문제점	187
제 1 절 축제 프로그램 독창성 결여	187
제 2 절 축제 해설 기능의 미흡	188
제 3 절 홍보와 마케팅	188
제 4 절 축제의 지속성과 정례화의 미흡	188
제 5 절 행정기관 주도의 축제 운영	189
제 6 절 재정과 예산 부족	190
제 7 절 종합서비스체계	190
제 8 절 축제 전문인력의 부족	191
제 9 절 도민의 자발적 축제 참여 미흡	191
제 10 절 축제평가 체계 미흡	191
 제 8 장 제주지역 축제의 활성화방안	193
제 1 절 기본 목표 및 방향	193
1. 기본 목표	193
2. 기본 방향	193
3. 주요 개선 과제	195

제 2 절 제주지역 축제의 활성화 방안	196
1. 축제의 통합화	196
2. 축제의 체계화	209
3. 축제의 상품화	218
4. 축제의 자립화	232
제 3 절 주체별 · 시기별 추진방안	235
 제 9 장 결 론	 238
 참고문헌	 240
 부록 I.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설문서	 245
부록 II. 사례축제에 대한 설문서	250

표 목 차

<표 2-1> 축제의 전반적 수용태세 점검표	19
<표 2-2> 시장조사의 세부 목표 및 영향변수	21
<표 2-3> 축제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23
<표 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축제 현황	25
<표 3-2> 주제별 축제 현황	26
<표 3-3> 2000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내역	27
<표 3-4> 2000 하반기 문화관광축제 내역	28
<표 3-5> 문화관광축제 연도별 현황	30
<표 3-6> 문화관광축제별 여행사 외국인 단체관광객 모객 실적	31
<표 3-7> 연도별 여행사 단체관광객 모객 실적	32
<표 3-8> 문화관광축제 참관 평가 결과(1999년도)	32
<표 3-9> 청도소싸움축제 홍보 활동	34
<표 3-10> 청도소싸움축제 방문 관광객 수	35
<표 3-11> 청도소싸움축제 지역경제 파급효과	35
<표 3-1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주요 행사 내용	37
<표 3-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주요 홍보 내용	38
<표 3-14> 고성공룡나라축제 주요 홍보 내용	39
<표 3-15> 고성공룡나라축제 주요 행사 내용	40
<표 3-1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2000 주요 홍보 내용	42
<표 3-17>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2000 주요 행사 내용(구역별 프로그램)	43
<표 4-1> 2000년도 제주도 주요 축제	56
<표 4-2>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축제 분석	59
<표 4-3> 제주도 지역축제의 개최 연대별 분포	60
<표 4-4> 지역 축제 개최 월별 분석	61
<표 4-5> 지역 축제 예산규모별 분석	61

<표 4-6> 제주도 지역 축제 분류	62
<표 4-7> 제주지역 축제의 개최 목적별 분류(문화체육부 기준)	63
<표 4-8> 제주지역 축제 프로그램 구성형식별 분류	64
<표 4-9> 축제의 개최 목적과 프로그램 구성형식별 교차 분석	65
<표 4-10> 최초 개최 연도별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 교차 분석	66
<표 4-11> 최초 개최 연도별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구성형식 교차 분석	66
<표 4-12>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 교차 분석	67
<표 4-13> 행정단위별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구성형식 교차 분석	68
<표 4-14> 개최목적별 지역축제의 개최시기 교차 분석	68
<표 4-15> 프로그램 구성형식별 지역축제의 개최시기 교차 분석	69
<표 5-1> 축제에 대한 보도 현황	71
<표 5-2> 제주지역 개별 축제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	87
<표 5-3> 제주 축제·이벤트 인지도 조사	94
<표 5-4> 제주지역 전체 축제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	97
<표 6-1> 지역주민 의견조사 설문배포 및 회수상황	100
<표 6-2> 관광객 의견조사 설문배포 및 회수상황	100
<표 6-3>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배포 및 회수상황	101
<표 6-4> 새천년 정월대보름 축제 주요 행사내용	102
<표 6-5> 유채꽃잔치 주요 행사내용(첫째날)	103
<표 6-6> 유채꽃잔치 주요 행사내용(둘째날)	104
<표 6-7> 칠선녀 축제 주요 행사내용	106
<표 6-8>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참여 인원	107
<표 6-9>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주요 행사내용	109
<표 6-10>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참여인원	110
<표 6-11> 인구통계학적 특성(제주도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112
<표 6-12> 제주지역 축제 인지도	113
<표 6-13> 제주지역 축제 개최회수 적정성	114

<표 6-14> 제주지역 축제의 기여도	114
<표 6-15>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도	115
<표 6-16>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115
<표 6-17>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미지가 반영된 제주지역 축제	116
<표 6-18> 예산을 확대하여 규모를 늘려야 할 제주지역 축제	117
<표 6-19> 인구통계학적 특성(조사대상 축제에 참가한 지역주민)	118
<표 6-20> 제주도 축제 참여 경험	119
<표 6-21> 해당 축제 참여 경험	119
<표 6-22> 축제 분위기 느낌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120
<표 6-23> 축제에 참가한 주 목적에 대한 교차분석	121
<표 6-24> 축제 동행인에 대한 교차분석	121
<표 6-25> 축제 참가 결정 시기에 대한 교차분석	122
<표 6-26> 축제 정보 입수 경로에 대한 교차분석	122
<표 6-27>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차분석	123
<표 6-28>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쉽다’에 대한 교차분석	124
<표 6-29>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에 대한 교차분석	124
<표 6-30>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25
<표 6-31>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다’에 대한 교차분석	126
<표 6-32> ‘화장실이 청결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26
<표 6-33>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다’에 대한 교차분석	127
<표 6-34>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27
<표 6-35>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28
<표 6-36>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29
<표 6-37> ‘지역주민이 친절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29
<표 6-38>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30
<표 6-39> ‘행사 내용이 흥미롭다’에 대한 교차분석	130
<표 6-40> ‘행사 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	131

<표 6-41>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132
<표 6-42>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132
<표 6-43>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에 대한 교차분석	133
<표 6-44>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133
<표 6-45>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134
<표 6-46>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134
<표 6-47> ‘기념품의 질이 좋다’ 에 대한 교차분석	135
<표 6-48> ‘기념품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에 대한 교차분석	135
<표 6-49> ‘총 지출 경비’에 대한 교차분석	136
<표 6-50> ‘축제 전반적인 만족도’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137
<표 6-51> ‘재참가 의사’에 대한 교차분석	137
<표 6-52> ‘추천 의사’에 대한 교차분석	138
<표 6-53> 인구통계학적 특성(제주지역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	139
<표 6-54> ‘제주도 축제 참여 경험’ 에 대한 교차분석	140
<표 6-55> ‘축제 참여 경험’ 에 대한 교차분석	140
<표 6-56> ‘축제 분위기 느낌 정도’ 에 대한 교차분석	141
<표 6-57> ‘축제에 참가한 주 목적’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141
<표 6-58> ‘축제 동행인’ 에 대한 교차분석	142
<표 6-59> ‘축제 참가 결정 시기’ 에 대한 교차분석	143
<표 6-60> ‘축제에 대한 정보입수 경로’ 에 대한 교차분석	143
<표 6-61>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 에 대한 교차분석	144
<표 6-62>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쉽다’ 에 대한 교차분석	144
<표 6-63>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 에 대한 교차분석	145
<표 6-64>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146
<표 6-65>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다’ 에 대한 교차분석	146
<표 6-66> ‘화장실이 청결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47
<표 6-67>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다’에 대한 교차분석	147

<표 6-68> '행사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48
<표 6-69>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49
<표 6-70>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다'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149
<표 6-71> '지역주민이 친절하다'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150
<표 6-72>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50
<표 6-73> '행사 내용이 흥미롭다'에 대한 교차분석	151
<표 6-74> '행사 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52
<표 6-75>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52
<표 6-76>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153
<표 6-77>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53
<표 6-78>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54
<표 6-79>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154
<표 6-80> '기념품의 질이 좋다'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155
<표 6-81> '기념품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에 대한 교차분석	155
<표 6-82>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에 대한 교차분석	156
<표 6-83> '총 지출 경비'에 대한 교차분석	156
<표 6-84> 축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157
<표 6-85> '재참가의사'에 대한 교차분석	158
<표 6-86> '추천 의사'에 대한 교차분석	158
<표 6-87> 축제별 응답자 수	159
<표 6-88> 행사 프로그램의 비교	159
<표 6-89> 여행상품화로서의 가능성	160
<표 6-90>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쉬웠다	160
<표 6-91>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다	161
<표 6-92>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였다	161
<표 6-93>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었다	162
<표 6-94> 화장실이 청결하였다	162

<표 6-95>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163
<표 6-96>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였다	163
<표 6-97>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였다	164
<표 6-98>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였다	165
<표 6-99> 지역주민이 친절하였다	165
<표 6-100>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였다	166
<표 6-101> 행사 내용이 흥미로웠다	166
<표 6-102> 행사 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였다	167
<표 6-103>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였다	167
<표 6-104>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168
<표 6-105>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168
<표 6-106>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였다	169
<표 6-107>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였다	169
<표 6-108>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170
<표 6-109> 기념품의 질이 좋았다	170
<표 6-110> 기념품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171
<표 6-111>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171
<표 6-112> 만족도 조사 참고 여부	172
<표 6-113> 인구통계학적 특성(전문가 의견조사)	173
<표 6-114> 제주도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	173
<표 6-115> 제주도 축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	174
<표 6-116> 향후 축제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	174
<표 6-117> 계절별로 육성해야할 축제(봄)	175
<표 6-118> 계절별로 육성해야할 축제(여름)	175
<표 6-119> 계절별로 육성해야할 축제(가을)	176
<표 6-120> 계절별로 육성해야할 축제(겨울)	176
<표 6-121>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해야할 축제(제주도)	177

<표 6-122>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해야 할 축제(제주시) ..	177
<표 6-123>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해야 할 축제(서귀포시)	178
<표 6-124>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해야 할 축제(북제주군)	178
<표 6-125>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해야 할 축제(남제주군)	178
<표 6-126>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축제	179
<표 6-127>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	180
<표 6-128> 축제전문기구의 설립에 대한 견해	180
<표 6-129> 축제 조직의 전체적인 조직 구조의 방향	181
<표 6-130> 도, 4개 시·군의 협의를 통하여 통폐합 방안	181
<표 6-131> 제주지역 축제중 인지도, 문화적 이미지, 상품화 가능성이 큰 축제 (지역주민의식조사)	182
<표 6-132> 사례 축제에 대한 관련 집단간 만족도 항목 비교표	183
<표 6-133> 사례 축제에 대한 관련 집단간 전반적인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	183
<표 6-134> 계절별 육성해야 할 축제 종합(전문가 의견조사)	184
<표 6-135> 지방자치단체별 육성해야 할 축제 종합(전문가 의견조사)	184
<표 6-136> 지역적 특성과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전문가 의견조사)	185
<표 7-1> 2000년도 광역지자체별 문화행사 현황표	190
<표 8-1> 축제전문조직 설립대안 비교	199
<표 8-2> 축제전문조직의 주요 사업분야	200
<표 8-3> 문화관광축제의 관광상품화 관련 세부 점검항목 및 평점 구분 ...	204
<표 8-4>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205
<표 8-5> 제주지역 축제중 인지도, 문화적 이미지, 상품화 가능성이 큰 축제 (지역주민 의견조사)	207
<표 8-6> 계절별 육성해야 할 축제 종합(전문가 의견조사)	207
<표 8-7> 지방자치단체별 육성해야 할 축제 종합(전문가 의견조사)	208
<표 8-8> 지역적 특성과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전문가 의견조사)	208
<표 8-9> 문화관광자원 정보체계의 구축	211

<표 8-10> 축제 기술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212
<표 8-11> 축제안내정보시스템 구축	213
<표 8-12> 제주지역 축제 자원봉사자 활용분야 프로그램	215
<표 8-13> 축제정보망 구축	217
<표 8-14> 다양한 축제 소재 발굴방안	219
<표 8-15> 축제 소재(Ⅰ)	220
<표 8-16> 축제 소재(Ⅱ)	221
<표 8-17> 여행업체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	222
<표 8-18> 축제 캘린더·지도 활용방안	223
<표 8-19> 주요 마케팅 대상	224
<표 8-20> 단계별 홍보 전략	225
<표 8-21> 일본 여행업계의 지역축제에 대한 요구사항	231
<표 8-22> 축제기금 조성 내역	233
<표 8-23> 지역주민 참여 방안	235
<표 8-24> 주체별·시기별 추진일정(안)	236

그 립 목 차

[그림 2-1] 지역축제의 유형화	10
[그림 2-2] 이벤트 개최의 파급 효과	11
[그림 8-1] 제주지역 축제 활성화 체계	195
[그림 8-2] 제주지역 축제 통폐·합 방안 흐름도	197
[그림 8-3] 단계별 평가지표 및 상관관계	202
[그림 8-4] 문화관광축제의 해외 현지 상품화 과정	23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 오늘날의 지역축제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수세대에 걸쳐 축적해 온 지역의 신화나 종교 또는 제의 등의 고유문화를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정례행사이며, 지역민의 단합과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민의 참여하에 고유의 전통문화가 재현된다면 관광객에게는 그 지역의 역사와 독특한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¹⁾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듯 그 지역의 관광자원, 특산품, 설화, 자연물, 테마의 발굴 등을 활용하여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지방정부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은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Image)를 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단합과 지역문화의 발굴 및 체계화,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국제간 문화교류 촉진으로 인한 지역개발 잠재능력의 현재화(顯在化) 등 다양한 편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다.²⁾
- 지역축제는 관광행동을 촉발시킬 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으므로, 뛰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진다. 즉,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심각한 과속화 현상을 겪는 지역일수록 지역축제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는 커지게 되므로 이미 많은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관심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축제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내놓은 축제 가운데 많은 수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채 많은 예산만 사용한 소비적인 축제라는 지적³⁾과

1) 오순환, “문화관광축제의 연상도 차이-축제명과 지명간의 연상도를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관광학회, 1999, p.213.

2) 이장주·조현상, “지역축제의 이미지 특성화에 관한 실증연구-우리나라 6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관광학회, 2000, p.206.

3) 서희석·이동기, “물리적 환경이 지역축제의 만족과 재방문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개혁과 지방자치 동계학술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

함께 프로그램의 차별성 문제도 자주 논의되며,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비판의 소리도 있다.⁴⁾

- 따라서 어떤 방문객층을 대상으로 어떤 축제를 실시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어 버리기 쉽다.⁵⁾ 축제는 공급자인 축제조직자가 수요자인 축제 방문객들의 변화되는 기호 및 욕구를 더욱 깊이 고려해야 하는 수요자 지향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⁶⁾
- 한편 관광목적지로서 섬은 만국박람회 또는 올림픽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전략들 특히 홀마크 이벤트(Hallmark Events)의 개최를 지향해야 한다. 섬 관광지의 이벤트들은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중요성, 강력한 · 개방적인 이미지, 가능한 한 보다 더 깊이 있는 섬 관광지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만 한다.
-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축제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축제의 개발과 운영은 미흡하다. 또한 지자체 실시이후 자치단체마다 산발적인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제주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축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 제주지역 축제와 관련된 정확한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 즉,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운영 효율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 제주지역 축제의 진단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문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축제 기획가와 축제 마케터들에게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이벤트 관광상품을 기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다.

회, 2000, p.69.

4)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92호, 2000. 12.

5) 고승익외 3인, “축제 방문동기 세분화에 따른 지각된 성과와 만족 분석-’98제주세계섬 문화축제를 사례로-,” 「관광학 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2000, p.247.

6) 정강환, 「이벤트 관광전략 : 축제와 지역활성화」, 서울 : 일신사, 1996.

제 3 절 연구 방법

- 문헌연구와 자료분석(literature study and data analysis).
-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case study).
-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empirical study)
 -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조사
 -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사례 연구대상 6개 축제
 - 인식조사 및 축제 참여에 대한 만족도 평가(국내·외 관광객 조사).
 -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영향 측정(지역주민 조사).
 - 축제운영 효율성 평가(축제 주관처).

제 4 절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분석의 기준년도 : 2000년
- 내용적 범위
 - 지방화시대에 지역축제가 갖는 의의와 파급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역축제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 국·내외 축제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발견하고, 시사점을 탐색한다.
 -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별축제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축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한다.
 -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축제를 진단한다.
 - 제주지역 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제 2 장 이론 연구

제 1 절 축제의 개념체계

1. 축제의 전통적 기능

가. 축제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 원래 축제란 단어는 사람(人)이 말(口)로 신에게 기원하는 것(示)을 형상화한 글자인 祝과 제물(肉)을 손(手)으로 제상(示)에 놓는 모습을 형상화한 祭가 결합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의 축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신에게 제물을 봉헌하면서 그들의 소원을 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세계의 한계에 직면하거나 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들이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꾸민 인위적인 마당이 축제이다.⁷⁾
- 축제는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이다.⁸⁾ 원래 그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내지 의례적인 연원을 갖는다. 따라서 특별한 의례와 관련하여 먹고 마시는 공동체의 성스러운 식사가 포함된다. 이것이 점차 세속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제에는 연극적 무용·체육 행사·주정 부리기·카니발 등이 포함되었다.⁹⁾
- 이러한 성격의 축제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여 왔다. 어느 사회이든 계절적, 문화적, 역사적, 전통적인 행사나 축일을 강조하고 기념하는 축제가 있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든가 신과 고장의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든가, 새로운 소망이나 묵은 소원을 기원하는 등의 계기로 삼아 왔다.¹⁰⁾
- 우리나라에서 축제의 기원은 고대 부족국가시대의 제천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오순환, 전계논문, p.214.

8) 김병철,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8, pp.11-12.

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1994, p.25.

10) 김병철, 전계서, pp.11-12.

부여의 정월축제인 영고(迎鼓), 10월 상달에 열렸던 고구려의 동맹(東盟)과 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인 5월과 10월의 제천의례는 모두 한국적 축제의 원형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¹¹⁾ 이들 제천 의례라는 축제는 호트러진 놀이판이자 신성한 종교의 장으로서, 이 때에는 천신에게 제사지내고 음주가무로 놀이판을 벌이며 신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소망을 빌었다. 이처럼 제천 의례는 우리나라 축제의 문헌상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다.¹²⁾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축제는 공동체적 삶의 맥락속에서 행해졌다. 생활공동체 혹은 일공동체를 기반으로 생산과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풍농·다획·다산을 위하여, 혈연공동체를 기반으로 씨족·부족·민족 등이 훌륭한 조상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혹은 의식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와 역사와 자연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하여 벌이는 제사이자 잔치가 축제의 원형적 양상이었다.¹³⁾
-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축제는 농경문화에 기초한 세시축제의 특징을 띠고 있다. 세시축제의 기능은 농업노동에 따른 농경의식이면서 겨울과 봄의 대립에서 봄의 승리를 통하여 생산의 풍성함과 재생의 상징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래서 한해의 농사에 대한 풍요를 기원하면서, 곡식의 순조로운 성장을 염원하는 성장의식, 수확을 축복하는 수확의식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⁴⁾

나. 축제의 성격과 기능

1) 축제의 본질적 성격

- 고의적 과잉성(過剩性).
 - 축제때는 일상생활의 궤도에서 벗어나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전통적인 도덕성이나 금기시해 온 행동들도 잠정적으로 구속력이 완화되고, 축

11) 상계서, p.12.

12) 김동혁외 3인 공저, 「관광과 축제이벤트론」, 부산 : 신지서원, 2000, p.120.

13) 서연호, “축제의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영문화재단, 1994, p.48.

14) 최철, “축제로서의 놀이판의 이미,”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p.22.

제 참가자들도 각자 기묘한 복장과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잠시나마 인습적인 과거와 현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 긍정성(肯定性).

- 축제는 언제나 생을 긍정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인간생활이 고뇌와 번민, 절망 등을 모두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축하하기도 한다.

○ 대국성(對局性).

- 대국성이란 과잉적 요소와 관련되는 하나의 뚜렷한 대조성을 보인다는 뜻이다. 축제는 일상생활과 상이한 것이지만, 일하고 생활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즉 축의적(祝儀的)인 과잉성을 함축하면서도 일상생활의 작업관례, 중요성 등을 잘 대조시켜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농악놀이, 배짜기 대회 등은 과잉성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실제생활 중심과 대칭적으로 비교되어 나타난다.

2) 축제의 기능

- 임재해¹⁵⁾는 우리나라의 전통축제들이 과거 전통사회에서 행해온 기능은 특히 마을굿인 동제(洞祭)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동제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사하는 마을의 공동체의로서 종교적 기능,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축제적 기능, 예술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한국문화정책개발원¹⁶⁾은 축제의 기능을 통합과 신명, 조화로 보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¹⁷⁾에서는 축제의 기능을 억압된 인간의 감정과 행동 표현의 기회 제공, 인간본연의 위치 발견, 사회 비판적인 기능, 개발도상국가의 사회적 기능,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¹⁸⁾는 지역축제 및 이벤트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관광적지로서 지역의 매력도 제고 기능,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

15)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16)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1994, pp.38-39.

17) 한국관광공사,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1995, pp.451-452.

18) 한국관광공사, 「국내 문화행사 관광상품화 방안」, 1995, pp.23-24.

용, 관광성수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관광시즌을 창출하는 기능, 전 지역의 관광 지화 유발, 지역전통과 역사의 재연을 통해 문화관광시설이나 관광지의 활성화에 기여, 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데 기여, 지역사회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대한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문화정책개발원¹⁹⁾에서는 현대사회의 지역축제는 지역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상품화라는 다기능적 효용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축제의 개념과 분류

가. 축제의 개념

- 축제는 오늘날 지역 문화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모든 축제의 기초는 그것이 성스러운 것이든 세속적이든 제의와 기념식을 포함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주제가 있는 축하행사라고 할 수 있다.
- 한국문화정책개발원²⁰⁾은 축제를 농업·종교·사회·문화의 어떤 사건이나 절기를 기념하여 그것을 의례적으로 축하하는 어느 날이나 기간으로 개념지었으며, 일반적으로 종교적 내지 의례적인 연원을 갖는다고 했다.
- 김동혁 외 3인²¹⁾은 축제를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를 일컫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제는 애초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으며, 분명히 축하 제가 포괄된 문화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 함석중은 축제를 축(祝)과 제(祭)일이 겹치는 날로 축일은 기쁘게 빌어서 마음의 안락을 가지는 날이요, 제일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예절을 표하는 향사(享祀)를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다.²²⁾
- 조배행²³⁾은 축제를 공공적이고 주제를 가진 축하 행사로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

1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백제문화권의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상품 개발방안 연구」, 1997, pp.12-13.

20)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1994, p.25.

21) 김동혁 외 3인, 전거서, pp.119-121.

22) 함석중, “한국향토문화제의 관광대상화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28.

23) 조배행, 「'88서울올림픽의 관광에 대한 영향연구」, 서울 : 한국관광연구원, 1999, p.4.

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 김병철²⁴⁾은 지역축제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보고 있다.
 - 좁은 의미로는 지역과의 역사적인 상관성 속에서 생성·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넓은 의미로는 지역의 전통과 민속을 기반으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지면서도 시대적 상황과 감각을 반영한 문화적 성격의 이벤트로 전통민속축제 뿐만 아니라 문화제, 예술제, 현대 문화예술행사, 또는 문화적 성격을 띤 지역이벤트 등 축제적 성격의 문화이벤트 전반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박철·손해식²⁵⁾은 지역문화가 종합화되고 축약적으로 상징화된 행사로써 한 지역을 관광상품화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 이강욱²⁶⁾은 문화관광축제를 문화적인 요소와 테마를 지닌 지역 축제가 관광자원화의 목적을 지닐 때 ‘문화관광’과 ‘축제’의 합성어인 ‘문화관광축제’라는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김성혁²⁷⁾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두고 대중적이며 주제가 있는 행사 또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배울거리 등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들이 실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반 행사로 보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²⁸⁾는 문화관광축제를 매년 정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축제는 문화관광축제를 제외한 모든 축제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 또한 축제란 문화관광축제와 지역축제를 합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나. 축제의 분류

- 축제의 분류는 연구자의 연구 방법 혹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24) 김병철, 전게서, p.26.

25) 박철·손해식,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의례분석적 접근과 관광상품화 전략,” 관광학연구 특별호, 제22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1998, p.43.

26)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방안-금산인삼축제 사례연구-」, 한국관광연구원, 1998, pp.6-7.

27) 김성혁·고호석·김순하, “지역축제 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선택속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학연구, 24(1), 한국관광학회, 2000, p.26.

28)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p.3.

분류될 수 있다. 또 축제의 개최 목적에 따른 분류, 행사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따른 분류, 축제의 주제(축제의 자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이장춘²⁹⁾은 민속축제를 종합향토축제, 역사적·제의적 축제, 민속놀이 중심의 축제, 예술제, 경연대회 중심의 축제로 구분하였다.
- 문화체육부³⁰⁾에서는 축제의 개최 목적에 따라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형식에 따라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분류하고 있다
- 장정룡³¹⁾은 종합형 향토문화축제, 역사·제의형 축제, 민속놀이경연 중심의 축제, 예술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 서연호³²⁾는 역사적 시점에서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공간적 측면에서 지역축제와 초지역적인 특별축제로 구분하고 있다.
- 함석중³³⁾은 WTO 관광계획의 단계적 접근 방법과 Dumazier의 여가활동과 문화발전계획의 단계적 접근틀을 원용하여 향토문화제를 관광대상화의 정도에 따라 저개발형 향토문화제, 발전도상형 향토문화제, 선진형 향토문화제로 구분하고 있다.
- 김병철³⁴⁾에서는 축제의 지향성을 기준으로 지역축제를 유형화하였다. 축제의 지향점을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였으며, 하나의 축은 주로 축제의 개최 목적이나 축제의 목표 대상에 따라 공동체 지향성-외부지향성으로 설정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주로 축제의 소재나 프로그램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에 따라 전통지향성-현대지향성으로 구분하였다.

29) 이장춘, “무형문화제 등의 정기공연 정착화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월간관광 9월호, 한국관광협회, 1993, p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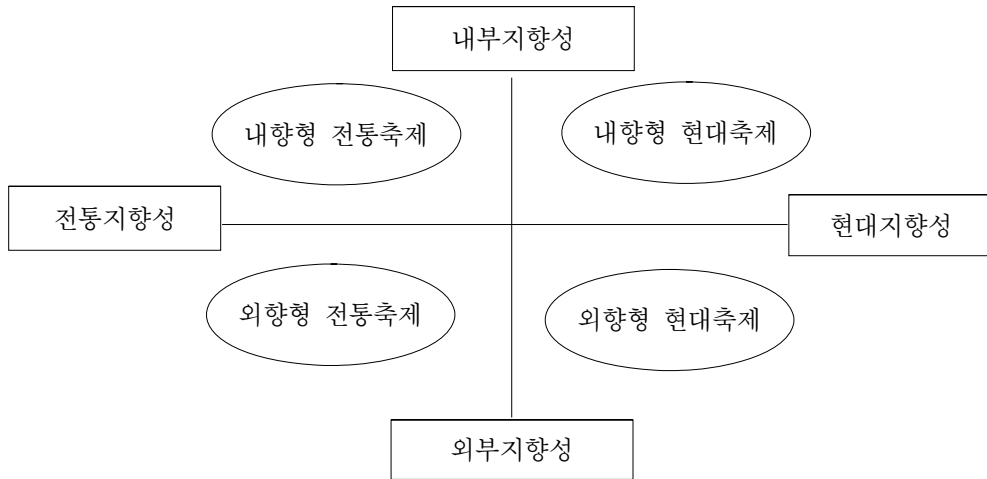
30)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1996, p.9.

31) 장정룡, “강원도 축제문화의 이해와 반성,” 강원민속학, 제12집, 1996.

32) 서연호, “축제의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문화재단, 1994, pp.47-64.

33) 함석중, 전제논문.

34) 김병철, 전제서, pp.55-57.



자료 : 김병철,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8, p.56.

〔그림 2-1〕 지역축제의 유형화

- 정강환³⁵⁾은 농업특산물, 전통공예 특산물, 기후, 지형적 특성, 꽃(식물), 음식, 음료, 문화(연극/음악) 등은 축제의 자원으로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다.
- 정연정³⁶⁾은 지역축제의 소재에 따른 분류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환경이나 역사적 인물 등 지역적 특성을 소재(이천 도자기축제, 금산 인삼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와 지역 특성과는 별개로 보편적이고 대중성이 있는 소재(부산의 국제영화제, 부천의 환타스틱영화제, 춘천 만화축제, 과천 마당극축제 등)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역축제의 기능적 분류로 주민화합형과 지역경제 활성화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 서희석·이동기³⁷⁾는 지역의 특색있는 자연자원, 문화, 설화, 특산품 등을 이용한 지역축제(금산의 인삼축제, 부안의 해남이축제, 무주의 반딧불축제 등)와 유형적이며 테마 중심의 인위적 지역축제(강원국제관광엑스포, 익산의 보석문화축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35) 정강환, 「이벤트 관광전략 : 축제와 지역활성화」, 서울 : 일신사, 1996, pp.8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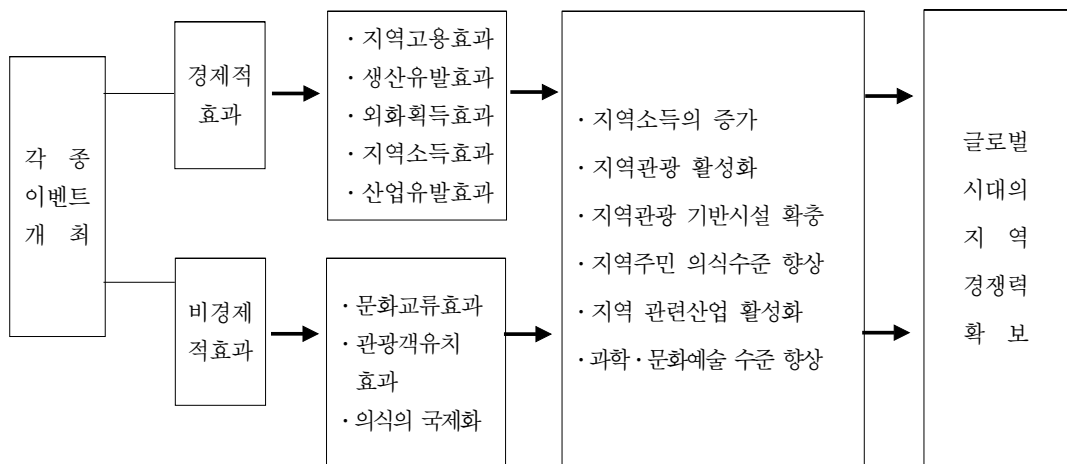
36) 정연정, “직지축제의 발상전환을 위하여,” 충북리포트, Vol. 6, No. 2, 충북개발연구원, 1999, p.53.

37) 서희석·이동기, 전개논문, p.70.

- 김경남³⁸⁾은 우리 나라 축제의 유형을 전통축제, 진보하는 전통축제, 상업화된 전통축제, 비공동 단독축제, 다문화 민속예술축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³⁹⁾에서는 지역 축제를 주제별과 공사의 분류기준(예산규모, 행사기간, 축제홍보,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3. 축제의 영향

- 최승담⁴⁰⁾은 문화축제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첫째, 축제는 지역공동체를 결함시키는 힘을 갖는다. 둘째, 축제는 관광목적지로서 해당지역의 강렬한 이미지를 형성시킨다. 셋째, 축제는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정삼철⁴¹⁾은 [그림 2-2]와 같이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로 구분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정삼철, 「충북 밀레니엄 대축제 개최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1998, p.27.

[그림 2-2] 이벤트 개최의 파급 효과

3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90호, 2000. 11.

39)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상계서, pp.4-46.

40) 최승담, “지역관광개발의 실패와 편협한 사고,” 김사현 외 10인,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서울 : 일신사, 1995, p.160.

41) 정삼철, 충북 밀레니엄 대축제 개최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1998, pp.27-32.

- 이강욱⁴²⁾은 축제의 영향을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 정치적 영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축제 기획·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의도는 축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영향 변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다음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축제의 영향을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 경제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회적 영향

-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문화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되며,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즉 지역축제는 지역 민들을 하나의 공동체적 삶의 공간으로 묶음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⁴³⁾
- 지역주민들은 특정 지역축제가 지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축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서로 공유하게 되며,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사회 속에 통합되어 있다는 확신감과 소속감을 지역주민들에게 불러일으켜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 지역축제는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축제 때문에 가게가 만원이 되고, 주차문제가 야기되며, 외부사람들이 유입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축제 개최를 반대하거나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⁴⁴⁾
- 한편 지방화시대에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고,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매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특정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 기존의 지역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개성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42) 이강욱, 전게서, pp.58-59.

43) 김병철, 전게서, p.17.

44) British Columbia Task Force on Public Order, "Policy Report,"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1(2), 1993, pp.79-86.

나. 문화적 영향

- 지역축제는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킨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축제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 축제 및 이벤트를 통한 문화활동은 해당 지역에 내재된 문화성을 현재화함은 물론, 이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문화의 창조력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문화보전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예술인의 지역간, 국가간 상호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여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킨다.

다. 경제적 영향

- 지역축제는 관광객 지출과 문화이벤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문화이벤트에 대한 직접 지출과 숙박비, 교통비, 식비, 관광상품 및 특산물 판매수입, 인근 지역관광에 대한 지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 대규모 축제를 중심으로 문화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한 각종 투자는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한다.
 -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 고용효과,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을 유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지역축제는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지역의 특화산업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는 축제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 판매, 재고품 정리, 지역의 특화산업 이미지 강화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 지역 특산물인 인삼을 주제로 한 금산인삼제는 '97년의 경우 약 4억원의 행사비

를 들어 177억원의 지역소득 효과를 거두었다.

- 여주도자기축제는 '97년 도자기 전시판매부문에서만 3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지역축제의 탁월한 특화산업 육성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 지역축제와 이벤트는 동적인 특성을 지닌 전략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전세계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는 문화관광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와 이벤트는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촉매제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 2 절 축제의 추진 체계

- 축제의 추진체계는 크게 축제의 기획, 축제의 기획입안(기본계획), 축제 기획의 구체적인 입안(실시계획), 고지·PR단계와 병행되는 제작단계, 리허설을 거쳐 실시 운영과 마지막 평가(행사후 업무)까지로 구성되며, 익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⁴⁵⁾에서 제시한 축제의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기획단계

가. 축제의 목표 설정

- 각각의 축제나 이벤트가 각기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지만 최근의 세계화·지방화 시대라는 환경적 요인과 이벤트 관광의 시각을 고려하여, 조직적·경제적·관광 마케팅 측면의 최종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최종 목표는 수년간의 이벤트 조직체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것이어야 하지만 이벤트 활동에 한정적인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 유동적인 면도 갖추어야 한다. 정해진 최종 목표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과 평가 결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⁴⁶⁾

45)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에 축제 관련 개별자들의 목표는 다를 수 있다.
 - 축제 방문객은 축제의 관람으로부터 관광과 여가를 통한 관광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것이다.
 - 반면에 지역의 관광 관련 사업체는 축제를 통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성을 기대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유사하게 관광축제를 통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성을 기대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 축제를 지원하는 스폰서의 목적은 축제 지원인데 주로 협찬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체들이 축제 등 각종 이벤트로부터 추구하는 편익은 인지도 향상, 이미지 향상, 상품의 시범적인 사용이나 세일즈 기회, 환대 기회 등이다.⁴⁷⁾
 - 축제의 성공은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달려 있는데 축제가 개최되고 있을 때만 임무를 맡는게 아니라 기획, 재정 확충, 조직, 그리고 마케팅 기능 등 다방면에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원봉사자들의 축제에 관련하여 동기, 행동, 그리고 지각은 축제를 기획하고 경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축제는 그 지역 기업체의 협조, 공공 서비스 제공업자, 그리고 거주민 뿐만 아니라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거주·비거주 자원봉사자들에게 달려 있다.⁴⁸⁾
- 방문객, 지역주민, 지방정부, 지역 사업체, 스폰서 등 각 개별적 목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우선 순위 및 다양한 의견수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한편, 축제 목표의 우선 순위 결정은 축제의 국가적 목표와 지방 정부의 목표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하게 지방정부와 각 개별 행사 관련자간에도 서로 다른 목표로 인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 이들 목표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 목표의 우선 순

46) 정강환, 전게서, p.73.

47) John L. Crompton, "Benefits and risks associated with sponsorship of major events," *Festivals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2(2), 1994, pp.70-71.

48) Peter W. Williams, K. B. Dossa and L. Tompkins, "Volunteerism and special event management : A case study of Whistler's Mens World of Skiing," *Festivals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3(2), 1995, pp.83-95.

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정책 목표에 대한 투표실시, 주민들의 설득, 교육 등으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목표 설정은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참여 및 무관심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목표간의 갈등 요인에 대한 분석 평가를 위한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나. 기간·세부행사 내용의 조기 확정 및 정례화

- 대부분의 지역 축제가 개최시기가 임박하여 기간, 세부내용 등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정례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축제의 기간이나 세부행사 내용의 조기 확정 및 정례화는 축제 주관처·주최측의 담당자, 관광업자, 관광객, 지역주민 등 모두에게 축제에 대한 신뢰감과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여행업자에게는 축제를 테마로 한 여행상품 개발시 축제 일정과 행사 내용이 최소 6개월전에 확정되어야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축제의 홍보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므로, 축제 개최기간중에 차기 연도의 축제기간 및 세부행사 내용 등을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다. 관광객 참여 이벤트 개발

- 관광객의 최근 성향이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을 이벤트화하여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행사 주체자들이나 관람객들이 모두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이 필요하다. 이벤트는 개최되는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매력과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유명한 축제의 이벤트를 벤치마킹 하더라도 그 지역 축제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라. 축제의 차별성

- 타 축제와 소재만 다르고 내용은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 무절제한 벤치마킹으로 각 지자체의 축제가 비슷해 지고 결국 서로에게 피해만 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 지역의 특이한 전통문화 즉, 유·무형문화재, 민속놀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유사행사 기획을 자제 하고, 지역간 차별성이 없는 백화점식 행사를 지양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중복되는 지역축제를 공동개최 또는 통·폐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접 지자체간, 광역자치단체별로 '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제를 포함해 지역관광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마. 지역소득 증대방안 모색

-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공예대전, 1지역 1명소 1명품 사업 등과 연계하여 특산품(농/수/임/축산물)코너 설치 및 판로개척(할인, 홍보 등)을 한다.
- 주변 상가, 숙박업소에 대하여 사전 친절·서비스·청결 캠페인을 사전에 함으로써 방문객의 지역내 체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참여 이벤트라 하더라도 주최측만이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참가비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개발이 필요하다.
- 무료이거나 투자액 회수 수준에서 최저 입장료를 결정한다. 이벤트 가격전략은 무료적인 측면과 유료적인 측면을 적절히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전문적인 공연단이 출연하는 축제이거나 시설 기자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벤트의 경우 투자액 회수 수준의 입장료 결정이 있어야 한다.
- 특산품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획일적인 부스 운영을 지양하고 특산품 판매 부스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부스 제작의 다양화로 외지인 부스, 지역주민 부스 특산품 부스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분위기를 제고한다. 또한 판매원의 사전 친절 및 서비스 교육, 특산품에 대한 설명기술 교육 등을 실시한다. 할인판매로 대도시권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 대부분의 축제의 경우 캐릭터에 대해 마인드가 부족하다. 캐릭터는 해당 축제의 상징물이자 강력한 홍보 이미지를 대외에 표출할 수 있는 요소이며 판로개척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

바. 인근 시·군과의 전략적 연계방안 강구

- 교통, 숙박, 음식, 기념품, 특산품, 관광코스, 인력지원, 공동홍보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인근 시·군과의 전략적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축제가 개최되는 시·군 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군도 축제장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평소에 시·군은 관광협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간 정보의 공유, 협조체제 구축 등을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사. 축제안내체계 개선

- 외래객이 방문시 동선에 따라 입구(역, 터미널, 톨게이트 등)에서 목적지까지 무리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처음 찾는 방문객의 입장에서 안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행사장은 물론 곳곳에 안내부스를 설치하고 근무자를 항상 정위치시켜 편안한 방문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안내방송은 관람객들에게 행사일정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주요 행사장 및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객들이 모이지 않아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아. 축제전담 공무원 육성

- 행사기획 및 운영, 통역·관광안내원 등 축제 관계 요원을 양성하여 행사 진행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행사를 앞두고 전담 공무원의 인사 이동이 없어야 하며, 잦은 인사 이동(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한다.
- 담당자 교체시 충분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져 축제기획·운영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자. 전반적 수용태세 점검

- 전반적 수용태세 점검은 방문객을 위한 관광안내정보체계 점검, 교통체계 점검, 숙박체계 점검, 음식점체계 점검,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체계 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2-1> 축제의 전반적 수용태세 점검표

구 분	내 용
방문객을 위한 관광안내정보체계 점검	· 현지 도착전의 정보 - 축제 자체에 대한 소개 - 축제가 열리는 고장에 대한 소개(위치, 역사, 문화, 기후, 주변 관광자원, 특산물 등) - 이용가능한 숙박시설(시설수준, 예약필요성, 현지 위치) - 식음료시설 : 지역 고유의 향토적 음식, 기존 식당업소, 축제 관련 식음료 이벤트 - 기타 연계 관광코스, 교통상황 등 · 현지 도착후의 정보 - 현지의 관광안내소, 안내요원, 역, 터미널, 고속도로 진출입 지역 주변, 시내 주요 지역(주요 기관, 건물주변) - 축제 관련 구체적 행사일정, 장소, 부대시설(프로그램, 브로셔 활용) - 행사장소, 주변 숙박시설, 관광자원이 표시된 간략한 관광지도에 나타날 각 상업시설을 인쇄 스폰서로 활용
교통체계 점검	· 현지로의 교통 : 필요시 현지로의 특별열차 마련/고속버스, 시외버스 운항편수의 증설/축제행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패키지의 마련 · 도착후의 교통 : 시내버스 운항편수의 증설, 운행시간 연장, 행사장 직행 전용 셔틀버스 운영, 공터, 유흥지 등의 주차장 확보
숙박체계 점검	· 숙박시설 점검 : 청결, 요금, 서비스 현황, 안전 등 · 예약제도 확립 : 업소간 연락체계 구축으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유흥객실이 생기는 결과를 방지 · 모든 고객을 평생고객으로 보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 · 방문객이 찾은 숙박시설은 축제와 주변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소 역할을 하여야 함(행사안내소, 지도 등을 필요한 고객에게 배부)
음식점체계 점검	· 향토적 음식 : 주요 관광 유인물, 축제효과 극대화 요소 · 음식축제가 지방축제 행사의 일부로서 인식되어야 함 · 관련 업소(식당, 여관, 호텔 등)의 협조, 비위생, 부당요금 징수 문제 해결 · 명확한 장소에 축제지정업소라고 부착을 하고 관련 업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하에 상기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체계 명시 등 행사장 외부여건 개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체계 점검	· 축제행사참가 방문객, 관광객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내의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축제가 관광자원으로 인식되는 기회 · 축제기획시 반드시 주변 관광자원을 점검하여 연계관광의 실을 거둠 · 여행사 및 공사와 협의 추진 : 대도시를 출발, 축제장·인근 관광지·식사·교통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 개발(당일/1박 2일 등)

자료 :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pp.11-13.

차. 축제 행사장 진행요원의 확보 및 사전교육

- 현장에서 참가객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안내도우미를 비롯한 행사 진행요원임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 예절교육과 현장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람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친절과 미소, 행사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적절한 설명은 관광객의 축제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한 이미지 상승효과를 유발한다.

2. 홍보 및 상품화 단계

가. 여행사 모객 유인 제공

- 시·군 및 축제추진위원회는 기획단계에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 대도시권에서의 관광객 모집을 위해 언론사·여행사·공사 대상 팸투어, 관광설명회 등으로 지역 알리기 방안을 강구한다.

나. 홍보 및 마케팅

- 설정된 축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에 대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즉, 방문객의 지리적 시장, 여행행태, 방문동기, 정보매체, 방문객의 주요 활동, 만족도 등이 명확한 분석 모형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을 세분하고, 세부 전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시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과 영향 변수는 <표 2-2>와 같다.
- 방문객의 권역별 분석과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은 효율적인 홍보활동에 도움을 준다. 또한 여행행태에 대한 사전 조사는 관람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 개발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숙박유형의 파악은 관광 수용체계를 유형화시켜 보다 효율적인 축제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방문동기의 분석은 축제의 주제 개발과 행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 방문객의 만족도 분석은 차기에 개최되는 축제에서 초래되었던 불편 사항에 관한 개선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모색하게 하고, 방문객의 지출 형태 분석은 지역 관광 사업체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지역축제를 전국적 규모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느끼고 있는 축제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여타 축제와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 요인을 발굴하여 해당 지역축제를 특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표 2-2> 시장조사의 세부 목표 및 영향변수

구 분	세부 목표	영향 변수
방문객의 지역	· 국내 · 외 주제관광수요 추정 · 축제관련관광코스개발	· 지역외, 지역내 · 국내, 외국
인구통계	· 시장분석의 인구통계적 분석 · 사회계층별 분석	· 연령, 성별 · 소득수준, 교육수준 · 직업상태
여행행태	· 축제현장의 관광시설 및 서비스 개선	· 개인 · 가족, 친구 · 친척 · 단체(패키지 종류) · 동반여행자수 · 교통수단 · 숙박시설, 숙박일수
방문동기	· 축제의 주제개발 및 행사 구성 개발	· 축제 그자체 · 관광목적 · 교양 · 학술 목적
정보매체	· 홍보와 광고 극대화	· TV · 라디오 · 신문, 잡지 · 구전 · 인터넷
방문객 활동	· 행사프로그램개발(예, 모험적, 쾌락적, 충동적, 자기만족, 남성적, 지적 등)	· 축제행사참가 · 방문지역에서 활동 · 회망하는 경험 및 활동
방문객의 만족도	· 축제상품 및 서비스의 개선	· 상품과 서비스 · 만족했던 사항 · 불편(불쾌)했던 사항 · 재방문의사
방문객의 지출	· 축제 행사지역내에서 지출행태	· 축제현장에서 지출(숙박, 식음료, 오락, 교통비, 기념품, 기타쇼핑 등) · 축제현장 외부에서 지출

3. 운영 단계

가. 축제분위기 거양 및 개·폐막식 행사 재정비

- 국내·외 관광객 환영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행사장 외 지역 입구(터미널 등) 및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등을 설치하여 환영분위기를 조성한다.
- 흔히 개막식에 자치단체장을 비롯 다수의 지역유지나 국회의원 등의 환영사가 개막식 소요시간의 절반을 차지, 참가자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 점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두 사람 이하로 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 주무대 활용도 제고

- 주무대는 개·폐막식 외에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이벤트 등을 개발하여 항상 축제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무대는 외래객 방문시 처음 찾는 곳이므로 축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행사 세부내용, 주변시설 등을 시간차를 두어 한국어, 외국어를 병행하는 장내방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는 축제분위기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 개별이벤트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 강화

- 행사 본부 내·외근 직원 구분으로 일사불란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사진행 요원과 업체 직원과의 외양 구분 불분명으로 행사장 무질서 및 행사 관련 문의시 불친절, 정보제공의 상이 현상 등이 발생한다.
- 이벤트사 혹은 시·군청 각 부서에 일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동의 통일성 파괴, 사전계획과 상이한 행사 진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 점검표를 통해 행사진행사항 철저한 체크

- 기획에서 행사종료까지 점검표를 만들지 않은 채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실 있는 행사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 금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차기 행사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1회로 그치는 소비성 행사라는 인식을 불식해야 한다.

4. 사후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단계

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축제평가 실시

- 축제의 기획과 집행단계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 작업이다.

<표 2-3> 축제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구 분	내 용
관광객 분석의 기준	· 지역주민 대비 관광객 비율 · 내국인 방문객 분석(지역별, 목적별 분석) · 외국인 방문객 분석(국가별, 목적별 분석) · 관광객들의 쇼핑지출액 · 관광객들에 유효한 축제의 주요 홍보매체
축제평가 사항	· 관광객 안내체계(안내부스, 행사안내서 구성, 안내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 전체적인 행사의 짜임새 · 주요 관광이벤트에 대한 방문객 반응 ·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의 다양성 · 편의시설 및 주차의 편리성 · 음식 판매부스 및 가격, 잡상인 통제 여부
지자체의 축제 추진의지	·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홍보노력 · 합리적인 축제 경영 여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분석	· 축제상품 개발(특산품 관광상품화) 및 판매가격 · 축제상품 판매 매출액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 관광객의 음식, 숙박지출을 통한 관광경제 기여효과

자료 :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p.35.

- 축제에 대한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축제 자체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외부 전문가(관련 분야 교수, 업계 종사자 등)에 의한 축제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시 주의할 점은 첫째, 잘된 점을 평가하는 사람은 차기 평가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둘째, 차후 개선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유도해 주어야 한다. 셋째, 참가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유도. 넷째, 행사진행에 대한 각 분야별 항목을 조사한다.

나. 평가내용 반영 및 평가보고서의 활용

- 평가보고서를 차기 행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실무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평가보고서에 의해 차기 행사를 준비하도록 교육한다.

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시행착오 방지

- 평가보고회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에 관여했던 모든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유도한다.
- 이는 사후 관리차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된 단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아울러 차기년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상호 협력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동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주관하에 경찰서장부터 환경미화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국내 · 외 축제 사례분석

제 1 절 국내 사례분석

1. 지역축제 현황

가. 광역자치단체별 축제 현황

- 매년 전국에서 650여개의 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650여개의 축제중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는 268개의 축제는 '99년도 11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다.

<표 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축제 현황

지방자치단체	축제수	지방자치단체	축제수
서울특별시	8	강 원 도	75
인천광역시	5	충청북도	18
대전광역시	5	충청남도	14
대구광역시	7	경상북도	24
부산광역시	8	경상남도	23
광주광역시	4	전라북도	21
울산광역시	6	전라남도	23
경 기 도	18	제주도	9
계	268		

주 1)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축제 현황임.

자 료 : <http://www.knto.or.kr>

나. 주제별 축제 현황

-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의 축제를 주제별로 분류한 현황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주제별 축제 현황

구분	갯수	구분	갯수	구분	갯수
신년해맞이축제	6	바다·해변축제	11	음악, 영화, 연극, 미술축제	33
전통민속문화·역사축제	93	눈·얼음축제	6	패션, 현대, 과학축제	12
자연·꽃축제	24	특산품축제	24	음식축제	17

자료 :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p.3.

다. 2000년도 25대 문화관광축제

-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2000년도 25대 문화관광축제는 축제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가능성 및 상품성, 주최기관의 축제 육성 의지, 숙박·교통·편의시설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다.
- 또한 축제의 해외홍보 및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며 축제 수준의 향상을 위해 이들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을 '99년 7억 2천만원에서 2000년 1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특히 25개 축제 중 관광상품성과 발전성이 크고 외래관광객 유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축제 10개를 '10대 집중육성축제'로 선정하고, 축제별로 국고 7천만원이 지원되었다.
- 10대 집중육성축제로는 ① 경주전통주와떡축제, ② 청도소싸움축제, ③ 남원춘향제, ④서천모시축제, ⑤ 진도영등축제, ⑥ 이천도자기축제, ⑦ 금산인삼축제, ⑧ 강진청자문화제, ⑨ 부산자갈치축제, ⑩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선정되었다.
- 이들 중 축제종합평가에서 각 부문별 1위를 차지한 금산인삼축제(방문객 설문조사), 이천도자기축제(외래관광객 유치), 진도영등축제(축제 참관평가)와 선정회의에서 우수축제로 추천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국고 7천만원외에 인센티브로 각각 100% 추가 지원(국고 7천만원)하였다.

<표 3-3> 2000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내역

축 제 명	기 간	주 요 행 사 내 용
한라산눈꽃축제	1.22-1.30	○ 새천년한라산등반, 이색썰매대회, 눈속보물찾기, 타악기한마당, 대나무스키, 조랑말썰매
대관령눈꽃축제	1.26-1.30	○ 스노우카레이싱, 겨울등반대회, 황령산사냥놀이, 눈조각공연, 알몸마라톤 등
청도소싸움축제	3.15-3.19	○ 한일친선투우, 남북친선투우(예정), 전국민속투우, 한우로데오경기, 소타기체험, 소와농경생활 전시 등
경주전통주와떡축제	3.24-4.2	○ 국민화합북공연, 떡나눔잔치, 달집태우기, 술떡명인·명가, 떡썰기·떡메치기, 새천년떡만들기, 술떡제조도구전시 등
영암왕인축제	4.9-4.12	○ 월출산달맞이행사, 왕인후예선발(일본인대상), 왕인박사추향대제, 한지만들기, 왕인박사도일행렬재현, 왕인마당극 등
충주무술축제	4.20-4.26	○ 천지인성화채화, 무술단체별홍보부스운영, 무술체험의장, 무술단체별시연, 무파별무술특기공연, 무술영화인초청 등
여주도자기박람회	4.28-5.8	○ 2000한정작품판매, 국제도예작가전, 세종도예공모전, 한국도자기역사전, 공군에어쇼, 내가만든도자기 등
서천모시문화제	5.1-5.6	○ 2000명모시할인판매, 아트펜스, 모시천년광장, 전통한복 2000년전시회, 저산팔읍길쌈놀이, 덕타령시연, 모시길쌈 등
진도영등축제	5.3-5.6	○ 영등살놀이, 신비의바닷길체험, 뽕할머니제사, 진도아리랑교실, 진도명물여행, 뗏목노젓기대회 등
고희남원춘향제	5.4-5.9	○ 사랑의편지·시화전, 순결서약이벤트, 세계사랑의예술축제, 한국사랑예술화합행사, 전통혼례페스티벌, 전통목공예축제 등
하동야생차축제	5.19-5.23	○ 대림공추원비헌다례 및 다랫배지 다례식, 차잎따기대회, 다례시범 및 올해의 명차선정, 햇차시음회 등
무주반딧불축제	6.10-6.14	○ 반딧불환경백일장, 반딧불환경전시회, 반딧불사랑실천대회, 추억의민속장터운영, 반딧불신비체험여행, 자연학교 등

<표 3-4> 2000 하반기 문화관광축제 내역

축 제 명	기 간	장소 및 주최	주 요 행 사 내 용
보령머드축제	7.14~17	• 대천해수욕장 • 보령머드축제 추진위원회	머드마사지, 머드게임, 머드분장대회, 머드조각만들기, 머드탕, 머드채취, 머드거리카니발 등
고성공룡나라축제	8.3~6	• 고성군 하이면 • 고성군	공룡모험체험관, 공룡주제이벤트, 공룡관련야외영화제, 원시체험생활, 공룡모형만들기 등
강진청자문화제	8.5~13	• 강진고려청자도예지 • 강진군	청자함께만들기, 청자기원제, 청자의 꿈 마당극, 청자빚기체험장, 대학생물레성형경진대회 등
사이언스페스티벌 2000	8.11~20	• 엑스포과학공원 • 대전엑스포과학추진회	로봇올림픽, 사이언스타워2000, 가상현실체험, 로봇축구, 맥가이버과학체험 등
금산인삼축제	8.25~9.3	• 금산인삼종합전시장 • 금산인삼축제집행위원회	동서양 만남의 문화, 건강여행, 국제인삼교역전, 인삼건강특별전 (인삼동의보감, 인삼요리체험, 인삼왕 선발,인삼 사우나), 인삼캐기여행 등
난계국악축제	9.23~26	• 영동천 둔치 • 영동군	세계음악축제, 국악체험교실, 민속놀이 체험, 우리소리한마당, 전국국악경연대회 등
양양송이축제	9.29~10.8	• 남대천둔치 • 양양군송이축제위원회	송이채취체험, 송이요리품평및시식회, 버섯품평회, 특산품판매 등

(계속)

축 제 명	기 간	장소 및 주최	주 요 행 사 내 용
안동탈춤 페스티벌	9.29~10.8	• 낙동강변 축제장 • 탈춤사무국	탈춤공연 (21단체: 국내13,국외8), 차전놀이, 뚝다리밟기, 저전논매기, 굿한마당, 선유줄불놀이, 세계탈·장승·도자기전시 등
통영나전칠기 축제	9.30~10.3	• 남망산 공원 •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	400년 전통의 역사관, 나전칠기 제작과정 및 재료전시회, 나전칠기 판매전시장 등
이천도자기축제	10.10~22	• 이천시 설봉산 •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성화채화봉송, 국악체험교실, 민속놀이 체험, 우리소리 한마당, 전국 국악 경연대회 등
광주김치대축제	10.18~22	• 영주종합체육관 • 광주광역시	김치역사문화관, 종묘관, 김치 전시회, 김치 경연대회, 김치 체험장, 포장디자인 공모전 등
익산보석문화 축제	10.19~29	• 이리귀금속판매센터 • 이리귀금속보석 가공협동조합	보석패션쇼, 보석학술대회, 탄생석 판넬 전시, 보석가공 시연회, 무역상담회 등
부산자갈치축제	10.20~23	• 자갈치시장 • 자갈치축제위원회	자갈치앞바다 정화활동, 새천년방생 대회, 외국인 요리경연, 자갈치아지매 솜씨자랑 등

라.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현황

- 문화관광축제의 선정은 1998년 18개에서 2000년에는 25개 축제로 선정축제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있다. 예산지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0년에는 16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다.
- 관람객 현황은 내국인 관람객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외국인 관람객은 담보상태에 있다.

<표 3-5> 문화관광축제 연도별 현황

연도 \ 현황	선정축제(개수)			예산지원(백만원)			관람객 현황(명)	
	계	상반기	하반기	계	국비	관광공사	내국인	외국인
1998	18	5	13	662	350	312	5,401,223	132,760
1999	21	10	11	720	360	360	9,210,796	199,953
2000	25	12	13	1,650	1,650	0	11,537,338	161,843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0년도 축제기획담당자 교육 세미나 자료집」, 2000, p.7.

마.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 문화관광부는 '99년 6월과 10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의 협조를 통해 해외여행사와 KATA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축제 관련 외국인 단체관광객 모객 실적은 <표 3-6>과 같다.
-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부문은 축제장을 방문한 국내 관광객과 주한 외국인, 외국인 개별 관광객(F.I.T) 등은 제외하고,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 총 61개 여행사가 축제의 여행상품화를 통해 '99년 한해 동안 7,496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실적 1위는 이천도자기축제가

2,376명으로 1위, 진도영동축제가 2,177명으로 2위, 양양송이축제가 724명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 그리고 총 15개 축제가 여행상품화에 성공하였으며, 대관령눈꽃축제, 청도소싸움축제, 여주도자기축제, 충주무술축제, 남원춘향제, 익산보석문화축제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단체관광객 모객에 성공하였다.

<표 3-6> 문화관광축제별 여행사 외국인 단체관광객 모객 실적

순 위	축제명	주최측 집계 외국인수	여행사 수	단체관광객 수
1	이천도자기축제	80,200	23개(일본, 동남아 등)	2,376명
2	진도영동축제	5,000	22개(일본)	2,177명
3	양양송이축제	1,500	13개(일본)	724명
4	금산인삼축제	3,000	1개(홍콩, 대만, 싱가포르)	604명
5	부산자갈치축제	5,200	9개(일본, 독일 등)	459명
6	보령머드축제	1,510	1개(홍콩)	420명
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6,114	4개(일본, 독일 등)	388명
8	광주김치대축제	2,140	4개(일본)	119명
9	충주무술축제	1,458	1개(일본)	73명
10	대관령눈꽃축제	2,500	1개(일본)	60명
11	남원춘향제	1,600	3개(일본)	50명
12	여주도자기박람회	76,550	1개(일본)	20명
13	익산보석문화축제	400	1개(독일)	12명
14	청도소싸움축제	400	1개(일본)	7명
14	서천모시축제	521	1개(일본)	7명
	한국전통주와떡축제	1,990		
	영암왕인축제	1,500		
	무주반딧불축제	150		
	강진청자문화제	6,220		
	통영나전칠기축제	1,500		
	난계국악축제	500		
	총 계	199,953	61개	7,496명

자료 : 문화관광부, 「'99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1999, p.22.

- 단체관광객은 '97년 1,800여명에서 '99년 7,49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행상품화되는 축제의 개수 역시 '97년 7개 축제에서 '99년 15개로 증가하였다.

<표 3-7> 연도별 여행사 단체관광객 모객 실적

연 도	1997	1998	1999
여행사수	21개 여행사	20개 여행사	61개 여행사
관광객수(증가율)	1,800여명	4,700여명(161% 증가)	7,496명(61% 증가)
상품화된 축제수	7개 축제	11개 축제	15개 축제

자료 : 문화관광부, 「'99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1999, p.22.

바. 문화관광축제 참관 평가 결과

- 축제평가위원들과 문화관광부가 각각 50점 만점으로 홍보 및 안내(10점), 행사진행전반(20점), 연계관광(10점), 운영 및 기타(10점) 부분을 평가한 결과가 <표 3-8>과 같다.

<표 3-8> 문화관광축제 참관 평가 결과(1999년도)

순위	축제명	총점	평가 세부항목			
			홍보 및 안내	행사진행	연계관광	운영 및 기타
1	진도영동축제	88	18	36	16	18
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86	20	32	16	18
3	이천도자기축제	85	19	34	15	17
4	금산인삼축제	80	17	36	12	15
5	남원춘향제	78	16	34	12	16
6	강진청자문화제	74	14	32	14	14
7	청도소싸움축제	73	14	32	11	16
7	한국전통주와떡축제	73	18	28	15	12
9	여주도자기축제	70	15	29	13	13
9	광주김치대축제	70	15	30	14	11
11	부산자갈치축제	69	15	27	14	13
12	영암왕인축제	67	14	28	13	12
13	난계국악축제	65	13	31	10	11
14	서천모시문화축제	63	13	26	12	12
15	무주반딧불축제	58	10	24	12	12

자료 : 문화관광부, 「'99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1999, p.29.

- 축제참관 평가 결과 진도영동축제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2위, 이천도자기축제가 3위를 차지하였다.

2. 주요 문화관광축제 사례 분석

가. 청도소싸움축제

□ 축제 배경

- “농경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향토축제” 개최지로서 청도군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영남중심의 관광시장에서 탈피, 수도권역으로의 관심 확대와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한다.
- 2002년 상설 투우경기장 완공을 앞두고 청도소싸움이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축제를 기반으로하여 상설투주장과 연계된 지속적인 홍보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 축제 개요

- 일 시 : 2000년 3월 15일 ~ 3월 19일(5일간)
- 장 소 : 경상북도 청도군 서원천 둔치
- 주 관 : 청도군
- 주요 행사
 - 전국 소싸움대회, 한·일 친선 소싸움, 한우 로데오경기, 이쁜 소뽑기, 소싸움 사진 촬영, 소싸움 미술전, 소와 농경문화 전시관, 소타기, 소달구지 타기, 축하 음악회, 팔도옛장수 한마당, 전통민속 한마당, 국악의 밤 등.
- 방문객 수 : 402,526명(추정치)

<표 3-9> 청도소싸움축제 홍보 활동

구 분	활 동 내 용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청도소싸움축제 리플릿, 포스터 제작(국문, 영문, 일문, 중문) · 보도자료집(국문, 영문, 일문) 제작, 배부 · 국내배부 - 국내여행사, 일본·중국 인바운드 여행사, 철도청, 특급호텔, 관광안내소, 한국관광공사, 문화답사단체, 주한외국인단체, 국제교류단체, USO여행사, 주한카우보이연합회, 주한미군부대, 언론·방송사 등 · 해외배부 - 관광공사해외지사(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센다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일본 큐슈지역 미디어, 여행사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 일본 후쿠오카 축제설명회 개최 ·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관광상품설명회 개최 · 니시니혼(서일본)신문사 명예기자 위촉(일본지역 매체홍보활동 촉진) · 어권별 홍보물 및 프레스킷(보도자료집)제작 · 축제 관광상품개발 및 홈스테이상품 추진 · 부산 서틀버스은행 프로모션 · 인터넷 방송국 생중계 섭외 · NHK(큐슈메디스)아침방송 축제자료 지원 · KAL기내지(모닝캄), 아시아나기내지, 아사히TV 등 자료제공 및 취재지원 · 주한 외신취재 섭외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 국내답사 단체대상 관광상품설명회 개최 · 철도상품개발 촉진 및 매체홍보 · 아이템별 보도자료 배부 · 중앙일간지, 전문지, 잡지 등 매체섭외 · 인터넷 여행전문사이트 자료제공, 홍보 · 청도축제 홈페이지 및 사진작품 사이트 적극 홍보
매체 섭외활동	· 아이템별 보조자료 작성 및 사진자료 발송 · 인쇄매체 - 중앙일간지(20), 시사주간지(5), 여행업계지(11), 여성월간지, 지방지 · 방송매체 - KBS, MBC, SBS, 케이블, 인터넷방송국 등 30여개사 섭외 · 인터넷 웹홍보
정보수집 및 모니터	· 주간 뉴스 클리핑(18개 일간지 대상 관련 기사 수집·모니터) · 기타 관련 아이템 수집, 조사 연구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0년도 축제기획담당자 교육 세미나 자료집」, 2000, p.62.

<표 3-10> 청도소싸움축제 방문 관광객 수

날짜	승용차(대)	평균 승차인원	회전율 (6시간 체류)	자가용 이용객	기 타 교통수단	추 정 방문객
3. 15	9,830	2.5	1.6	39,320	22,118	61,438
3. 16	8,417			33,668	18,938	52,606
3. 17	8,874			35,496	19,967	55,463
3. 18	12,325			49,300	27,731	77,031
3. 19	24,958			99,832	56,156	155,988
계	64,404			257,616	144,910	402,526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0년도 축제기획담당자 교육 세미나 자료집」, 2000, p.72.

○ 지역경제 파급효과 : 67억원

- 산업 연관분석표상의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기념품, 기타 항목을 도로여객운송, 숙박, 음식점, 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기타+유흥비)항목으로 분류하여 산출승수를 곱하여 지역내 산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식·음료수업이 49억 6천여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현지교통비에 의한 경제효과가 4억 3천 8백만원 등으로 평가되었다. 축제 기간동안 발생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67억 1천 6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지역 총생산액을 4천 4백 18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지역산출액 기여도는 약 1.5%에 이른다.

<표 3-11> 청도소싸움축제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 분	산업연관분석 표상의 항목	국내외 총지출액 (천원)	청도지역 산출승수 (60%)	청도지역 산출파급 효과(천원)
현지교통비(주차비, 연료비)	도로여객운송	928,777	0.9429258	437,884
숙박비(현지지출)	숙박업	252,592	0.964732	243,871
식음료비(식대 및 음료)	음식점업	4,651,487	1.0662556	4,959,674
기념품 및 쇼핑비	소매업	179,261	0.945099	169,419
유흥비(노래방, 당구장, 술값)	기타문화	91,293	1.1400954	169,419
기타	오락서비스	645,912		736,401
총계		67,749,322		6,716,668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0년도 축제기획담당자 교육 세미나 자료집」, 2000, p.72.

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축제 배 경

- 전통 탈춤의 전승보존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
-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축제 개요

- 행 사 명
 - 국 문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0
 - 영 문 : Andong Mask dance Festival 2000
 - 일 문 : 安東國際 마스크·댄스·フェステバル2000
 - 중 문 : 安東國際 假面舞藝術祭 2000
- 행사기간 : 2000. 9. 29~10. 8(10일간)
- 행사장소 : 안동시 일원(강변축제장, 하회마을 등)
- 주 최 : 안동시
- 주 관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추진위원회
- 예 산 : 8억여원
- 방문인원 : 608,000명('99년 대비 20% 증가)
 - 외국 관광객 증가 : 20,000명(40% 증가)
 - 단체 관람객 32개 단체 참여(일본, 미국, 중국 등)
 - 외지 관광객 증가 : 150,000명(30% 증가)
 - 학술답사단 40여개 팀 참여(중앙대, 경원대, 옛돌 등)

<표 3-1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주요 행사 내용

행 사 명	일 시	장 소	행 사 내 용
외국탈춤	9. 29~10. 8	이벤트공원, 하회마을	7개국 9팀 초청공연 (일본 3팀, 중국, 인도, 태국, 스위스, 헝가리, 세네갈)
국내탈춤	"	"	국내 20개팀 탈춤공연 (한국에서 전승되는 중요무형문화재 탈춤 13개 단체와 비지정 7개 단체)
제30회 안동민속 축제	"	안동시 일원	안동에서만 볼 수 있는 차전놀이, 뚝다리밟기, 저전, 농요, 한두실행상소리, 달집태우기 외 40 여종 전통민속놀이
제31회 중요무형문화재 마당놀이 공연	"	이벤트공원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마당놀 이 발표공연(전국단위)
제7회 한국인형극제	"	이벤트공원	국내외 인형극 10개 단체 공연
유교 문화제	"	안동시 일원	전세계적으로 유학이 가장 잘 보존된 안동에서 도산별시(지방에서 치러진 유일한 과거시험),향 음주례(술을 마시는 멋과 맛) 등
전시·공연행사	9.29~10.8	안동시 일원	안동문화 관광상품전, 특별공연, 예술공연, 세계 탈전시회, 탈춤그림전시회, 창작탈전시회, 특산 물전시회 등
관광객 참여행사	"	안동시 일원	장승깎기,탈춤따라배우기,송화주시음회 등
학술대회	"	안동시청 강당	동양민속예술교류워크샵(한·중·일), 관광축제 발전세미나 등
선유줄불놀이 (하회마을축제)	9.30, 10.7	하회마을	자연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린 안동 선비들의 뱃 놀이와 불꽃놀이
안동음식마당	9.29~10.8	안동시 일원	안동종가음식, 안동의 시절식, 안동한우요리, 안 동소주향연 등

자료 : 문화관광부, 「2000문화관광축제 정보자료집」, 2000.

<표 3-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주요 홍보 내용

구 분	활 동 내 용
기본방향	· 1단계(4월) : 인지도 및 공감대 형성 · 2단계(8월) : 관심 유발 및 참여욕구 형성 · 3단계(9월) :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국내홍보	· 정국 축제장(박람회) 방문 홍보 : 6회 32,923매 · 각종 행사 방문 및 여행사 초청 홍보 : 2회 90,000명 · 홍보물 안내문 발송 : 9회 150,000명
국외홍보	· 관광박람회 : 10회 35,000명 · 홍보설명회 : 6회 4,902명 · 순회홍보 : 6회 15,001명
홍보물제작	· 14종 471천매(팜플렛, 리플렛 등)
홍보시설물	· 12종 462매(선전탑, 아취 등)
언론사 방송홍보	· TV 방송 : 70회 · 라디오 : 57회 · 신문잡지 : 31개사 145회 게재 · 인터넷 - http://maskdance.com 독자 도메인을 확보하여 새로이 작업 - Rezio.com 생방송 실시, 안동넷(andong.net)녹화방송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0년도 축제기획담당자 교육 세미나 자료집」, 2000, pp.75-76.

다. 고성공룡나라축제

□ 행사 목적

-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 산출지인 경남고성의 위상과 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
- 공룡이 지닌 독창적 이미지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축제로 발전.
-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을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육성.

□ 행사 내용

- 행사명 : 고성공룡나라 축제.
- 행사기간 : 2000. 8. 3(목) ~ 8. 6(일) 4일간.
- 행사장소
 - 제 1행사장 : 고성읍 일원.
 - 제 2행사장(주) : 상족암 군립공원.
- 주 최 : 고성공룡나라축제추진위원회.
- 예 산 : 323백만원.
- 관광객 유치 : 연 10만명.

<표 3-14> 고성공룡나라축제 주요 홍보 내용

구 분	활 동 내 용
언론홍보	• TV - KBS : 3회(뉴스 등) - MBC : 55회(스포츠하이라이트, 앙코르베스트극장 등) - PSB : 6회(청춘시트콤 등) • 라디오 - MBC : 28회(싱글빙글쇼, 2시의 테이트) • 신문 - 중앙지 : 12회(연합 3, 국민 1, 동아 2, 세계 3, 중앙 1, 조선 1, 서울경제 1) - 지방지 : 81회(경남일보 등) - 재민일보 대판본사발행 한국시사주간지 : 2회
기타홍보	• 사보지 : 3종 각 1회(삼성에버랜드, 현대자동차, 한국건강관리협회) • 유선방송 : 진주, 삼천포지역 90회(1일 3회), 고성지역 540회(3월~8월 계속) • 소가야 소식지 : 9회(월간지) • 포스타 등 : 22종
팸투어 및 해외홍보	• 해외출장 홍보 : 대만국 란닝시 세계민속문화축제행사장 • 일본팸투어단 초청 : JRQC사 이마무라의 3명 • 인도팸투어단 초청 : 인도TCI사 등 10개사 • 동보여행사 초청관광상품 기획답사 투어 : 일본 Internet Air Service사 기획담당 외 2명 • 여행업체 및 기자단 초청 팸투어 : 여행사 22명(한주여행사 등 21개 업체), 기자단 4명(세계여행신문 등 4개 업체)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0년도 축제기획담당자 교육 세미나 자료집」, 2000, pp.75-76.

<표 3-15> 고성공룡나라축제 주요 행사 내용

행 사 명	행사일정	장 소	행 사 내 용
(개막행사)			
전야제	8.3	고성읍	· 국내에서 최초로 공룡을 주제로 개최되는 고성 공룡나라축제를 널리 알리고 집객을 유도하기 위한 pre-event
하늘열림기원제	8.4	상죽암 군립공원내	· 천혜의 자연경관을 주신 조상신께 감사드리 고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
개막식/선박 프레이드	8.4	"	·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행사 및 개막 을 축하하는 선박위의 특수효과 쇼
(공연행사)			
선사인퍼포먼스	8.4~8.6	상죽암 군립공원	· 마당극패들이 선사인 분장을 하고 선사인들 의 수렵과 채취 등, 생활상을 재미있는 극으 로 구성, 흥겨운 축제 분위기 조성
소가야문화제행사	8.3~8.6	고성읍	· 국가중요 무형문화재인 고성오광대, 고성농 요와 고성농악, 민속줄타기, 전통예술 한마 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고룡이가족한마당	8.5	상죽암 군립공원	· 축제에 참가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장기를 겨뤄보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부대행사)			
청소년공룡캠프	8.4~8.6	상죽암 군립공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사문화 체험과 도전정 신을 키우는 캠프
공룡대탐험	8.4~8.6	"	· 상죽암군립공원 일대의 공룡발자국코스 탐 방과 함께 체험 환경학습
국제공룡학술 심 포 지 움	8.4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실	· 상죽암군립공원내의 공룡발자국 화석들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 가치와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국내·외 학자들이 토론함으로써 국 제적 위상정립
선사인올림픽	8.5	상죽암 군립공원	· 인근해수욕장에서 장애물 경기를 통한 흥미 유발 프로그램
공룡알을찾아라	8.6	"	· 행사장주변에 공룡알을 숨겨놓고 보물찾기 식으로 알을 찾는 이색 프로그램
공룡야외영화제	8. 4 ~ 8. 5	상죽암 군립공원	· 선사시대 및 공룡을 주제로 여름밤의 야외 영화 관람
공룡퀴즈대작전	8. 6	"	· 공룡에 관련된 상식적인 내용의 즉석퀴즈 한마당
내가만든공룡	8. 4	"	·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빛의환희	8. 4 ~ 8. 5	"	· 인간의 삶과 전기를 주제로 한 환상적 레이 저 쇼 연출

(계속)

행 사 명	행사일정	장 소	행 사 내 용
(상설행사)			
3D입체영상상영	8. 4 ~ 8. 6 (12:00~ 18:00) 매시 30분이상영	청소년수련실	· 3D입체영상으로 공룡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 는 애니메이션 상영
밀레니엄화석전시	8. 4 ~ 8. 6	상죽암 군립공원	· 공룡뼈조각, 발자국, 공룡알, 나뭇잎, 거미 등 다양한 종류의 화석전시
공룡Road 역사전	8. 4 ~ 8. 6	"	· 행사장 주변에 살았던 공룡 이구아나돈 및 각종 공룡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들어있는 패넌 전시, 고생대 공룡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 도모
원시체험생활	8. 4 ~ 8. 6	"	· 선사시대 선사인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체험 할 수 있는 체험의 장 마련
공룡찾아400리	8. 4 ~ 8. 6	"	· 고성군 전역에 산재하는 공룡발자국을 셔틀 버스로 탐방하는 프로그램
고룡이 face-painting	8. 4 ~ 8. 6	"	· 축제 참가자들의 얼굴이나 신체의 일부에 고룡이 등의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 코너
고룡이와 함께 찰칵	8. 4 ~ 8. 6	"	· 고성의 캐릭터 고룡이가 행사장 주위를 돌 며 참가자들에게 귀여운 모습을 선사하고 즉석 사진을 찍는 코너
공룡사세요!	8. 4 ~ 8. 6	"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룡관련 상품을 살 수 있는 코너
고성특산물전	8. 3 ~ 8. 6	"	· 고성의 특산물인 멸치, 고성청결미, 유자청, 감식초 등과 전통공예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라.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2000

□ 행사 목적

- 새천년을 맞이한 대전의 상징축제로 육성
 -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대내·외 위상 제고.
- 사이언스벨트를 활용한 과학교육으로 국민의 과학마인드 제고

- 엑스포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KAIST, 대덕연구단지연구소 등 활용.
- 문화관광산업 및 과학산업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축제 개요

- 행 사 명 :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2000.
- 주 제 : “Click! Scientopia”(열러라! 과학천국).
- 행사기간 : 2000. 8. 11(금)~8. 20(일), 10일간.
- 행사장소
 - 주행사장 : 대전엑스포과학공원
 - 보조행사장 :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연구단지, 유성온천 등
- 행사내용 : 과학, 문화, 연계행사.
- 행사예산 : 614백만원(국비 90, 시비 110, 엑스포과학공원 414).
- 주 체
 - 주 최 : 대전광역시
 - 주 관 :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 후 원 :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한국관광공사, KBS 등.

<표 3-1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2000 주요 홍보 내용

구 분	활 동 내 용
방 송	• TV광고 : 75회(KBS TV 전국 : 15, 대전 3사 : 60) • TV자막 : 대전 KBS, MBC, TJB 각 30회
신문·잡지	• 기자회견 : 2회(서울, 지방) • 신문보도 : 120여건(기획기사, 행사내용 소개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대상 : 초·중·고등학교, 관련 기관·단체, 여행사 등 • 배부량(포스터) : 18,000부(국·영·일·중문), 리플렛 : 133,000부(국·영·일·중문)
관광박람회	• 세계관광박람회, 홍콩국제관광박람회, 한국국제관광전 등 • 대전지역 여행업계 초청 설명회 실시 : 2000. 7. 26, 50여개 업체 참석
옥외홍보물	• 광고탑(7), 육교 현수막(10), 가로 현수막(100), 배너(104), 안내사인(10)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 시, 엑스포과학공원

자 료 : 한국관광공사, 「2000년도 축제기획담당자 교육 세미나 자료집」, 2000, p.89.

<표 3-17>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2000 주요 행사 내용(구역별 프로그램)

구역	행사명	내용
<A구역 : 주제행사> · 공간명칭 : Scientopia Gate · 구역 : 서문입구 및 광장 · 주제 : Welcome to Scientopia · 상징색 : Yellow World	· 사이언스 타워 · 과학자 캐릭터 공연 · 국제과학축제 교류전	· 대덕연구단지내 과학자 탐 조성 · 유명과학자의 캐릭터 거리공연 · 세계유명과학축제의 초청교류행사
<B구역 : 자연생명> · 공간명칭 : Bio World · 구역 : 지구관, 인간과 과학관, 재미광장 · 주 제 : Green Breath · 상징색 : Green World	· 환경수호 대작전 · 이야기로 푸는 과학 · 생명의 비밀 · 유전자가 여는 미래 · 아이맥스상영(지구관)	· 환경관련 프로그램 · 과학자 강연 프로그램 · 해부, 관찰등 체험과학프로그램 · 생명공학관련 프로그램 · 세계최대 아이맥스 영상관에서 “알라스카” 상영
<C구역 : 첨단과학, 정보통신> · 공간명칭 : Digital World · 구역 : 이미지네이션관, 소재관, 테크노피아관, 전기에너지관 · 주 제 : Future Scope · 상징색 : Silver World	· 사이언토피아 만화전 · 사이버생존게임 · 생활과학 · 4차원 환상체험 · 가상현실체험 · 정보통신한마당 · 시뮬레이터 영상 · 입체영상	· 과학관련만화 전시·상영 및 아카데미 운영 · 인터넷으로만 수일간 생존하기 · 생활과학관련 전시 및 체험 · 소재관에서 4D영상 체험 ·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 정보통신체험 및 한마당 · 테크노피아관에서 시뮬레이터 영상 체험 · 전기에너지관에서 에너지관련 입체 영상 상영
<D구역 : 전통과학, 천문우주> · 공간명칭 : Time & Space World · 구역 -전통과학 : 도약관 · 게임 : 엑스포기념관	· 전통과학예술공방 · 전통과학발명품 해설 · 겨레과학 수수께끼 · 게임종합전	· 도자기, 도금기술 등을 전시체험 ·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명품 해설 · 전통생활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 설명 및 전시 · 컴퓨터게임 체험 및 정보교환, 매매
· 천문우주 : 한빛탑 · 음악분수 : 한빛광장 -주제 : Time & Space Journey -상징색 : Bule World	· 신비우주항공체험 · Scientopia Music Fountain Show	· 천문 및 우주관련 프로그램 · 한빛광장의 최첨단 음악분수쇼 (음악+분수+화염+폭죽)
· 공식행사	· 개막식, 폐막식	·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2000의 개·폐막식
· 문화행사 · 과학이벤트	· 과학과 예술의 접목 행사 · 과학을 소재로한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	· 사이버뮤직쇼, 사이버패션쇼 · 스트리트 퍼포먼스, 테크노비주얼 아트쇼, DDR경연대회 등 · 종이비행기날리기, 물로켓발사, 전통연날리기 등 20여종

제 2 절 국외 사례분석

1. 벨기에 뱅슈 카니발⁴⁹⁾

가. 축제 연혁

- 뱅슈 카니발의 기원은 1549년 오스트리아 제국 시절 헝가리의 왕비 마리(Marie de Hongrie)의 행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마리는 ‘뱅슈의 부인’이란 칭호를 들 정도로 뱅슈를 좋아하여 기거하였는데, 1549년 8월 22일 마리의 오빠인 오스트리아(당시 신성 로마제국)의 찰스 5세(Charles Quint) 황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 이때 뱅슈에서는 굉장한 축제가 벌어졌다.
- 이러한 축제가 이후에는 카니발이 열리는 2월에 맞추어 재개봉되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지역 축제 동아리 같은 것이 18, 19세기에 도시내의 중상층에서 조직되어 지금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나. 조직 및 참여 단체

- 뱅슈의 카니발은 지역주민의 조직들에 의해 운영되며, 대표적인 조직은 ‘질(Gilles)’⁵⁰⁾이란 조직이다. 이 조직은 1795년 2월 11일 지방문서에 처음 언급되는데, 현재의 조직이 형성되는 것은 19세기이다. 현 조직은 도시 성벽안의 상공 부르주아들이 주도하며 카페나 바 등에서 모였다. 그 외에 성밖에는 농부(Paysan) 혹은 어부(marin)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있었다. 그러나 농촌조직들은 점차 소멸하고 현재에는 학생들에 의해 이전 복장만이 재현되고 있다.
- 이 외에도 시에서 관장하는 ‘국제 탈 박물관’에서도 카니발을 함께 운영한다. 시는 경찰력 및 도시계획부서를 통해서 축제 때 시의 치안 및 정비를 하고 홍보 활동도 시청 내부의 관광안내과에서 담당한다.

4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4호, 2000. 3.

50) 카니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머리에 타조 깃발을 쓰고 큰 나막신과 오렌지 바구니(ramon)를 든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 개최 시기 및 장소

- 개최 시기 : 전통적인 카니발의 날짜인 사순절 이전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 개최 장소 : 벨기에의 뱅슈.

라. 행사 내용

- 대부분 1월부터 복치기와 행진의 예행연습이 벌어진다. 카니발 한 주일 전의 월요일 밤에는 '트루 드 누르(Trouilles de Nouilles)'라는 행사, 카니발 전 3주간 토요일마다 대학생 그룹이 순서대로 무도회를 개최한다.
- 카니발 바로 전 일요일에는 미래의 '질'인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복장을 하고 거리에서 행사를 한다.
- 카니발 바로 전날인 월요일 룬디 그라(Lundi Gras)는 젊은이의 날로 대학생그룹이 아침에 행사, 오후에는 어린이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한다.
- 마르디 그라 아침에는 새벽 5시부터 모자를 쓰지 않은 '질'들이 행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질'의 공식 행렬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 '질'의 그룹들은 절대로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질'은 뱅슈의 성곽 안에서 행사를 벌여야 '진짜 질'이 되는 것이지 홍보를 위해 외부로 다니는 일은 '가짜 질'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마. 시사점

- 뱅슈 카니발은 벨기에의 뱅슈(Binche)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전통 카니발이다. 여기서 전통이라 함은 첫째로 전통적인 카니발의 날짜인 사순절 이전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행해진다는 점, 두 번째는 주민과 상관없는 스펙타클이나 쇼무대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축제라는 것이다.
- 근래에 들어와 많은 카니발 행사가 관광 측면에 맞춰 전통과 상관없이 축제 날짜를 잡거나 혹은 아예 관광객이 많은 여름에 여는 편법운용을 한다. 이와 달리 뱅슈는 관광 보다는 전통의 고수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니

스나 비에라지오 카니발이 관광객을 위한 화려한 쇼를 기획하여 전문가들을 등장시킨 이벤트를 시에서 기획하는 데 반해, 뱅슈축제는 카니발을 위한 전통 주민 단체가 매년 행사를 관장하고 이에 선정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주민의 축제’라는 차별성을 지닌다.

- 또한 전통 재현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집단의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여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광에 주안점을 둔 행사가 아니라 주민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즉 니스의 카니발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쇼비즈니스적 요소가 없는 것이다.
- 이 뱅슈의 카니발은 독자적인 민속성과 역사성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하다. 카니발 하나로 인구 3만명의 조그만 벨기에의 도시가 세계에 알려졌다는 자부심은 전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있다.

2. 프랑스 브라드리 장터축제⁵¹⁾

가. 축제 연혁

- 릴은 95만명이 사는, 프랑스에서 4번째 큰 도시다. 그러나 브라드리 장터축제 때에는 매년 2백만명 이상이 동시에 도시 중심부에 몰려 든다. 더욱이 '90년대 이후 브라드리 장터는 매년 100km 이상의 도로 공간이 1만개가 넘는 가판대로 꽉 찬다.
- 릴의 장터축제는 14세기에는 8월 15일 마리아 대축일 바로 다음날 열렸으나, 15세기에 현재와 비슷한 시기인 8월 29일, 즉 세례자 요한 순교기념일을 국제 건본시의 날짜로 자리잡았다.
- 플랑드르 말로 구운 고기를 뜻하는 단어 'Bradery'에서 'brader'라는 단어가 파생되고 그것이 브라드리의 어원이 되었다.
- 릴의 장은 19세기까지 성행했다. 특히 이 시기 브라드리의 공식 먹거리인 홍합요리와 북쪽 샴드 막스(Champs de Mars)의 장터 기간에 열리는 놀이동산 등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5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3호, 2000. 2.

- 이 장터 자체는 1차·2차 세계대전 이후 중단되었고 오늘날 장터의 일부인 현 물건을 파는 브라드리의 축제만 남아 릴의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참여 단체

- 시청 내 브라드리 특별사무국에서 브라드리 장터 축제를 관장하며, 시 당국은 특별히 브라드리를 위한 시 조례 (1989년 8월 제정)를 제정하여 장터의 기본적인 정리를 위한 규정을 하고 있다.
- 행사 중에는 경찰과 소방서가 기간 내내 특급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 시청에 마련된 대책본부는 200명의 시청 직원, 긴급구조반 그리고 현장에 나아가 있는 1천 2백명의 경찰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 개최 시기 및 장소

- 1998년 이전까지는 8월 마지막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열렸고 행사 자체가 시 행정 및 시민들 생업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므로 1998년부터는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22시까지 열린다.

라. 행사 내용

- 브라드리 축제는 시내를 관통하는 단축 마라톤경기⁵²⁾와 함께 시작한다.
- 장터가 열리게 되면 도시는 장터 거리와 공연 장소 및 시민단체 행사가 선보이는 광장 등으로 나뉜다.
- 브라드리 장터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집 앞에서 특별한 제약없이 이것 저것 쓰던

52) 단축 마라톤 경기는 축제에 운동경기를 포함한다는 의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 원래는 시민들의 장터였던 행사가 파리 등 대도시와 인접 국가의 전문상인들이 몰려오면서 이들이 개장 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길에다 판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것을 막기 위해 브라드리가 열리는 도로에서 한바탕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1970년대 초 한 경찰관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 당국이 축제에 앞서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매매 행위를 막기 보다는 다른 행사를 통해 저절로 규제하는 재미있는 아이디어이다.

물건을 파는 것이 원래 기본 형식이었다. 최근에는 매매되는 품목별로 도시의 구역이 나뉘어진다. 판매 품목별로 도시는 크게 8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 시내 광장에서 벌어지는 행사. 적십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혹은 그린피스 같은 단체들이 홍보하며 서명행사, 불우이웃 돕기 성금대회가 열린다. 라디오 방송국 및 음반사 주최의 각종 공연들도 벌어진다.

마. 시사점

- 12세기의 성행했던 국제 건본시의 전통이 현재에도 국제적으로 살아 있음을 보는 듯한 축제이다.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브라드리는 상업도시 현재의 릿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행사이면서 전통을 지키고 있다. 시민들은 가장 큰 축제인 브라드리 장터축제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점이다.
- 시 당국이 시민 복지를 위해 축제를 개최한다.

3.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제⁵³⁾

가. 축제 연혁

- 잘츠부르크 음악제는 1919년에 처음으로 제안되어, 1920년 8월 22일에 잘츠부르크 성당 앞 광장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 때 이후로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중심테마는 모차르트이다.
- 1999년도 축제의 경우 37일 동안 관람객 수는 23만 8천 5백명에 달하였고, 이 중 75%가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들이었다.

나. 조직 및 참여 단체

- 1992년부터는 축제조직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5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2호, 2000. 1.

○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후원자

- 잘츠부르크 음악제에는 세계적인 유명회사들인 네슬레, 아우디, 지멘스 등이 협찬하는 외에도, 잘츠부르크 축제를 후원하기 위한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친구들’이라는 협회가 1961년에 결성되었다. 이 협회에는 매년 1천ATS(약 10만원)씩 납부하는 정회원이 현재 1천 8백명 있고, 매년 1만ATS(약 1백만원)을 후원하는 후원회원이 2천명 있다.
- 세계 각국의 모차르트 애호가들이 잘츠부르크 음악제를 지원하고 있다.

다. 개최 시기 및 장소

○ 개최 시기

- 매년 7월 하순에서 8월 하순까지 약 6주간 열리는데, 개최 일자와 기간은 해마다 약간씩 변한다. 1999년도 잘츠부르크 음악제는 7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37일간 개최되었고, 2000년도 축제는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열렸다.

○ 축제 공연장소

- 아비뇽축제가 주로 야외공연 중심인 데 비하여 잘츠부르크음악제는 주로 실내에서 공연된다. 대표적인 공연장을 보면 대축제극장, 소축제극장, 모차르테움, 대주교의 저택광장, 대성당과 야외무대로는 돔광장 등이 주로 이용된다.

라. 행사 내용

○ 잘츠부르크 음악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한다.

- 고전적 유산을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현대적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한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형태로 보여 준다.
- 모든 이벤트들은 폭넓은 일반 공중에게 접할 수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 2000년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2백개의 공연이 준비되었는데, 축제의 주제는 ‘트로이와 사랑’(Troy and Love)이었다.

- 공연된 주요 작품을 보면 먼저 오페라로는 베를리오즈의 <트로이 사람들>(Les Troyens), 자크 오펜바하의 <아름다운 엘렌느>(La belle Helene),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Don Giovanni)와 <코지판투테>(Cosi Fan Tutte) 등 8개의 오페라 작품이 공연되었다.
- 연극으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Hamlet), 호프만쉬탈의 <예데르만> (Jedermann) 등 여섯 작품이다.
- 그리고 70여개의 콘서트가 열렸는데, 그 중의 하이라이트로는 주빈메타(Zubin Metha), 리카르도 무티(Riccardo Muti) 등이 지휘하는 비엔나 필하모닉의 연주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현악단과 솔리스트 등의 연주되었다.

4. 아비뇽 축제⁵⁴⁾

가. 축제 연혁

- 아비뇽축제는 프랑스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유명한 축제로서 1947년 9월에 연극 배우이자 무대감독인 장 빌라르(Jean Vilar · 1912~1971)가 ‘아비뇽에서 예술의 공간을’이라는 기치 아래 교황청 안마당에서 세 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시작되었다.
- 아비뇽축제를 창설한 빌라르의 의도는 당시 파리에서 공연되던 연극들과는 다른 형식의 연극을 통해서 젊은 관객들, 정열적이고 신선한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었다.
- 아비뇽축제는 시작 이래 지금까지 52년 동안 단지 4명의 책임자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다.

나. 조직 및 참여 단체

- 1980년대 이래 아비뇽페스티벌은 유럽의 다른 모든 페스티벌 단체와 마찬가지로

54)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1호, 1999. 12.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축제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 지원단체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재정 수입의 약 55%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다.

- 축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행정위원회(conseil d' administration)는 재정후원을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 관련 문화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일년에 두 세번 회의를 열어 축제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나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예산안 및 결산을 의결한다. 행정위원회는 아비뇽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 축제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예술국장(le directeur artistique)과 조직국장(le directeur charg  de l' organisation)인데 이들은 모두 5년 임기로 행정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이 중 예술국장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축제 프로그램의 선택에 대하여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통은 모든 기관들에 의해 지금까지 존중되어 왔다.
- 축제 조직인원은 평소에는 20명 내외의 직원이 상근하며, 파리와 아비뇽 본부로 나뉘어서 근무한다. 축제 개최기간에는 수백명의 아비뇽 시민들이 고용된다.

다. 개최 시기 및 장소

- 개최 시기 : 1999년도 아비뇽축제는 7월 9일(금)~31일(토)까지 23일간 개최.
- 장 소 : 축제의 주공연장은 교황청(palais des papes)이다. 그밖에도 성당, 수도원, 고등학교 운동장, 시립극장, 광장, 채석장의 빈 터 등이 공연장으로 사용된다.

라. 행사 내용

- 아비뇽 축제는 '공공성 연극축제'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아비뇽축제는 연극에서 출발하였고, 지금도 연극이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는 하나 1964년부터는 그 영역을 뮤지컬, 무용, 현대음악 등 다른 예술분야에 까지 넓혀왔다. 몇 년 전부터는 시(詩), 미술 및 연극사 전시회, 영화와 비디오아트에 이르기까지 문호를 개방하였다.

- 그러나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는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비뇽에서 가까운 도시들, 예컨대 오랑주(Orange)나 엑상 프로방스 (Aix-en-Provence) 등에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축제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 축제의 한 부분인 토론과 학습이 이루어진다. 아비뇽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한 분야는 축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비평, 토론과 교육 프로그램이다. 축제본부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 날 공연될 작품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으며, 전문가들이 생루이 공간(l' espace Saint-Louis)에 모여 작품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 아비뇽축제에서 공연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공식 선정부문(in)⁵⁵⁾과 비선정부문(of f)⁵⁶⁾으로 나눌 수 있다.

마. 시사점

- 아비뇽축제에서는 행정기관은 지원만 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 축제 주최측에서는 축제가 시작되기 18개월 전부터 작품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치밀함을 보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창작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함으로써 유럽 연극계를 선도하고 있다.
- 이웃도시를 위해서 클래식음악이나 오페라는 무대에 올리지 않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관중들의 높은 관람 수준은 관객의 수준이 공연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 축제 조직인원은 평소에는 소수이나,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아비뇽 시민 수 백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55) 축제 주최측에서 작품을 선정하는 공식 선정부문(이것을 'in'이라 부른다)은 그 대부분이 창작 작품이다. 수 백개의 참가 희망 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예술국에서 선정을 하며, 축제가 시작되기 18개월 전부터 작품선정이 시작된다.

56) 'off'라 불리우는 비선정부문의 경우는 축제 주최측에서 작품을 선정하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비선정부문에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극단이라도 그들의 작품을 공연할 장소가 있다면 축제기간 중 아비뇽에 와서 공연할 수 있다. 이들이 공공장소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절 사례연구의 시사점

- 성공적인 사례로 분석된 국내외 축제를 통해 몇가지 주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축제들이 철저히 그 지방 주민들에 의해 기획·준비되어지고, 축제의 직접적인 전승 주체나 행위자도 바로 그 지역주민이란 사실이다. 이러한 원칙은 주최 과정, 예산의 조달과 시행, 홍보 등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축제의 개최는 물론, 축제를 통한 반대급부나 성과가 그 주민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일체감 조성이나, 지역간의 유대감 형성, 나아가 지방 전통문화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
- 지방자치가 잘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중앙정부의 통제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국내이건 국외이건 축제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관장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 기관과의 자매결연과 횡적인 교류, 국제 관광박람회에 직접 참여하고 홍보하는 정책, 관광상품의 독자적 개발, 지방기업에 의한 지방 특산물의 직수출 등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축제에는 행정기관은 지원만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전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방 중세축제에는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는 비영리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문화재를 살아있는 의미로 만들려는 프랑스 문화정책이 잘 어우러져 있다.
- 주민대표 기능을 가진 주최 기관이 상설화되어, 충분한 준비와 프로그램의 개발에 치중하고, 독자적인 예산의 운용을 관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보조는 상징적인 수준이고, 민간 주최 기관에 의해 광고 스폰서의 섭외나 후원단체의 기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내세워 정체성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돋보이게 하고 이러한 점이 지역축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이다.
- 자원봉사자 활용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 축제가 폐막됨과 동시에 다음 해의 축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점도 본 받을만 하다.
- 성공적 축제의 공통점은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평가 조사나 방문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후년의 개선방안 구축, 정부보조금 신청의 자료로 활용, 홍보전략으로 참고하고 기업협찬 유치에 이용하는 등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 4 장 제주지역 축제의 현황분석

제 1 절 제주지역 축제 현황

1. 총괄 현황

- 제주도의 각 시·군에서는 매우 다양한 축제적 성격의 문화 행사를 연중 펼치고 있다. 제주도 지역축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행사 가운데 무엇을 지역축제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범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축제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지역축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다.
- 그 원인중의 하나는 축제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제시대에 단절되었던 축제의 맥이 해방 이후 복원되면서 전통축제를 그대로 이어온 축제, 전통축제에 연원을 두면서도 변형된 형식을 가진 축제, 새롭게 만들어진 축제, 이벤트성의 축제 등이 서로 뒤섞여 있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축제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
-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축제를 "자치단체 단위에서 개최되는 모든 종류의 축제로 행사의 명칭에 ○○축제, ○○문화제, ○○예술제, ○○제 등 축제를 의미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행사 개최 시기가 정례적 주기성을 띠며, 행사의 참여자가 지역을 범주로 한 집단성을 보이는 한편, 행사의 내용이 복합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문화행사"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전국적인 축제나 단순한 문화행사, 일회성의 이벤트 행사는 제외하였다. 이는 최근에 개최되는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전통적인 민속축제에서 문화이벤트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타당한 범위 설정으로 볼 수 있다.
- 위의 기준에 입각하여 인터넷 조사, 현지 관계자와의 전화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은 제주도내 지역축제는 총 30개이다.

- 시간적으로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잡았으며, 지역적으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인 도와 시·군 단위에서 치러지는 축제로 범위를 국한하였다. <표 4-1> 참조.

<표 4-1> 2000년도 제주도 주요 축제

구분	행사명	개최시기	장소	주관	행사내용
제주도	한라산 눈꽃축제	1.22~1.30	한라산 어리목 및 신제주로타리	제주도축제 문화연구원	· 눈트래킹, 눈썰매, 라이브 공연 등
	제5회국제시민마라톤축제	6.4	제주종합경기장	제주도 관광협회	· 마라톤(10km, 21km, 42km), 에어로빅시범, 풍물패공연 등
	제주 신혼축제	9.23~9.26	제주민속촌, 제주시 해변공연장	제주도축제 문화연구원	· 제주전통혼례, 조선왕실혼례재현, 신혼축하쇼
	제39회 한라문화제	9.28~10.3	도일원	예총도지회	· 한라산신제, 길놀이, 민속예술축제, 학생민속예술축제 등
	제7회 역새꽃 축제	10.14~10.16	제주경마공원	제주도관광협회	· 개막 및 축하쇼, 역새꽃길트래킹, 가마경차대시범 퍼레이드, 역새꽃 가족 그림 그리기 대회, 신혼부부의 사랑 연출등
	제주감귤 축제	10월	문예회관	제주감귤축제 위원회	· 감귤아가씨선발대회, 감귤품평회, 감귤가공 조리품 전시 등
제주시	왕벚꽃잔치	4.5~4.10	제주종합경기장	예총도지회	· 벚꽃 걷기대회, 국악의 대향연, 허니문 어게인 페스티벌, 라이브콘서트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7.20~8.30	제주시 해변공연장	제주시	· 음악회, 연극, 무용공연 등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7.22~7.30	이호, 삼양해수욕장 어승생수원지 앞	제주시	· 바다선상음악회, 해양레포츠대회, 산악항공레포츠대회 등
	탐라국 입춘굿놀이	2.1~2.4	제주시 일원	제주시	· 입춘날 전래됐던 민·관합동 풍년기원축제
	용연선상음악회	5.18	용연포구	제주시	· 용연포구 선상에서 성악가 음악회
	제주국제관악제	8.12~8.20	제주해변공원장, 도일원	제주시	· 순회음악회, 관악국제콩쿨, 유명 관악인 공개 강좌, 광장영화제 등
	제주가면축제	10.19~10.22	탐동광장 및 해변공연장, 오현로	제주시	· 전국민속가면 퍼레이드 및 로드쇼, 전국 돌하르방 캐릭터 로드쇼 경연대회 등

(계속)

구분	행사명	개최시기	장소	주관	행사내용
서귀포시	제1회 서귀포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1.29	중문해수욕장	서귀포시	· 해수욕장 수영대회
	제2회 서귀포 칠십리 국제걷기대회	3.25~3.26	서귀포시일원	한국체육진흥회	· 10km, 20km, 30km 구간별 걷기대회
	제6회 서귀포 칠선녀축제	5.4~5.7	천제연 폭포 일원	중문청년회	· 칠선녀전설재현, 칠선녀제, 축하공연 등
	중문해수욕장 축제	7.1~8.31	중문해수욕장	서귀포시	· 제2회미니칠인경기대회, 썸머웨스티벌,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제주아이언맨 국제트라이 애슬론 대회	7.2	중문해수욕장 및 서귀포시 일원	서귀포시	· 수영, 마라톤, 싸이클
	보목 수산물품 자리돔 큰잔치	7.15~7.16	보목 포구	보목 어촌계	· 축제알림 퍼레이드 · 자리돔요리 판매행사 · 수중생태 탐방 등
	법환 한치축제	8.25~26	법환 포구	법환리 마을회, 어촌계	· 한치맛자랑 경연대회, 수영대회, 풍어제 등
	제6회 서귀포 칠십리 축제	9.28~10.3	천지연폭포, 서귀포시일원	서귀포 문화원	· 제주목사 서귀진성순력행차, 문화예술단체 참여 행사 등
	서불과지 전설재현	9.29~10.3	천지연폭포, 서귀포시일원	서귀포시, 서불과지문화 축제교류협회	· 서불과지 전설재현, 한·중기무단 공연 등
	제2회 서귀포 바다축제	10.5~10.9	서귀포항 일원	서귀포시관광협의회	· 해상불꽃놀이, 선상 한치 낚시대회, 바다요리경연 및 시식회, 모터보트 경주대회 및 퍼레이드

(계속)

구 분	행사명	개최시기	장소	주관	행사내용
북제주군	새천년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2.19~2.20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북제주군	· 부싯돌불씨만들기, 풍 물놀이, 오름오르기, 불꽃놀이, 오름능선로 고화이어, 마을봉화대 점화 등
남제주군	새천년 성산일출제	'99.12.31~ 2000.1.1	성산일출봉 및 도일원	성산일출제 조직위원회	· 화합의 잔치, 진혼굿, 축하공연, 조명음악 공 연, 오름점화 및 소리 울림, 경축선단 이벤트, 금줄커팅, 분화구콘서 트 등
	제6회 고사리 꺾기대회	4.23	표선면가시리 미래항공관 주변	남제주군	· 고사리꺾기대회, 고사 리 백일장, 레크레이 션 등
	제18회 유채꽃잔치	4.22~ 4.23	표선면가시리 미래항공관 주변	남제주군, KBS	· 전국노래자랑, 유채꽃 길 걷기대회, 축하공 연 등
	제5회 백사표선 대축제	8월	표선해수욕장	표선리 청년회	· 해변레크레이션, 백사 노래자랑, 조개따기 등
	제9회 덕수리 전통 민속 축제	10.2	제주조각공원	덕수리 민속보존회	· 방앗돌굴리는 노래재현, 집줄놓은 노래재현, 불 무공연 등
	제7회 정의골 민속한마당 축제	10월	성읍민속마을	성읍1리	· 제주민속놀이마당, 전 통민속시연, 초가집줄 놓기 대회 등

2. 지방자치단체별 축제 현황

- 조사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총 30개이다.
- 지역축제 30개 중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축제의 분포는 서귀포시 33.3%인 1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제주시로 23.3%인 7개의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제주도와 남제주군은 각각 20.0%인 6개, 북제주군은 3.3%인 1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표 4-2>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축제 분석

축제 주최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제 주 도	6	20.0%	20.0%
제 주 시	7	23.3%	43.3%
서귀포시	10	33.3%	76.6%
북제주군	1	3.3%	79.9%
남제주군	6	20.0%	100.00%
총 계	30	100.00%	

3. 최초 개최 연도별 축제 현황

- 지역 축제의 최초 개최 연도는 지역 축제의 시기별 변화 추세와 해당 축제의 정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 제주도 지역 축제의 개최 시기 구분은 1990년대 이전, 1990~1994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인 1995~1999년, 2000년 등 4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 1990년대 이전에 개최된 축제는 제주감귤축제, 한라문화제, 유채꽃잔치 등 3개.
 - 1990~1994년에 개최된 축제는 역새꽃큰잔치 등 6개.

- 1995~1999년에 개최된 축제는 한라산눈꽃축제 등 14개.
- 2000년에 개최된 축제는 7개. 지방자치 실시 이후 급격히 축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3> 제주도 지역축제의 개최 연대별 분포

시기 구분	개 수	비율	축제명
1990년대 이전	3	10.0	· 제주감귤축제, 한라문화제, 유채꽃잔치
1990~1994년	6	20.0	· 억새꽃큰잔치, 왕벚꽃잔치,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새천년성산일출제, 덕수리전통민속축제,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1995~1999년	14	46.7	· 한라산눈꽃축제,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탐라국입춘굿놀이, 용연선상음악회, 제주국제관악제, 서귀포칠십리국제걷기축제, 중문해수욕장축제, 서귀포바다축제, 서귀포칠선녀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서불과지전설재현, 새천년정월대보름들불축제, 고사리꺾기대회, 백사표선대축제
2000년	7	23.3	· 제주신혼축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제주가면축제, 서귀포겨울바다팽귤수영대회, 제주아이언맨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보목수산일품자리돔큰잔치계획, 법환한치축제,
총계	30	100.0	

4. 개최 월별 축제 현황

- 총 30개의 축제중 월별 분포는 9월에 가장 많이 열려 6개로 20.0%를 차지하고 있고, 7월이 5개(16.7%) 등인데 비해 11월에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표 4-4> 지역 축제 개최 월별 분석

시기 구분	빈 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1월	2	6.7	6.7
2월	2	6.7	13.4
3월	1	3.3	16.7
4월	3	10.0	26.7
5월	2	6.7	33.4
6월	1	3.3	36.7
7월	5	16.7	53.4
8월	3	10.0	63.4
9월	5	16.7	80.1
10월	5	16.7	96.8
12월	1	3.3	100.00
총 계	30	100.1	

주) 최초 개최 축제의 월별 기준으로 작성.

5. 예산 규모별 축제 현황

- 지역 축제의 예산 규모는 축제의 성격 및 전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예산을 기준으로 제주도 지역 축제의 예산 규모를 고찰했다.

<표 4-5> 지역 축제 예산규모별 분석

예산 규모	개수	비율	축제명
5000만원 미만	11	37.9	· 한여름밤의해변축제, 탐라국입춘굿놀이, 용연선상음악회, 서귀포겨울바다팽귤수영대회, 중문해수욕장축제, 보목수산일품자리돔큰잔치, 서불과지전설재현, 법환한치축제, 백사표선대축제, 덕수리전통민속축제,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	13.8	· 서귀포칠십리국제걷기대회, 서귀포칠십년녀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새천년성산일출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1	37.9	· 한라산눈꽃축제,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제주신혼축제, 억새꽃큰잔치, 제주감귤축제, 한라문화제, 왕벚꽃잔치, 제주가면축제, 서귀포바다축제, 새천년정월대보름들불축제, 유채꽃잔치
3억원 이상	3	10.3	·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제주국제관악제, 제주아이언맨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총 계	29	100.0	

주) 2000년 고사리꺾기대회는 유채꽃잔치와 병행추진하여 제외하였음.

6. 개최 목적별 축제 현황

-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에 따라 축제의 전반적인 틀이 결정되므로 개최 목적을 분석하는 것은 축제 분석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개최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에는 다양한 목적들이 중층적으로 조합되어 표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를 문화축제와 관광축제로 대분류하고, 문화체육부 보고서인 ‘한국의 지역축제’에서 구분하고 있는 틀을 하위 표목으로 하여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 제주지역에서는 지역축제를 관광축제와 문화축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 보면 관광축제가 20개, 문화축제가 10개로 나타났다.

<표 4-6> 제주도 지역 축제 분류

분류	빈도	비율	도·시·군	축 제 명
관광 축제	20	66.7%	제주도	· 한라산눈꽃축제,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제주신희축제, 억새꽃축제, 제주감귤축제
			제주시	· 왕벚꽃잔치,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서귀포시	· 서귀포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서귀포칠십리 국제걷기대회, 중문해수욕장 축제, 제주아이언맨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제2회 바다축제, 보목수산물품자리돔큰잔치, 법환한치축제
			북제주군	· 새천년정월대보름들불축제
			남제주군	· 새천년성산일출제, 고사리깍기대회, 유채꽃큰잔치, 백사표선대축제
문화 축제	10	33.3%	제주도	· 한라문화제
			제주시	· 탐라국입춘굿놀이, 용연선상음악회, 제주국제관악제, 제주민속가면축제
			서귀포시	· 서귀포칠선녀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서불과지전설재현
			남제주군	· 덕수리전통민속축제,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총계	30	100.0%		

자료 : 제주도, “새천년 관광제도약을 위한 실천계획,” 2000.을 참고하여 작성성.

- 문화체육부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제주지역 축제를 개최 목적별로 분류하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화합축제 1개, 관광축제 24개, 산업축제 2개, 특수목적축제 3개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대부분이 관광축제임을 알 수 있다.

<표 4-7> 제주지역 축제의 개최 목적별 분류(문화체육부 기준)

축제종류	빈 도	백분율	축제명
주민화합축제	1	3.3%	· 한라문화제
관광축제	24	80.0%	· 한라산눈꽃축제,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제주신혼축제, 억새꽃큰잔치, 왕벚꽃잔치, 한여름밤의해변축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서귀포겨울바다팽귤수영대회, 서귀포칠십리국제걷기대회, 중문해수욕장축제, 제주아이언맨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서귀포바다축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성산일출제, 고사리격기대회, 유채꽃잔치, 백사표선대축제, 용연선상음악회, 제주국제관악제, 제주민속가면축제, 칠선녀축제, 칠십리축제, 서불과지전설재현
산업축제	2	6.7%	· 제주감귤축제, 보목수산물품자리돔큰잔치, 법환한치축제
특수목적축제	3	10%	· 덕수리전통민속재현행사,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탐라국입춘굿 놀이
총 계	30	100.00%	

7. 축제 프로그램 구성 형식별 축제 현황

- 지역 축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데에도 개최 목적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에서 분류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분류하였다.
- 이 분류 기준에 의하여 제주지역 축제를 개최 프로그램 구성 형식별로 분류하면, 전통문화축제 4개, 예술축제 3개, 종합축제 13개, 기타 축제 10개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대부분이 종합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표 4-8> 제주지역 축제 프로그램 구성형식별 분류

축제 종류	빈 도	백분율	축제명
전통문화축제	4	13.3%	· 탐라국입춘굿놀이, 덕수리전통민속재현행사,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서불과지전설재현
예술축제	3	10.0%	· 용연선상음악회, 제주국제관악제, 한여름밤의해변축제
종합축제	13	43.3%	· 한라산눈꽃축제, 제주신혼축제, 억새꽃큰잔치, 왕벚꽃잔치,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중문해수욕장축제, 서귀포바다축제
기타 축제	10	33.3%	· 제주국제영화제, 제주국제민속예술축제, 제주국제꽃문화제, 제주국제민속예술축제, 제주국제민속예술축제, 제주국제민속예술축제, 제주국제민속예술축제, 제주국제민속예술축제, 제주국제민속예술축제, 제주국제민속예술축제, 제주국제민속예술축제
총 계	30	100%	· 논대회, 보목수산물품자리돔큰잔치, 법환한치축제, 성산일출제, 고사리격기대회, 백사표선대축제, 제주감귤축제

제 2 절 제주지역 축제의 현황 분석

- 제주도 지역 축제의 특성을 좀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항목들간의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차 분석은 주로 지역 축제의 성격과 관련된 축제의 개최 목적과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 형식을 중심으로 최초 개최년도, 행정 단위, 개최시기를 서로 교차시켜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 개최 목적과 프로그램 구성 형식

- 앞서 언급한 주민통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분류한 축제의 개최 목적과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 축제로 분류한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 형식 사이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항목을 교차분석하였다.
- 주민통합축제는 1건인데 종합축제이다.
- 관광축제는 23건중 종합축제가 12건이고, 기타 축제 7건, 예술축제 3건, 전통문화

축제 1건이다.

- 산업축제는 3건 모두 기타 축제이다.
- 특수목적축제는 3건 모두 전통문화축제이다.

<표 4-9> 축제의 개최 목적과 프로그램 구성형식별 교차 분석

구 분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합 계
전통문화축제	-	1	-	3	4
예술축제	-	3	-	-	3
종합축제	1	12	-	-	13
기타축제	-	7	3	-	10
합 계	1	23	3	3	30

2. 최초 개최 연도별 분석

- 제주도 지역축제의 연도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축제의 개최 연도와 축제의 개최목적 및 프로그램 구성형식을 서로 교차분석하였다.

가. 개최 목적

- 축제의 개최 목적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로 최초 개최 연도와 개최목적에 따른 축제종류를 교차분석하였다.
- 주민화합축제는 1990년대 이전에 1건이 개최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의 신규 개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화합축제의 건수는 극히 미미하다.
- 관광축제는 1990년대 이전에 유채꽃잔치만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 22건이 증가하였다. 최근에 들어서 제주도 지역 축제의 대부분이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산업축제는 1990년대 이전에 제주감귤축제만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2건이 신규 개최되었다.

- 특수목적축제는 1990~1994년에 2건, 1995~1999년에 1건이 개최되었다.

<표 4-10> 최초 개최 연도별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 교차 분석

구 분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합 계
1990년대 이전	1	1	1	-	3
1990~1994년	-	4	-	2	6
1995~1999년	-	13	-	1	14
2000년	-	5	2	-	7
합 계	1	23	3	3	30

나. 프로그램 구성 형식

- 축제의 개최 연도와 행사 내용에 따른 축제형식을 교차분석한 결과 축제의 개최 목적과 마찬가지로 각 연도별로 프로그램의 구성형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전통문화축제는 1990년대 이후에 4건이 개최되었다.
- 예술축제는 1990년대 이후에 3건이 개최되었다.
- 종합축제는 1990년대 이전에 2건, 1990~1994년 2건, 1995~1999년 6건, 2000년도 3건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 기타축제는 1990년대 이전에 1건, 1990~1994년에 1건, 1995~1999년이 4건, 2000년도에 4건으로 기타축제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종합축제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 최초 개최 연도별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구성형식 교차 분석

구 분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	합 계
1990년대 이전	-	-	2	1	3
1990~1994년	2	1	2	1	6
1995~1999년	2	2	6	4	14
2000년	-	-	3	4	7
합 계	4	3	13	10	30

3. 지방자치단체별 축제 분석

가. 개최 목적

- 개최 목적에 따라 구별한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를 행정단위별로 교차분석하였다.
- 제주도에서는 관광축제 4건, 주민화합축제 1건, 산업축제 1건을 개최했다.
- 제주시에서는 관광축제 6건, 특수목적축제 1건을 개최했다.
- 서귀포시에서는 관광축제 8건, 산업축제 2건을 개최했다.
- 북제주군에서는 관광축제 1건이 개최되고 있다.
- 남제주군에서는 관광축제 4건, 특수목적축제 2건을 개최했다.

<표 4-12>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 교차 분석

구 분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합 계
제주도	1	4	1	-	6
제주시	-	6	-	1	7
서귀포시	-	8	2	-	10
북제주군	-	1	-	-	1
남제주군	-	4	-	2	6
합 계	1	23	3	4	30

나. 프로그램 구성 형식

-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형식에 따라 분류한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를 행정단위별로 교차분석하였다.
- 제주도에서는 종합축제 4건, 기타축제 2건 등이다.
- 제주시에서는 전통문화축제 1건, 예술축제 3건, 종합축제 3건 등이다.
- 서귀포시에서는 전통문화축제 1건, 종합축제 4건, 기타축제 5건 등이다.
- 북제주군에서는 종합축제 1건이 개최되고 있다.
- 남제주군에서는 전통문화축제 2건, 종합축제 1건, 기타축제 3건 등이다.

<표 4-13> 행정단위별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구성형식 교차 분석

구 분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	합 계
제주도	-	-	4	2	6
제주시	1	3	3	-	7
서귀포시	1	-	4	5	10
북제주군	-	-	1	-	1
남제주군	2	-	1	3	6
합 계	4	3	13	10	30

4. 개최 시기 분포

가. 목적별 개최 시기

- 주민화합축제는 9~10월에 1건이 개최되었다.
- 관광축제는 7~8월과 9월~10월에 각각 6건이 개최되어, 여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산업축제는 특산물의 수확기에 맞춰 7~8월에 2건, 9~10월에 1건이 개최되고 있다.
- 특수목적축제는 1~2월에 1건, 9월~10월에 2건이 개최되고 있다.

<표 4-14> 개최목적별 지역축제의 개최시기 교차 분석

구 분	1~2월	3~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총계
주민화합축제	-	-	-	-	1	-	1
관광축제	3	4	3	6	6	1	23
산업축제	-	-	-	2	1	-	3
특수목적축제	1	-	-	-	2	-	3
합 계	4	4	3	8	10	1	30

나. 프로그램 구성형식별 개최 시기

- 전통문화축제는 1~2월에 1건, 9~10월에 3건이 개최되고 있다.
- 예술축제는 5~6월에 1건, 7~8월에 2건이 개최되고 있다.
- 종합축제는 1~2월에 2건, 3~4월에 2건, 5~6월에 1건, 7~8월에 2건, 9월~10월에 6건 등이 개최되고 있다.
- 기타축제는 1~2월에 1건, 3~4월에 2건, 5~6월에 1건, 7~8월에 4건, 9월~10월에 1건, 11월~12월에 1건 등이 개최되고 있다.

<표 4-15> 프로그램 구성형식별 지역축제의 개최시기 교차 분석

구 분	1~2월	3~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총계
전통문화축제	1	-	-	-	3	-	4
예술축제	-	-	1	2	-	-	3
종합축제	2	2	1	2	6	-	13
기타축제	1	2	1	4	1	1	10
합 계	4	4	3	8	10	1	30

제 5 장 축제에 대한 신문의 보도내용 분석

제 1 절 분석의 개요

- 내용 분석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특히 적합한 질적 연구기법 중의 하나이다. 즉 내용 분석은 인간의 행태를 직접 관찰하거나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하지 않고 조사자가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관찰 측정하는 방법이다.
- 내용 분석의 절차는 다음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분석단위의 조작적 정의, 둘째, 표본설계와 조사시행 등 실증적 자료 수집, 셋째, 분석 및 고찰이다.
- 내용 분석의 범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제주도내에서 발행된 3개 일간지에 보도된 제주지역 축제 관련 기사이다. 분석대상 일간지는 제민일보, 제주일보, 그리고 한라일보이다(일간지 순서는 가나다 순임).

제 2 절 분석 결과

1. 축제에 대한 보도 현황

-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신문기사의 성격은 크게 긍정적 기사, 부정적 기사, 제언 기사로 구분하였다. 홍보성 기사는 제외하였다.
- 다음의 <표 5-1>은 개별축제에 대한 보도 내용과 전체 제주지역 축제에 보도 내용을 합쳐서 산정한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 기사가 총 56건(31.3%), 부정적 기사가 89건(49.7%), 제언 기사가 34건(19.0%)로 나타나, 현재 언론상에 비친 제주지역 축제는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5-1> 축제에 대한 보도 현황

내용 \ 신문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계
긍정적 기사	16건	22건	18건	56건
	8.9%	12.3%	10.1%	31.3%
부정적 기사	32건	36건	21건	89건
	17.9%	20.1%	11.7%	49.7
제언 기사	12건	12건	10건	34건
	6.7%	6.7%	5.6%	19.0%
계	60건	70건	49건	179건
	33.5%	39.1%	27.4%	100%

2. 개별 축제별 보도 내용

□ 성산일출제

○ 긍정적 기사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관광객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이 높이 살만하다.

○ 부정적 기사

- 참가자 중심이 되지 못한 이벤트 시나리오 : 프로그램 내용이 평범한 시민들이 참가해 새 천년을 맞이한다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천년의 의미를 참가자들에게 억지로 각인시키려는 듯한 내용이었다.
- 시민의식의 결여 :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방치되었다.
-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 : 시내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셔틀버스를 이용했던 참가자들이 아침에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 바가지 상혼 : 음료수 등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2~3배에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 교통혼잡 : 행사장 입구에는 비교적 교통흐름이 원활하였으나 통제 외각지역에는 교통혼잡이 발생하였다.
-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축제 연출·운영 등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한라산 눈꽃축제

○ 긍정적 기사

- 축제에 참가한 관람객은 1999년과 비교하여 3만명 가량 늘어난 10만명(도민·관광객 포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동원이 성공적이었다.

○ 부정적 기사

- 축제기간 동안 항공기 좌석난이 극심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항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일이 전부였다. 항공사에서는 축제기간 내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특정일 특정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 있다.
- 빗고을 행사를 신제주 로터리 일대에 행사장으로 선정하였으나 음식점들만 준비하였으며, 프로그램도 특색이 없었다. 또한 이로 인해 공원 잔디와 나무훼손이 심하였다.
- 행사가 신제주 로터리 등지로 분산되면서 어리목일대에서는 눈이와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부족했다.
- 가격표 등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점이 있었다.
- 제설작업과 교통문제 : 순환버스를 제외하고는 행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도 순환버스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라산 눈꽃축제는 눈이 축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연중 강설일수가 얼마되지 않는 제주에서 눈꽃축제는 무리라는게 입증되었다. 또한 날씨에 따라 축제의 성패가 달린 만큼 '눈'을 이름으로 한 축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참가자들의 동심에만 의존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흡했다.
- 축제장을 안내하는 유인물이 부족했다.
- 축제 관계자들이 참가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못해 관람객들을 위한 차량 지원이 혼선을 빚었다.
- 관람객 수 산정시 입장권 발매가 없어서 관람객 수를 눈대중으로 파악하였다.

○ 제언 기사

- 축제의 명칭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 같은 기간 강원도에서 4개의 눈꽃축제가 개최된다는 것을 고려, 눈썰매·트레킹 외에 한라산이나 오름 등반대회, 사냥놀이 등 제주의 특성을 살린 체험형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 행사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탐라국입춘굿놀이

- 긍정적 기사
 - 사라졌던 제주의 전통굿을 도시축제로 복원한 축제였다.
 - 시민이 어우러진 잔치판이었다.
- 부정적 기사
 - 입춘굿판이 관·민이 어우러져 치러졌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홍보가 부족했다.
 - 축제 내용이 담긴 팸플렛과 리플렛이 축제 하루 전날 만들어졌고, 팸플렛도 오자와 잘못된 내용이 실려 있어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 주최측인 제주시와 주관측인 민예총제주도지회의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했다.
- 제언 기사
 -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축제를 전담할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 입춘굿놀이를 제주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축제로 육성해야 한다.

□ 들불축제

- 긍정적 기사
 - 북제주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 재일동포가 항공기 기내지에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소개했다.
 - 우리 고유의 민족전통을 계승하고 주민의 문화적 결속력을 제고했다.

-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눈꽃축제와 더불어 겨울철 최대 관광이벤트로 자리 매김하였다.
- 전국 유일의 겨울철 민속축제로서 세계적 관광축제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화·민속·오락부문의 28종과 부대행사 8종 및 민속장터가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였다. 수려한 경관과 20만평의 넓은 새별오름 일대는 축제장소로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총 12만 6천여명이 참가자중 외국인 2천 1백 6명을 포함 총 3만 5천 6백 28명이 참가하였다.
-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 부정적 기사
 -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 일부 행사는 사전 준비가 소홀했다.
 - 불꽃놀이를 축제 첫째날에 집중하여 실시함으로써 축제 하이라이트인 오름불놀이와 연계성이 미흡했다.
 - 무료 운행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 행사가 끝난 후 행사때 쓰였던 각종 장비가 방치됐다.
- 제언 기사
 - 우천시를 대비해 진입로를 포장하고 오름에 비료를 뿌려 초지를 우량 조성해야 한다.
 - 새별오름의 넓은 들판에 유채등 향토꽃을 계절마다 심어 관광코스로 개발하거나 겨울철 눈썰매 및 오름트래킹 장소 등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 새별오름을 축제장소로 고정화할 필요가 있다.
 - 놀이 위주로 진행된 각종 행사의 보완이 필요하고, 특정 행사에 한해서는 제주의 역사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재현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축제 사진도록 발간이 필요하다.
 - 행사장면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하다.
 - 관광홍보 대사를 위촉해 축제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주최측이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과의 홍보협조체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 새별오름을 통째로 태우는 대규모 행사로 치루어지므로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주국제관악제

○ 긍정적 기사

- 제주국제관악제가 세계적인 관악축제로 성장했다.
- 국제관악제에 2억 3천 1백만원의 국고가 지원되었으며, 제주시는 2001년도에도 국고지원금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 홈페이지 개설 및 국내외에서 열리는 음악행사장에서 홍보전을 전개했다.

○ 부정적 기사

- 행사준비 과정에서 참가팀·관악지도자 등이 불참 통보, 도내팀 연주무대 소홀 등이 있었다.
- 세부 일정이 조기에 확보되지 않았다.
- 행사진행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

○ 제언 기사

- 제주국제관악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는 물론 제주국제관악제 전담 기구가 별도로 조직되어야 한다.

□ 왕벚꽃잔치

○ 긍정적 기사

-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허니문 어게인,’ ‘관악,’ ‘국악,’ ‘청소년,’ ‘어울림,’ ‘허니문’ 등의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 홍보 : 제주도관광협회는 국내분과위와 연계, 왕벚꽃잔치를 여행상품에 포함시켰으며, 모객을 위한 도외 홍보에 ‘왕벚꽃잔치’를 소개하도록 유도했다.
- 허니문축제 연계 : 허니문축제 및 허니문 어게인과 연계되었다.
-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주관한 재활용품 코너는 관람객들에게 환경학습장으로 매우 유용한 행사였다.
- 목관아지 헌화운동은 관람객에게 호응이 컸다.

○ 부정적 기사

- 먹거리 장터 : 단순한 메뉴, 음식이 부실, 호객행위, 먹거리 장터의 분양 문제,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일부 음식점이 있었다.

- 행사장의 풍물장터와 음식점 등의 천막을 설치하면서 도로에 쇠말뚝을 박았다.
 - 왕벚꽃 잔치와 허니문 어게인 페스티벌 두 개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 왕벚꽃을 테마로 한 행사가 부족했다.
 - 행사장의 동선계획을 잘못 설계하였다.
 - 행사장을 안내하는 안내원 수가 부족하였다.
 - 정석항공관은 60명 정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자가 입장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다.
 - 허니문 축제 또한 인기가수 공연에 치중하여 다양한 제주문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 추진조직 : 허니문어게인 주관 부서와 왕벚꽃잔치 주관 부서가 제주도관광협회 국내여행분과위원회와 예총 제주도지회로 이원화돼 효율적으로 홍보하지 못했다.
 - ‘허니문어게인페스티벌’은 1인당 23만 7천원(2박 3일, 서울 특급호텔 기준)으로 제주관광상품 18만 8천원(2박 3일, 서울 특급호텔 기준)과 비교하여 관광객들에게 고가격으로 인식되었다.
 - 타 시·도 대형여행사는 어게인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자사의 상품을 고객들에게 의도적으로 권유했다.
 - 제주시와 제주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했다.
- 제언 기사
- 왕벚꽃잔치의 자체 관광 이벤트를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 허니문어게인과 왕벚꽃잔치를 연계해 추진 조직(가칭 왕벚꽃잔치 추진위)을 일원화해 행사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유채꽃잔치

- 긍정적 기사
- 다른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음식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향토음식의 상품화 가능성을 밝혔다.
 - 관람객 증가. 유치목표 4만명을 넘어 5만명을 유치했다.
 - 제주의 대표적인 봄축제로 자리매김되었다.

○ 부정적 기사

-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였다.
- 차량통제의 문제 등 교통문제가 발생하였다.
- 오름트레킹, 유채꽃 사진 콘테스트 등 특색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 장소와 개최 시기 선정 : 중산간에서 개최된 행사는 날씨 관계로 취소되거나 진행에 차질이 생긴 행사가 많았다.

□ 용연선상음악회

○ 긍정적 기사

- 프로그램 다양화 : 클래식, 국악, 민요, 가요까지 여러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관람환경 개선 : 오케스트라 박스 마련, 관람석 정돈.

○ 부정적 기사

- 소리의 선명도가 떨어짐 : 용연 석벽에서 나오는 에코와 울림, 바람소리, 찬공기로 인해 전달력이 떨어졌다.
- 행사가 음악에만 치중되었다.

□ 2001년 세계섬문화축제

○ 부정적 기사

-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 한국방문의 해 10대 축제의 하나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 관람객을 내국인에 중점 : 2001년도 관람객 유치 목표는 총 60만명이며, 이 중 외국인 관람객 유치 목표는 5만명이다. 조직위의 홍보전략도 외국인 관람객 보다는 내국인 관람객 유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 유치대상 지역을 섬지역에서 국가 도시 중심으로 전환 : '2001년 세계섬문화축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12개 지역 내외, 북미·유럽 8개 지역, 중남미·아프

리카 8개지역 내외, 국내에서 2개 지역 내외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가대상 지역이 주체적인 '섬'보다 객체적인 '도시'가 많을 경우 '세계섬문화축제'라는 축제 명칭이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 감사원의 감사에서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문제의 사업으로 지적되어, 국고보조금 확보가 우려된다.
- 행사계획 : 2001년 행사계획이 1998년도 개최됐던 행사계획과 다른 점이 없다.
- 행사장소 : 2001년 개최되는 축제 장소가 바다가 아닌 산속(오라관광지구)이다.
- 제언 기사
 - 세계섬 출연팀에 대한 비용 지원을 최소화하고, 행사장 운영경비도 대폭 줄여야 한다. 초청 참가팀 또한 소수 정예화를 통해 소요경비도 줄이고, 공연의 극대화를 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수준 높은 축제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국내외 여행사, 호텔 등이 기획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한라문화제

- 긍정적 기사
 - 기원대축제, 개막축제, 제주역사축제, 전통문화축제, 관광레저문화축제, 예술축제 등으로 테마별 축제 보강이 이루어졌다.
- 부정적 기사
 - 규모 위주의 행사가 신설되었다.
 - 일부 프로그램인 경우 추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 행사장내 부대행사가 활성화되지 못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즐길거리가 부족했다.
- 제언 기사
 - 큰곳을 한라문화제의 중심 행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세시풍속인 한라문화제는 제주인의 민속예술과 전통문화를 보여주어야 하며, 한라문화제를 범도민적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
 - 한라문화제를 제주도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특히 한라문화제의 날을

‘민속의 날’로 지정해 온도민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 제주도의 전통 민속예술을 보존·정비해 나가면서, 동시에 풍성하고 넉넉하게 재창조되어진 축제를 통하여 전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민속예술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민속예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희마을을 선정, 지원·육성해 나가야 한다.
- 민속예술인 세시풍속이 정기적인 마을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월별·지역별로 재조정해 지원하고, 유채꽃 잔치나 들불축제, 칠십리축제, 억새꽃잔치, 해수욕장 개장시에는 제주의 생활문화와 역사와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축제의 현대화 작업이 시급하다.
- 관람객 참여가 작은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호응도가 높은 행사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오름답사, 문화유적 탐방 등은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육성해야 한다.
- 한라문화제를 학생들의 민속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축제장을 방문한 도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감상문 공모가 필요하다.
- 한라문화에 개최 시기를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다.
- 실질적인 주관 단체를 중심으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 도내외적인 홍보 부족으로 도민 축제로 그쳤다. 재외도민회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 부정적 기사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패.
 - 대회 개최 일시도 스포츠 행사 개최를 자제하는 6월 2~3일에 개최되었다.
- 제언 기사
 - 적극적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코스 다양화 등 일반인과 전문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건강마라톤 개념을 도입하여 패키지상품화 할 필요성이 있다.

- 상금제 도입을 통해 유명 선수를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와 함께 대규모 협찬사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제주마라톤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제주 청정 이미지와 부합된 마라톤 상품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 제주가면축제

○ 부정적 기사

- 축제 규모와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가면에 대한 조사, 연구는 물론 국제민속가면에 대한 기초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가 추진되었다. 또한 참가국도 3개국에 불과하다. 제주에서 가면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제주가면(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축제를 열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
- 당초 “2000제주국제민속가면축제”에서 “제주가면축제”로 명칭 변경. 이는 주최측이 지역의 문화적 배경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축제를 기획했기 때문이다.
- 2000제주코리아렐리대회 일정에 맞춰 축제 일정을 2000년 10월 19~22일로 변경되었다.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면행렬(로드쇼)에 불과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 제주전통 탈문화만으로는 축제 진행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주전통 탈문화에 대한 소개를 외면하고 있어 제주민속가면축제 개최 의도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 축제의 컨셉, 내용도 없는 축제였다. 직접적으로 가면과 관련된 행사는 안동하회탈 민속예술단, 경기도 퇴계 산대놀이 민속예술단 초청공연과 세계 가면·탈 전시회뿐이었다. 제주시의 자매도시 일본 와카야카시 와카마츠리 민속예술단은 가면과 무관한 문화사절로 참가한 것이었다.

□ 신흥축제

○ 부정적 기사

- 신혼상품의 내용과 가격을 행사 20여일 남겨놓고 결정하였다.
- 신혼상품의 내용은 3박 4일 일정중 신혼축제와 연관된 날은 하루이며, 관광지를 경유하는 중간에 전통혼례와 저녁 시간대 탑동에서 개최되는 축하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다.
- 신혼부부를 유치하기 위한 상품개발이 미흡했다.
- 예산운용의 불합리 : 제주도는 국비 1억원과 도비 5천만원 등 총 1억 7천만원을 들여 신혼축제를 개최하였고, 전체 예산중 2천만원이 상품 홍보에 책정되었다. 홍보비로 책정된 2천만원은 스포츠 신문에 광고하는 것으로 상품 홍보를 한정하였다.
- 제언 기사
 - 축제기간에 항공요금 및 숙박요금의 대폭 할인과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 보목수산물품 자리돔큰잔치와 법환수산물품 한치큰잔치

- 긍정적 기사
 - 자리돔을 이용한 전통요리와 어업현장 탐방 등 행사를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관광활성화 행사로 부각시키기 위해 개최된 보목자리돔큰잔치는 지역 전통요리 홍보에 기여하였다. 자리돔 요리 판매행사, 수중생태탐방, 자리돔 어획장면 시연, 자리무침 맛자랑 경영대회, 어업현장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먹을거리,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 마을주민이 만드는 축제. 마을주민들이 축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며, 자리돔과 한치를 소재로 하여 축제마당을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축제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 법환수산물품한치큰잔치의 경우 2,500여명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부정적 기사
 - 홍보기간이 짧았다.
- 제언 기사
 - 고려말 반란을 일으킨 목호들의 잔당들을 범섬에서 소탕한 최영장군 부대가 주둔했던 막숙자리로서 오랜 역사가 깃든 법환포구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 정의골민속한마당대축제

○ 긍정적 기사

- 제주의 전통문화 행사를 보여준 축제였으며, 우천시에도 1,500 여명의 관광객들이 참가했다.

☐ 서귀포칠십리축제

○ 긍정적 기사

- 주최측의 인원부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큰 무리없이 진행했다.
- 전국 합창단 초청 대합창제의 프로그램 운영은 성공적이었다.

○ 부정적 기사

- 축제 운영면에 있어서 살펴 보면, 한라문화제·서귀포예술제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 가장 특색있었던 행사인 서북문화행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 천지연 광장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의 일부 음식점의 경우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가격이 비싸고 질이 낮았다.

☐ 서귀포칠선녀축제

○ 긍정적 기사

- 관내 자원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부정적 기사

- 주행사장과 가까운 거리에 임시 주차장이 마련되었으나 장소가 협소한데다 비탈진 임야여서 주차에 큰 불편을 겪게했다. 특히 진입로가 차량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

□ 세계철인3종경기대회

○ 긍정적 기사

- 이벤트 봉사단의 노력. 2000년 5월에 서귀포시 행사지원 전문 자원봉사단이 출범하였으며, 5개 분야·5개 팀 2백여명으로 구성된 이벤트 자원 봉사단이 헌신적인 봉사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되었다.

□ 한라문화제

○ 긍정적 기사

- 예년보다 풍성한 신규 행사 마련. 신규 축제로 기원대축제 ‘신불·연불 섬 길놀이’축제, 문화유적과 오름을 탐방한 제주역사축제와 오름오름축제, 제주 전통민속문화의 우수성을 선보인 무형문화재 공개시현 행사 등이 마련되었다.

○ 부정적 기사

- 축제의 총 예산은 도비 2억원, 우수지역축제 2천만원, 문예진흥기금 1천만원 등 모두 2억 3천만원이며, 다른 시·도의 전통지역축제와 비교해도 축제예산이 많지 않은 편이다. 경북 경주시가 주최하는 신라문화제의 경우 3일축제에 7억 5천만원, 충남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가 4일간 5억원, 강원도 강릉시의 강릉단오제도 5일 축제에 3억 5천만원이었다.
- 한라문화제의 전면적 보완에 대한 여론에 자문위원회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
- 행사 홍보 부족. 축제 프로그램은 3주일 전에 확정되었고, 정보화 시대 인터넷 홍보도 부족했다. 예를들어 문화관광부 지역축제 사이트에 한라문화제 주최측은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MBC로 되어 있다.
- 행사장 선정의 문제. 39회제를 맞이하고 있으나 매년 개최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2000년도에도 행사 3주일 전어야 행사장을 확정했다. 우천시에 대비한 축제장소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행사 전반을 기획할 인력이 부족. 예충도지회, 제주도, 각 시·군 관계자로 한라문화제 기획단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행사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 제언 기사

- 한라문화제 부대행사를 종합경기장 인근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라문화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 오늘날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가 유일한 목적이었던 과거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이고 통계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축제 주관단체는 축제의 관광유발효과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 지역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상품 개발의 획일성과 모방성에서 탈피해 지역전통생활을 재현·참여하는 체험관과 그 지역을 방문해야 맛볼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개발, 특산물 판매장 개설 등이 필요하다.
- 전문적인 고부가가치 문화상품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 접근과 친절과 편의 제공, 풍부한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제주지역에서 전래되는 민담이나 전설을 발굴해 연극이나 축제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 서귀포바다축제

○ 긍정적 기사

- 기존 축제와는 달리 모터보트 퍼레이드, 바다골프 체험 등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 부정적 기사

- 2000년 8월말에야 축제 주관단체가 서귀포시관광협의회로 선정되어, 각종 행사 준비와 홍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 제언 기사

- 상설 축제장소와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 제주코리아앨리대회

○ 부정적 기사

- 국제대회로 개최할 것이라는 제주시의 홍보와는 달리 국내 선수 35명만이 참가하였다.
- 도일원에 걸친 교통통제로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 가중이 예상된다.

□ 제주억새꽃축제

○ 긍정적 기사

- 관광객 7,200 여명을 포함해 4만 9천 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대표적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와 협조해 먹거리 장터를 10곳으로 제한하고 가격표를 부착하는 등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소했다.

○ 부정적 기사

-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축제의 테마인 ‘억새’를 소재로 한 이벤트가 매우 부족해 축제의 의미를 살리는데 부족했다.
- 잦은 축제장소 변경으로 인력 및 예산 낭비는 물론 관광객과 외부인에게 축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차질을 빚었다.
- 행사장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등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

○ 제언 기사

- 제주도관광협회는 2001년부터는 북제주군 ‘들불축제’가 열리는 새별오름에 고정 행사장을 마련, 억새와 들불의 이미지를 상호 보완·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감귤축제

○ 제언 기사

- 제주도와 비슷한 일본 감귤산지인 에히메지방의 감귤축제인 경우 감귤아가씨 선

발기준 또한 외모보다는 감귤에 대한 이해와 판촉능력을 중요시하여 선발한다.

- 또한 시험장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는 그동안 연구된 내용을 현장에 전시하며 또한 학술행사와 성공사례를 발표하게 한다. 성공한 모범농가를 시찰케 해 현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각종 농업자재 종합전시장을 개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의 축제로서 거행되고 있다. 특히 품평회에서 입상한 것이나 전시된 것은 일반인이나 관광객에게 입찰식 판매를 하고, 구상이나 기획은 행정이, 주체는 농협이, 그리고 주관은 농협산하의 민간기구인 감귤동지회가 맡으므로써 각급 기관의 역할분담이 분명함과 동시에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표 5-2> 제주지역 개별 축제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

축제명		신문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성산 일출제	긍정적 기사		· 1월 3일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역할 -지역주민들의 헌신적 자원봉사	· 1월 4일자 -행사장 주변 교통통제 원활	
	부정적 기사		· 1월 3일자 -참가자 중심이 되지 못한 이벤트 시나리오 -시민의식의 결여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 -압박한 바가지 상혼 -행사장 입구를 제외한 통제 외 각지역의 교통혼잡	· 3월 28일자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축제 연출·운영 등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눈꽃 축제	긍정적 기사		· 1월 31일자 -통계적으로 겨울철 제주관광 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함	· 1월 30일자 -관광객 증가 · 2월 2일자 -관람객 동원 성공	
	부정적 기사		· 1월 21/24일자 -축제기간 항공기 좌석난 극심 · 1월 31일자 -제설작업의 미흡 -교통불편 -신제주로터리 행사장의 장소 선정이 잘못됨 -행사내용중 빙고올축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 2월 1일자 -프로그램이 미흡 -연중 강설일 수가 얼마되지 않은 제주에서 눈꽃축제는 무리 · 2월 4일자 -차량지원 혼선 -허구성 행사 치레 -축제장 안내 유인물 부족	· 1월 23일자 -셔틀버스 운행 미흡 · 1월 25일자 -눈꽃축제 존폐론 대두 · 1월 30일자 -교통통제의 미흡 -다양한 프로그램 미흡 · 2월 2일자 -행사운영 다소 미흡 -관광객 수 산정 미흡	· 1월 24일자 -개막식날 비날씨로 일부행사 취소 -빙고올 행사장 선정 잘못됨 · 1월 26일자 -행사가 여러목과 신제주로터리로 분산 -여러목행사장에도 기념촬영장소로 마땅한 상징물이나 배경이 없었음 -가격표 등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점
	제언 기사		· 2월 1일자 -축제의 명칭 변경 고려 -체험형 이벤트 개발	· 2월 23일자 -행사장의 안전성 확보 과제	
탐라국 입춘굿 놀이	긍정적 기사		· 2월 14일자 -사라졌던 제주의 전통굿을 도시축제로 복원 -시민이 어우러진 잔치판	· 2월 15일자 -입춘굿 원형 재현	
	부정적 기사		· 2월 15일자 -상징축제 되려면 시민참여 필수	· 2월 15일자 -관광객 적음	· 2월 14일자 -관객들의 참여 부족
	제언 기사				· 1월 8일자 -세계적인 도시축제로 육성해야 함

(계속)

신문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축제명				
들불 축제	긍정적 기사	· 2월 10일자 -재일동포가 항공기 기내지에 들불축제 소개 · 2월 21일자 -새별오름오르기 체험이벤트 인기 -많은 관람객 입장 · 2월 22일자 -국가적인 축제로 발전 가능성 재확인 · 10월 26일자 -2001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 2월 5일자 -관광상품화된 들불축제 · 2월 22일자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이용객들의 편의 고려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 · 10월 26일자 -2001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 1월 29일자 -관광객 유치 심혈 · 2월 16일자 -민족전통 계승 및 주민의 문화적 결속력 제고 · 2월 21일자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 가능성 · 2월 22일자 -전국 유일의 겨울철 민속축제로서 세계적 관광축제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보여줌 · 10월 26일자 -2001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부정적 기사		· 2월 22일자 -축제장소 고정화 과제 -화장실 부족 -셔틀버스 운행 문제 · 4월 13일자 -행사때 쓰였던 각종 장비 방치	· 2월 22일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필요 · 3월 24일자 -편의시설 부족(특히 화장실) -일부 행사 사전준비 소홀
	제언 기사	· 2월 22일자 -시·군과의 홍보협력체계 강화방안 필요	· 2월 5일자 -산불예방대책 마련 필요 · 2월 22일자 -축제장소의 고정화 필요 -놀이 위주로 진행된 각종 행사 보완 필요	· 2월 22일자 -우천시를 대비해 진입로를 포장하고 오름에 비료를 뿌려 초지를 우량 조성 -새별오름의 관광자원화 · 3월 24일자 -축제 사진도록 발간. -행사장면 인터넷 생중계. -관광홍보 대사를 위촉해 축제홍보에 활용.
제주 국제 관악제	긍정적 기사	· 2월 17일자 -제주국제관악제 세계적 관악축제로 성장	· 3월 22일자 -국고지원 확대 · 4월 12일자 -국내외 홍보에 만전	
	부정적 기사	· 8월 21일자 -진행방법의 국제화 필요 · 10월 26일자 -평가회 개최되지 않음	· 6월 29일자 -정상추진에 암초	
	제언 기사	· 8월 21일자/10월 26일자 -별도의 전담 기구 필요		

(계속)

축제명		신문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유채꽃잔치	긍정적 기사		· 4월 24일자 -전통먹거리 인기 · 5월 30일자 -관람객 증가	· 4월 23일자 -이국적 분위기 연출, 전통 음식 제공	· 4월 24일자 -제주의 대표적인 봄축제로 자리매김
	부정적 기사		· 4월 24일자 -편의시설 부족 -교통불편 -특색있는 이벤트 필요 -장소와 시기 선정	· 4월 26일자 -행사장 동선 잘못 계획 -안내원의 부족 -정석항공관에 대한 잘못된 홍보	
용연선상음악회	긍정적 기사			· 5월 20일자 -프로그램 다양화 -관람 환경 개선	
	부정적 기사			· 5월 20일자 -소리의 선명도가 떨어짐 -행사가 음악에만 치중	
세계섬문화축제	긍정적 기사				
	부정적 기사		· 5월 30일자/5월 31일자 -유치대상 지역을 섬지역에서 국가 도시 중심으로 전환 · 6월 8일자 -조직위 출범 1년 3개월 예산 타령 · 8월 14일자 -국고보조금 확보 우려 · 9월 30일자 -2001년 개최되는 장소가 바다가 아닌 산속(오라관광지구)에서 개최	· 5월 24일자/5월 25일자 -관람객은 내국인 위주 · 8월 15일자 -국고보조금 확보 우려	· 4월 22일자 -예산전무, 인력부족 · 8월 15일자 -국고보조금 확보 우려 -행사집행 전반의 투명성 담보 · 8월 29일자 -2001년 행사계획이 1998년도 개최됐던 행사계획과 다른 점이 없음
	제언 기사			· 8월 15일자 -섬축제의 경제성 제고	
한라문화제	긍정적 기사			· 10월 4일자 -예년보다 풍성한 신규행사 마련	· 6월 1일자 -테마별 축제 보강.
	부정적 기사		· 9월 2일자 -개최 장소 매해 바뀜	· 6월 1일자 -축제 예산 적음 · 10월 4일자 -지역민의 축제로 폐막	· 1월 28일자 -자문위 해체 검토 · 6월 1일자 -규모 위주의 행사 신설 -추가예산 확보 어려움 · 9월 8일자 -계획했던 참여축제 취소 · 10월 4일자 -관객없는 축제
	제언 기사		· 1월 27일자 -한라문화제를 민간주도의 축제로 전환 필요 · 2월 8일자 -삶과 무관한 축제는 의미 없음 · 10월 2일자 -한라문화제 부대행사를 중합경기장 인근에서 개최 · 10월 27일자 -한라문화제 일정 정례화		· 7월 1일자 -한라문화제를 큰굿과 연계 · 10월 27일자 -법도민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필요

(계속)

축제명		신문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 가면 축제	부정적 기사		· 7월 14일자 -축제 규모와 내용 등이 확 정되지 않음 · 9월 18일자 -일정 변경 -제주전통 탈문화를 소개하 는 행사 없음	· 10월 24일자 -가면없는 가면축제	· 5월 29일자 -정체성 모호 · 8월 29일자 -축제 명칭 변경과 축제 기획 미비
신혼 축제	부정적 기사		· 8월 18일자 -신혼부부를 유치하기 위한 상품개발 미흡 -예산운용의 난맥상 · 9월 1일자 -제주신혼축제 상품 부실 -홍보·내용 등 주먹구구식	· 8월 19일자 -신혼부부를 유치하기 위한 상품개발 미흡 -홍보미흡	
	제언 기사			· 8월 19일자 -각종 요금 할인과 신상품 개발	
보목 자리돔 큰잔치	긍정적 기사			· 7월 16일자 -프로그램 다양, 먹거리 풍성	· 7월 6일자 -어민소득 증대, 관광행사로 부각 전망 · 7월 17일자 -자리돔이 엮어낸 시민 한 마당 축제 · 8월 28일자 -마을주민이 만드는 축제
제주국 제시민 마라톤 축제	부정적 기사				· 8월 29일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패 -2001년 대회 개최 일시의 문제
	제언 기사			· 6월 6일자 -관광상품 연계 필요	
법환 한치 축제	긍정적 기사				· 8월 30일자 -관광축제 새로운 모델 제시
	부정적 기사				· 8월 30일자 -홍보기간이 짧았음
	제언 기사				· 8월 30일자 -역사적 사건 이벤트화
정의골 민속한 마당대 축제	긍정적 기사			· 10월 1일자 -제주의 전통문화를 재현 하여 호응을 얻음	· 10월 2일자 -성공적 개최
서귀포 칠십리 축제	긍정적 기사		· 10월 3일자 -대체로 성공적	· 10월 3일자 -대체로 성공적	· 10월 4일자 -전국 합창단 초청 대합창 제의 성공
	부정적 기사		· 10월 2일자 -일부 음식점이 가격표시제 를 시행하지 않음	· 10월 3일자 -다양한 볼거리 부족	· 10월 4일자 -특색 없는 축제 -한라문화제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개최 -칠십리축제중 가장 대표적 인 행사였던 서북문화행사 의 미흡

(계속)

축제명		신문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세계철인 3종경기 대회	공정적 기사				· 7월 5일자 -이벤트 봉사단 맹활약
	공정적 기사	· 10월 10일자 -다양한 행사로 관광상품 가능성	· 10월 10일자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 10월 9일자 -갯가지 볼거리 성황	
	부정적 기사	· 10월 10일자 -축제 주관단체 선정 등이 늦어짐, 장소 협소			
서귀포 바다축제	제언 기사	· 10월 10일자 -상설 축제장소 · 전담기구 필요			
	부정적 기사	· 10월 13일자 -동네 잔치로 전략	· 10월 13일자 -국내 선수만이 참가	· 10월 13일자 -동네 잔치로 전략	
	공정적 기사		· 5월 7일자 -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제주코리아 랠리대회	부정적 기사		· 5월 5일자/5월 7일자 -주차장시설이 부족		
칠선녀 축제	공정적 기사	· 4월 8일자 -축제 프로그램 다양 · 4월 10일자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 -홍보	· 4월 7일자/4월 9일자 -다양한 행사 마련 · 5월 13일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허니문축제 연계	· 4월 6일자 -행사 풍성	
	부정적 기사	· 3월 27일자 -안팎으로 외면당하는 축제 · 4월 7일자 -왕벚꽃잔치인지 먹거리잔 치인지 · 4월 10일자 -먹거리 장터 -왕벚꽃 잔치와 허니문 어게 인 페스티벌 두 개의 행사로 진행	· 4월 9일자 -음식점 등을 설치하면서 시 도로에 쇠말뚝 박음 · 4월 26일자 -먹거리외에는 독특한 점 없음 · 5월 13일자 -왕벚꽃을 테마로 한 행사 부족 -제주문화를 보여주지 못함 -추진조직 일원화하지 못함	· 4월 6일자 -바가지요금 -장소선정 미흡	
	제언 기사		· 5월 13일자 -왕벚꽃잔치 자체 여행상품 개발 -추진조직의 일원화		
억새꽃 축제	공정적 기사	· 10월 16일자 -다양한 행사 마련 및 특색 있는 향토음식 준비	· 10월 17일자 -대표적 가을축제로 자리매 김 -바가지 요금 문제 해소	· 10월 16일자 -다양한 행사 마련	
	부정적 기사	· 10월 16일자 -축제 테마인 억새가 적음 -관광객이 적음 -교통체증	· 10월 17일자 -억새를 소재로한 이벤트 부족 -찾은 축제장소 변경		
	제언 기사		· 10월 17일자 -새별오름에 고정 행사장 마련 검토		
감귤 축제	제언 기사		· 10월 24일자 -거듭나야 할 감귤축제		

3. 전체축제에 대한 보도 내용

가. 긍정적 기사

- 축제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 2001년 상반기중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이벤트를 관광상품과 연계하기 위해 2000년 11월 1일에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각종 축제상품 설명회를 사전에 치를 수 있도록 정례화하였다.
- 북제주군 해변축제 없애는 등 축제 특색화 추진
 - 북제주군이 주관하고 있는 관광축제를 대형화 및 특색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 관광상품화 가치가 있는 들불축제는 더욱 보완·발전시켜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1996년부터 개최된 여름해변축제는 같은 시기에 제주시의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서귀포시의 바다축제, 표선의 백사대축제 등 유사한 축제가 동시에 산발적으로 개최되어 지역별 차별성이 없고 관광객 유치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마을 자체 행사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 부정적 기사

- 2000년 뉴밀레니엄 축제를 ‘성산일출제’와 ‘제주시민 대화합축제’로 분리 개최
 - 제주도가 1999년 11월 신제주 입구에 ‘성산일출제’ 홍보 아치를 설치하자 제주시도 신제주 로터리에 ‘시민 대화합축제’아치 등을 설치하였고, 이는 제주도와 제주시간 경쟁의식이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새천년축제 ‘동네잔치’ 전략
 - 2000년 1월 1일~2일 양일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1만 6천 8백 47명에 불과, IMF관리체제였던 1999년 같은 기간 2만 8천 7백여명에 크게 못미쳤다.
 - 밀레니엄 행사로 제주도가 총 3억 2천여만원 예산으로 성산일출제를 개최하였다.
 - 제주시는 2억 8천만원으로 사봉낙조제와 밀레니엄 페스티벌, 시민 한마음 걷기, 자전거 대행진 등의 행사를 연쇄적으로 개최하였다.

- 서귀포시는 3천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송년과 새천년맞이 큰축제를 개최하였고, 밀레니엄 행사로 총 6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중복 투자되었다.
- 항공편 증편 대책 마련이 미흡했고, 타 지역과 축제 성격 및 기획을 차별화하지 못했다.
- 관광이벤트 발전계획의 유명무실화
 - 제주도는 1999년 3월 도·시·군에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관광이벤트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특성화·대형화하고 국제적 관광이벤트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이벤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이러한 계획이 마련된지 1년이 지났지만 중점 지원 육성 대상 축제가 선정되기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없다.
 - 12개 중점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본 예산에 축제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 예산만 축내는 관광축제
 - 국제시민마라톤대회에 6천 2백 34명이 참가하였으나, 외국인 참가자는 4백 3명에 불과했다.
 - 2001년 개최되는 세계섬문화축제는 유치 목표 관광객 60만명 가운데 외국인은 5만명에 불과했다.
 - 신흠축제의 경우 기존 이벤트성 기획과 다를 바 없고, 제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허니문어게인페스티벌을 비롯 도내 일부 특급호텔의 신흠관광객을 위한 상품과 유사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 이들 행사에는 최소 1억 5천만원에서 최대 40억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제주지역 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10대 집중육성 축제에서 제외됨
 - 문화관광부는 새천년 우리나라를 대표할 10대 집중육성 축제에 경주전통주와떡 축제, 청도소싸움축제, 서천모시축제, 진도영동제, 이천도자기축제, 금산인삼제, 강진청자문화제, 부산자갈치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을 선정하였다.
 - 이들 축제의 공통점은 대부분 단순한 관광축제가 아닌 산업과 연계된 축제였다.
 - 25대 문화관광축제에 한라산눈꽃축제만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포함되었다.

- 각종 축제가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고 있다.
- 제주축제 홍보의 문제
 - 일부 축제를 제외하고는 도민 축제로 전락하였다.
 - 최근 도관광협회의 홈페이지 '2000년 제주관광이벤트' 코너에는 억새꽃축제만 소개되었다.
 - 제주도관광협회가 2000년 9월 초 전국 8개 시·도 여행사와 관광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내 14개 축제 및 이벤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 50%을 넘지 못하는 이벤트가 40%에 달하였다.

<표 5-3> 제주 축제·이벤트 인지도 조사

순위	축제명	인지도(%)	순위	축제명	인지도(%)
1	유채꽃잔치	97.7	8	마라톤축제	53.5
2	눈꽃축제	95.3	9	칠십리축제	46.5
3	섬문화축제	79.1	10	들불축제	37.2
4	감귤축제	74.4	11	왕벚꽃잔치	37.2
5	억새꽃축제	72.1	12	레포츠축제	20.9
6	성산일출제	62.8	13	민속가면축제	18.6
7	한라문화제	58.1	14	국제관악제	16.3

자료 : 제주일보, 2000년 10월 6일자.

- 한국예총 서귀포지부가 주관하는 한라문화제 서귀포예술제와 서귀포문화원이 주관하는 서귀포칠십리축제가 동시에 개최됨
 - 한라문화제와 칠십리축제가 2000년 9월 28일~10월 3일 같은 시기·장소에서 축제가 개최되었다. 축제를 주관한 기관만 다를 뿐 행사 내용도 비슷했다.
 - 이들 행사의 주관처가 예총제주도지부와 서귀포문화원 등 민간단체이나 행정당국이 일정조정의 필요성을 간과했다.
 - 서귀포시의 예산도 두 단체에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 등이 지원되었으며, 일부 행사는 비슷한 행사이면서 서로 다른 문화단체에 의해 중복 공연되었다.
- 유채꽃큰잔치, 감귤축제, 한라문화제 등 각종 축제가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지만, 대부분 공연자 위주의 행사로 관광객 유치효과는 거의 전무하다. 여름 해변축제 및 가을

각종 민속축제를 체험관광 상품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지자체 급조된 축제 붐물

- 도내 자치단체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각종 축제를 실속없이 경쟁적으로 개최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 제주시가 2000년 7월 3억 1천만원을 들인 제주 레저스포츠축제는 행사 일정이 중복되었고,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개최하여 당초 '비수기 관광객 유치' 취지를 벗어나 '실적 올리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 2000년 9월 제주도가 1억 7천만원을 들여 개최한 제주신혼축제는 상품화 전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예산 1억 6천만원을 들여 개최한 제주가면축제도 '알맹이 없는 축제'라며 정체성 논란까지 빚고 있다.

다. 제언 기사

○ 제주곳의 축제화

- 제주곳의 올바른 전승과 계승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주민의 독특한 문화인 제주곳과 당은 되살려야할 문화재이다. 예를들면 칠머리당굿보존회는 '86년 칠머리당굿보유단체로 인정받아 '97년 아·태영화제 폐막 공연, '98년 세계섬문화축제, '99년 전국민속예술축제 시연 등 각종 행사에 초청돼 제주곳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다.

○ 관광산업과 문화운동

- 공무원, 관광업체 종사자 등은 축제나 공연에 참가하여 직접 체험을 해야한다.
- 축제의 대중성. 관광객, 지역주민 모두가 이해하고 적응이 용이한 축제를 마련해야 하고, 제주민의 토속적 가치를 살리는 축제 개발이 필요하다.
- 축제장소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 문화운동과 축제를 이끌어 나갈 전문요원 양성이 필요하다.

○ 한라산눈꽃축제와 들불축제가 2001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

- 한라산눈꽃축제와 들불축제는 겨울 이벤트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축제와 이벤트 개발이 필요하다.

○ 축제의 발전방안

- 축제는 제의성(祭儀性),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어야 하며,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 축제의 주제와 명칭은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되고 있는 벚꽃이나 유채꽃보다 차별화되어 제주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제주지역 전통과 현대 감각이 어우러진 지역산업과 연계된 축제가 필요하다.
- 축제 담당 실무 책임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축제의 노하우 축적이 결여되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과 자원봉사자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 축제 활성화를 위해 산·학·관이 모여 제주도의 축제를 재검토하고 명칭부터 제주다운 이미지가 갖는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주시 여름의 탐동광장은 주변 음식점들과 함께 음식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한·중·일 음식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 세계적인 축제들의 발전사례를 보면 일회성의 행사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지속적인 개발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물적 투자가 이루어졌다.
- 관광선진국들은 지역발전의 수단으로서 지역 문화축제 및 이벤트의 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행사 기획·관리 및 운영 등의 부분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정책 및 의사결정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 도내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한 관광상품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축제의 컨셉(concept)이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의 경우 단순히 오름에서 뿔뿔 타오르는 들불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구경꾼들이 우선 '새해 안녕과 풍년과 액땀을 기원하는 장소에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신화를 만들고, 무대배경을 비롯한 식음·기념품 등 모든 환경을 그러한 컨셉 하에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해야 한다.
- 도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축제들을 만들어야 한다.
- 대부분의 축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타겟(target)이 불분명하다.
- 축제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지자체마다 이벤트 및 마케팅 전문 인력을 확보, 상품 개발과 마케팅 연계를 하는 등 축제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 분산 개최되는 도·시·군의 축제를 상호협력체제로 바꾸는 효과적인 개최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고 특색화, 정례화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5-4> 제주지역 전체 축제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

기사내용	신문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긍정적 기사		· 10월 3일자 -축제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 10월 3일자 -축제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 1월 4일자 -새천년축제 '동네잔치' 전략 · 3월 20일자 -북제주군 축제 특색화 추진
부정적 기사		· 1월 4일자 -2000년 뉴밀레니엄 축제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시의 경쟁 · 2월 1일자 -제주지역 축제 문화관광부 선정 10대 집중육성축제에서 제외 · 9월 28일자/9월 29일자 -한라문화제와 칠십리축제 거의 같은 시기·장소에서 개최 · 10월 14일자 -축제의 내용 빈약	· 1월 19일자 -관광이벤트 발전계획의 유명무실화 · 2월 11일자 -사계절 테마관광의 정착 · 8월 29일자 -각종 축제가 구체적 실현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식적으로 이루어짐 · 9월 28일자/10월 6일자/10월 7일자 -축제 홍보의 부족 · 9월 28일자/9월 29일자/10월 8일자 -한라문화제와 칠십리축제는 같은 장소에서 개최됨 -축제의 과잉 · 10월 25일자 -지자체 급조된 축제 붓물	· 6월 9일자 -예산만 축내는 관광축제 · 9월 28일자 -한라문화제와 칠십리축제 같은 시기·장소에서 개최
제언기사		· 2월 4일자 -제주도의 축제화 · 10월 25일자 -백화점식 유사 축제 통합 시급 · 10월 26일자 -축제의 관광상품화 절실	· 1월 18일자 -관광축제 홍보가 관건 · 4월 26일자 -축제의 주제와 명칭은 지역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 나타내어야 함 -지역산업과 연계된 축제 필요 -축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 -제주다운 이미지가 갖는 행사를 개최해야 함 · 6월 17일자 -문화관광축제의 발전방안	· 1월 31일자 -관광산업과 문화운동 · 4월 12일자 -축제의 의미 · 7월 22일자 -한라산눈꽃축제와 들불축제 2001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 10월 30일자 -축제들이 실패하는 이유

제 6 장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의견조사

제 1 절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및 표본 추출방법

- 제주도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지역비례할당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400명을 표본추출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 제주도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 의견조사
 - 각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 200명과 관광객 250명을 각각 임의할당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 제주도 축제 주관처 의견조사
 - 각 축제별로 축제를 주관한 주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 제주도 축제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조사
 - 학계, 공무원, 여행사 대표 등에 대해 각각 군집할당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2. 자료 수집방법 및 조사 기간

- 제주도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 자료 수집방법 :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전화설문조사.
 - 조 사 기 간 : 2000년 9월 1일~2일 (2일간).
- 제주도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 의견조사
 - 자료 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1대1 개별 면접.
 - 조 사 기 간 : 2000년 2월 19일~8월 20일(27일간).
- 제주도 축제 주관처 의견조사
 - 자료 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1대1 개별 면접.
 - 조 사 기 간 : 2000년 2월 19일~8월 20일 (27일간).

- 제주도 축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1대1 개별 면접.
 - 조 사 기 간 : 2000년 11월 27일~12월 9일 (13일간).

3. 분석 방법

☐ 제주도 전체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유효 표본수가 400명이 될 때까지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완료된 400부의 자료는 에디팅(Editing), 코딩(Coding),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 제주도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 의견조사

- 제주도민 200명과 관광객 250명을 대상으로 각 축제별로 설문을 배포하여 응답이 부실한 것과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완료된 설문자료는 에디팅(Editing), 코딩(Coding),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 제주도 축제 주관처 의견조사

- 각 축제별로 주관처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응답이 부실한 것과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완료된 설문자료는 에디팅(Editing), 코딩(Coding),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 제주도 축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학계, 공무원, 제주도관광협회, 여행업계 대표를 대상으로 각 축제별로 설문을 배포하여 이중 응답이 부실한 것과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완료된 설문자료는 에디팅(Editing), 코딩(Coding),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4. 축제별 설문 배포 및 회수 현황

□ 제주도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표 6-1> 지역주민 의견조사 설문배포 및 회수상황

축 제	배 포	회 수	불성실 응답	유효표본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220 110.0%	198 99.0%	28 14.0%	170 85.0%
유채꽃 잔치	220 110.0%	218 109.0%	12 6.0%	206 103.0%
서귀포 칠선녀 축제	220 110.0%	207 103.5%	14 7.0%	193 96.5%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220 110.0%	182 91.0%	57 28.5%	125 62.5%
제주 레저스포츠 축제	220 110.0%	201 100.5%	19 9.5%	182 91.0%
제주국제관악제	220 110.0%	191 95.5%	41 20.5%	150 75.0%
계	1,320 110.0%	1,197 99.75%	171 14.25%	1,026 85.5%

□ 제주도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 의견조사

<표 6-2> 관광객 의견조사 설문배포 및 회수상황

축 제	배 포	회 수	불성실 응답	유효표본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250 100.0%	245 98.0%	38 15.2%	207 82.8%
유채꽃 잔치	250 100.0%	250 100.0%	2 0.8%	248 99.2%
서귀포 칠선녀 축제	250 100.0%	243 97.2%	11 4.4%	232 92.8%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250 100.0%	238 95.2%	22 8.8%	216 86.4%
제주 레저스포츠 축제	250 100.0%	242 96.8%	10 4.0%	232 92.8%
제주국제관악제	250 100.0%	222 88.8%	8 3.2%	214 85.6%
계	1,500 100.0%	1,440 96.0%	91 6.1%	1,349 89.9%

□ 제주도 축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표 6-3>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배포 및 회수상황

구 분	배 포	회 수	불성실 응답	유효표본
학 계	25 100.0%	17 68.0%	1 4.0%	16 64.0%
공무원	30 100.0%	25 83.3%	6 20.0%	19 63.3%
관광업계	45 100.0%	30 66.7%	7 15.6%	23 51.1%

5. 조사대상 축제 사례 분석

가. 새천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 축제 개요

- 1997년부터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주제속에 개최.
- 수십만평의 드넓은 목야지(오름)에 불을 놓는 민속관광 이벤트로 제주의 겨울철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축제이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새천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 행사기간 : 2000. 2. 19~7. 20(2일간).
- 행사장소 : 새별오름 20만평(애월읍 봉성리 서부산업도로변).
- 최초 개최연도 : 1997년.
- 참여인원 : 126,000여명(외국인 2,100명, 국내관광객 33,500명, 도민 90,400명).

<표 6-4> 새천년 정월대보름 축제 주요 행사내용

주요 행 사 내 용
· 부싯돌 불씨만들기 · 개막선언 · 봉화대 점화 · 풍물놀이 · 전통혼례 · 오름 오르기 · 행운의 돼지 · 오리몰이 · 말사랑 싸움놀이 · 전통마상 · 마예공연

나. 유채꽃잔치

□ 축제 개요

- 유채꽃의 아름다움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 고사리꺾기대회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 연출.
- 유관기관과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범도민적인 행사로 유도.
 - 향토의식 및 연대감 고취, 지역의 지명도 제고.

□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18회 제주유채꽃잔치.
- 행사기간 : 2000. 4. 22~4. 23(2일간).
- 행사장소 :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정석항공관 주변.
- 최초 개최연도 : 1983년.
- 참여인원 : 50,000여명 추정(관광객 20,000명, 도민 30,000명).

<표 6-5> 유채꽃잔치 주요 행사내용(첫째날)

시간	행사명	장소	프로그램 및 출연	주관	비고
10:00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주무대 대륙산 정 상	· 개회식(대회사, 축사) · 축하비행 · 패러글라이딩대회	한국활공 협회 제주도지부	개회식이후 날씨관계로 취소
13:00	제18회 제주유채꽃 잔치행사	주무대	· 기념식 - 개회사, 기념사, 축사 - 유채재배우수농가시상 - 유채기 전달 (남군수→총국장→북군수)	KBS, 남제주군 관광공보과, 대한항공	
13:15	축하공연	주무대	· 축하공연	KBS	
16:00	대륙산 등반대회	대륙산	· 등반코스 : 3.5km · 완주자 기념품 제공	남제주군 (기획감사실)	
17:00	패러글라이딩 시 상 식	주무대	· 시상식	한국활공 협회 제주도지부, 남제주군 (관광공보과)	

자료 : 남제주군, 「제18회 제주유채꽃잔치행사 평가보고서」, 2000.

<표 6-6> 유채꽃잔치 주요 행사내용(둘째날)

시간	행사명	장소	프로그램 및 출연	주관	비고
10:00	제6회고사리 꼭기대회	주무대 대록산앞 목 장	· 기념식 - 개회사, 축사 - 대회개요 및 심사기준 설명	남제주군 (감귤특작과)	
	새천년 소망기원 평날리기	주무대옆	· 참여 : 내빈, 관광객, 도민 · 팽 300수 일제히 방수	남제주군 (축산임업과)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백일장	대록산 앞동산	· 참가부문 : 산문, 동시, 그리기 · 시상 : 부문별 시상(별도)	남제주군 (재정관리과)	
	고사리 콘테스트	대록산 주 변	· 참여 : 사진작가협회회원, 일반인 · 시상 : 금상 500천원(11점 선정)	남제주군 (재정관리과)	
11:00	제주전통 혼 레	주무대	· 혼례대상 : 동거부부 4쌍 · 집례 : 제주향교재단 · 기념촬영, 피로연	남제주군 (사회복지과), 제주향교재단 , KBS	
13:15	제주민속 한 마 당	주무대	· 전통민속무용, 경기민요, 대감놀이	KBS	
16:00	관광객 장기자랑	주무대	· 관광객, 도민참여 장기자랑 · 참가자 기념품 배부	KBS	
17:00	고사리꺾기대회 시상식	주무대	· 시상식	남제주군 (총무과)	

자료 : 남제주군, 「제18회 제주유채꽃잔치행사 평가보고서」, 2000.

다. 칠선녀 축제

□ 축제 개요

○ 목적

- 천제연폭포 전설로 전해 오는 칠선녀들의 아름다운 설화를 재조명함으로써 독특한 향토문화 창출로 관광객 및 주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관광객 증진 및 국제적인 관광이벤트 행사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 추진방향

- 풍요로운 축제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
- 문화의 향토적 특성들을 조화롭게 드러내도록 향토성 있는 축제로 연출.
- 축제별로 특성이 돋보이게 하여 전체 축제를 주민화합으로 진행 연출.
- 자율적 참여와 화합으로 범도민 공동체의식 형성 계기 마련.
- 서귀포시민이 중심이 된 출연진 선정 우선.
- 검소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내실화를 기함.

□ 행사 개요

- 행사명 : 새천년 새봄맞이 제6회 칠선녀축제.
- 행사기간 : 2000. 5. 4 ~ 5. 7(4일간).
- 행사장소 : 중문천제연폭포 일원.
- 최초 개최연도 : 1995년.

<표 6-7> 칠선녀 축제 주요 행사내용

일 시	행 사 명	행 사 내 용
5.4	여는마당	· 풍물놀이(일강정풍물단, 중문초등교풍물단, 하나로풍물단)
	개막식 및 축하쇼	· 개막식 및 연예인 축하쇼
	칠선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 선녀하강, 선녀무, 칠선녀의 노래, 성수봉송
	칠선녀제	· 칠선녀제를 전통 유교적 의례로 진행
	닫는마당	
5.5	제1회 서귀포시장기 아마장기왕대회	· 학생 및 일반부 아마장기왕 선발
	어린이날 행사	
	우리의 보배! 어린이	· 어린이 연극·발레·무용
	어린이칠선녀선발대회	· 8세~12세까지의 어린이 칠선녀 선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 제주도내 청소년댄스왕 선발
	DDR·테크노댄스 경연	
	천제연 아! 칠선녀	· 칠선녀 내려오심 재현, 선녀무
5.6	관악의 향연	· 서귀포시립관악단연주회
	여는마당	· 제주의 민속예술 공연
	사투리 경연 대회	· 노래·풍드 등 순수한 제주사투리 경연
	레크레이션 오락게임	· 관객과 함께 하는 빙고게임
	외국인 초청 무대	· 외국인 축하 공연
	칠선녀가요제(예선)	· 도민은 물론 관광객과 함께하는 무대
	천제연 아! 칠선녀	· 칠선녀 전설 재현, 선녀무, 전통예술공연
	에어로빅 공연	· 흥겨운 에어로빅 시범 공연
5.7	우리춤 우리가락	· 국악과 무용의 어울림
	여는마당	· 서귀포민속예술단, 우리의 전통예술공연
	우리가족최고	· 가족화합을 위한 게임 · 부부를 위한 부창부수 게임
	강인한 정신	· 태권도, 합기도, 택견시범
	칠선녀가요제(결선)	
	제주도립예술단공연	· 아름다운 제주 민속예술 공연(선녀춤, 해녀춤 등)
	갈옷패션쇼	· 제주전통의상 멋내기
	아! 칠선녀 우리다시 만나리·불꽃놀이	· 폐회식 및 불꽃놀이

라.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 축제 개요

- 목적
 - 동북아 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 수행.
 - 마라톤 축제의 장을 패키지 관광상품화.
 - 국내외 잠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본방침
 - 도민 보다 외래 방문객, 특히 외국인 참가자 유치에 주력.
 - 재외 제주도민협회들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100만 제주인 대 단합의 장 마련.
 - 참가선수 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통통제 대책 강구.
 - 기록 계측장비 및 경기운영의 완전성 확보.
 - 축제 환경조성의 국제화 유도.

□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5회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 행사기간 : 2000. 6. 4(1일간).
- 행사장소 :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 최초 개최연도 : 1996년.
- 코스 : 종합경기장(주경기장)↔서부해안도로↔일주도로↔하귀 우회도로↔해안도로
↔신엄리 해안도로 왕복.
- 경기종목 : FULL 코스(42.195km), HALF코스(21.0975km), 일반코스(10km).

<표 6-8>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참여 인원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자원봉사/ 진행요원
		소계	도내 (선수)	도외			소계	선수	동반	
				소계	선수	동반				
인원	6,234명	4,711명	3,910명	801명	537명	264명	403명	269명	134명	1,120

자 료 :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평가보고서」, 2000.

마.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 축제 개요

- 제주는 바다, 오름, 푸른 창공 등 모든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동호인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각 동호인단체별로 소규모로, 부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해 왔음. 따라서 시민 및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홍보 부족 등으로 참여기회가 없어 관광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본 행사를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하여 1999년 하반기에 관련 단체장, 학계, 여행업계 등으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소규모로 분산 개최되고 있는 행사를 통합, 대규모화해서 관광객들이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여름철 휴가기간에 행사를 개최하여 레저·스포츠 동호인과 가족 등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게 함으로써 제주관광 욕구 창출로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켜 침체되고 있는 제주관광 진흥의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데 그 배경이 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 행사기간 : 2000. 7. 21~7. 30(10일간).
- 행사장소 : 이호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어영, 서부두 방파제, 어승생수원지 앞 등.
- 최초 개최연도 : 1995년.

<표 6-9>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주요 행사내용

개 최 일 자	행 사 별	장 소
7.21	개막축제(해변열린음악회)	이호해수욕장
7.22	KBS전국노래자랑	"
7.22	제1회 제주시장배 전국원영경기대회	"
7.23/25	이호썸머페스티벌	"
7.22~7.30	해양레저체험축제	"
7.22~7.23	제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전국윈드서핑대회	"
7.23	제1회 제주시장배 철인3종 경기대회	이호해수욕장 해안도로(도두~용두암)
7.22~7.30	제주스쿠버다이빙축제	용담레포츠공원
7.22~7.23	제1회제주시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어리목 어승생악
7.22~7.30	서바이벌게임	어승생수원지 앞
7.23	제1회 제주시장배 전국마운틴바이크대회	"
7.23	전국바다낚시대회	서부두방파제
7.29	제1회 제주시장배 전국 중·고 미술실기대회	탐동광장
7.29	조랑말 투마시범	명도암 승마장
7.30	해변시민노래자랑	삼양해수욕장

자료 : 제주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평가보고서」, 2000.

<표 6-10>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참여인원

행사명	계	참가선수	관람객	
			관광객	도 민
계	13,224	3,544	3,900	5,780
개막축제	3,000		1,000	2,000
KBS전국노래자랑	1,500		600	900
이호섬머페스티벌	2,000		700	1,300
삼양해변노래자랑	1,200		300	900
철인3종경기	547	147	400	
윈드서핑대회	457	107	350	
전국원영경기	492	192	300	
바다낚시대회	351	351		
중·고미술실기대회	1,000	700		300
스쿠버다이빙축제	958	528	130	300
패러글라이딩대회	178	138	40	
전국MTB대회	121	91	30	
서바이벌대회	600	600		
투마시범경기	140	10	50	80
해양체험축제	680	680		

자료 : 제주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평가보고서」, 2000.

바. 제주국제관악제

□ 축제 개요

- 축제 주제 : 섬, 그 바람의 울림(Island, the Resonance of Wind).
- 축제의 지향 목표
 - 관악을 통한 국제 문화 교류로 세계화에 기여.
 - 제주의 문화적 이미지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제주를 관악의 메카로 상징화.
 - 국내 최고의 관악 축제 : 세계적 관악 축제로 정착.

- 제주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국내 관악발전에 기여.
- 축제의 방향
 - 제주의 여름과 어우러진 관악의 향연으로 국내 관악 선도 축제.
 -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관광 축제.
- 1995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홀수 해('95, '97, '99)는 대규모 관악축제를 통한 관악의 대중성 추구. 짝수 해('98, 2000)는 전문 앙상블축제와 국제관악콩쿠르(2000년 신설)를 통한 관악의 전문성 추구.

□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주국제관악제.
- 행사 기간 : 2000. 8. 12~8. 20(9일간).
- 행사 장소 : 제주시 해변공연장 등 도일원.
- 최초 개최 연도 : 1995년.
- 행사 내용
 - 관악 앙상블 연주회.
 - 환영 행사(시가 퍼레이드 및 제주의 밤).
 - 관악 공개강좌(지도자 및 연주자를 위한 프로그램).
 - 국제관악콩쿠르(6개 부문).
 - 콩쿠르 입상자 연주회.
 - 부대 행사
 - 영화제(음악 관련 영화 상영).
 - 악기 수리코너 운영.

제 2 절 분석 결과

1. 제주도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은 남성 194명(48.5%), 여성 206명(51.5%)로 나타났다.
- 연령은 20대 110명(27.5%), 30대 85명(21.3%), 40대 81명(20.3%), 50대 50명(12.5%), 60대 이상 74명(18.5%)로 나타났다.
- 학력은 중졸이하 99명(24.8%), 고졸 136명(34.0%), 대졸 이상 165명(41.3%)로 나타났다.
- 직업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65명(16.3%), 사무행정 42명(10.5%), 자영 및 서비스 48명(12.0%), 공무원 16명(4.0%), 전문직 17명(4.3%), 학생 63명(15.8%), 주부 105명(26.3%), 무직 및 기타 44명(11.0%)로 나타났다.
- 거주지는 제주시 177명(44.3%), 서귀포시 73명(18.3%), 북제주군 80명(20.0%), 남제주군 70명(17.5%)로 나타났다.

<표 6-11> 인구통계학적 특성(제주도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변 수				사 례 수	%
성 별	남		성	194	48.5
	여		성	206	51.5
연 령	20		대	110	27.5
	30		대	85	21.3
	40		대	81	20.3
	50		대	50	12.5
	60	대 이	상	74	18.5
학 력	중	졸	이	99	24.8
	고		하	136	34.0
	대	졸	상	165	41.3
직 업	농 · 립 · 어 · 축	산	업	65	16.3
	사	무	행	42	10.5
	자	영	및 서 비	48	12.0
	공	무	원	16	4.0
	전	문	직	17	4.3
	학		생	63	15.8
	주		부	105	26.3
	무 직 및 기	타	직 업	44	11.0
거주지	제	주	시	177	44.3
	서	귀	포	73	18.3
	북	제	주	80	20.0
	남	제	주	70	17.5
전				400	100.0

나. 제주지역 축제 인지도

- 인지도가 가장 높은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22.6%가 ‘유채꽃 잔치’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8.6%가 ‘한라산 눈꽃 축제’, 9.6%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순으로 조사되었다.
- 기타축제로는 ‘제주감귤축제’, ‘바다축제’, ‘한여름밤의 대축제’, ‘제주 레저스포츠 축제’, ‘용연선상음악회’,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표선백사축제’, ‘오름축제’ 등으로 나타났다.

<표 6-12> 제주지역 축제 인지도

구 분	구성비(%)
고사리꺾기대회	3.3
제주국제관악제	1.9
한라산눈꽃축제	18.6
정월대보름들불축제	9.6
세계섬문화축제	3.5
억새꽃축제	6.9
왕벚꽃축제	5.9
유채꽃잔치	22.6
성산일출제	3.6
서귀포칠선녀축제	4.8
서귀포칠십리축제	7.9
한라문화제	8.6
기타 축제	2.9
계	100

다. 제주지역 축제 개최 회수 적정성

- 현재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 42.8%가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0.8%는 ‘더 많이 개최’, 26.5%는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6-13> 제주지역 축제 개최회수 적정성

구 분	구성비(%)
지금 수준이 적당	42.8
더 많이 개최	30.8
현재보다 줄여야 함	26.5
계	100

라. 제주지역 축제의 기여도

☐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도

- 제주지역 축제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35.0%가 '기여하는 편', 3.5%는 '매우 기여함'이라고 응답하여 38.5%가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 '기여하지 않는 편'은 19.3%, '전혀 기여하지 않음' 2.5%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21.8%로 조사되어 제주지역 주민들은 제주지역 관광문화 축제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대체로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6-14> 제주지역 축제의 기여도

구 분	구성비(%)
전혀 기여하지 않음	2.5
기여하지 않음	19.3
그저 그렇다	39.8
기여하는 편임	35.0
매우 기여함	3.5
계	100

☐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도

-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가 관광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4.3%가 '기여하는 편', 9.3%는 '매우 기여함'이라고 응답하여 53.6%가 기여한다

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 ‘기여하지 않는 편’은 8.3%, ‘전혀 기여하지 않음’ 0.8%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9.1%로 조사되어 제주지역 주민들은 제주지역 축제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15>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도

구 분	구성비(%)
전혀 기여하지 않음	0.8
기여하지 않음	8.3
그저 그렇다	37.5
기여하는 편임	44.3
매우 기여함	9.3
계	100

□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가 지역문화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1.8%가 ‘기여하는 편’, 9.3%는 ‘매우 기여함’이라고 응답하여 51.2%가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 ‘기여하지 않는 편’은 9.5%, ‘전혀 기여하지 않음’ 1.0%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10.5%로 조사되어 제주지역 주민들은 제주지역 관광문화 축제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표 6-16>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구 분	구성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1.0
기여하지 않았다	9.5
그저 그렇다	38.5
기여하는 편이다	41.8
매우 기여했다	9.3
계	100

마.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미지가 반영된 제주지역 축제

-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미지가 반영된 제주지역 축제에 대해 27.0%가 ‘유채꽃 잔치’라고 응답하였으며 15.3%는 ‘한라문화제’, 11.0%는 ‘한라산 눈꽃축제’ 순으로 조사되었다.
-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미지가 반영된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가 ‘없다’는 의견도 15.8%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축제로는 ‘한여름밤의 대축제’, ‘제주 레저스포츠 축제’, ‘오름축제’ 등으로 나타났다.

<표 6-17>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미지가 반영된 제주지역 축제

구 분	구성비(%)
제주감귤축제	1.3
고사리꺼기대회	1.3
제주국제관악제	0.8
한라산눈꽃축제	11.0
정월대보름들불축제	8.5
세계섬문화축제	3.3
억새꽃축제	3.3
왕벚꽃축제	0.5
유채꽃잔치	27.0
성산일출제	4.3
서귀포칠선녀축제	2.3
서귀포칠십리축제	5.0
한라문화제	15.3
기타 축제	0.8
없다	0.8
계	100

바. 예산을 확대하여 규모를 늘려야 할 제주지역 축제

- 예산을 확대하여 규모를 늘려야 할 제주지역 축제에 대해 15.0%가 ‘한라산 눈꽃 축제’라고 응답하였으며 13.0%는 ‘유채꽃 잔치’, 7.5%는 ‘한라문화제’ 순으로 조사되었다.
- ‘모르겠다’는 응답은 39.8%, ‘없다’는 1.8%로 나타났으며 기타축제로는 ‘바다축제’, ‘제주감귤축제’, ‘한여름밤의 대축제’, ‘오름축제’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6-18> 예산을 확대하여 규모를 늘려야 할 제주지역 축제

구 분	구성비(%)
고사리꺾기대회	1.0
제주국제관악제	0.8
한라산눈꽃축제	15.0
정월대보름들불축제	3.0
세계섬문화축제	3.8
억새꽃축제	1.5
유채꽃잔치	13.0
성산일출제	3.8
서귀포칠선녀축제	1.0
서귀포칠십리축제	6.0
한라문화제	7.5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1.0
기타 축제	1.3
없다	1.8
모르겠다	39.8
계	100

2. 축제 참여자 의견조사

가. 지역주민 의견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은 남성 630명(61.4%), 여성 396명(38.6%)로 나타났다.
- 연령은 20대 123명(12.0%), 30대 408명(39.8%), 40대 311명(30.3%), 50대 이상 184명(17.9%)로 나타났다.
- 학력은 고졸이하 403명(39.3%), 고졸 219명(21.3%), 대졸 이상 404명(39.4%)로 나타났다.
- 직업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55명(5.4%), 사무행정 80명(7.8%), 자영업 108명(10.5%), 서비스업 79명(7.7%), 공무원 140명(13.6%), 전문직 103명(10.0%), 학생 306명(29.8%), 주부 104명(10.1%), 무직 및 기타 51명(5.0%)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197명(19.2%), 100~150만원 231명(22.5%), 150~200만원

181명(17.6%), 200~250만원 132명(12.9%), 250만원 이상 285명(27.8%)로 나타났다.

- 거주지는 제주시 574명(55.9%), 서귀포시 236명(23.0%), 북제주군 119명(11.6%), 남제주군 97명(9.5%)로 나타났다.
- 축제별로는 들불축제 170명(16.6%), 유채꽃잔치 206명(20.1%), 칠선녀축제 193명(18.8%), 국제시민마라톤축제 125명(12.2%),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182명(17.7%), 제주국제관악제 150명(14.6%)로 나타났다.

<표 6-19> 인구통계학적 특성(조사대상 축제에 참가한 지역주민)

	변 수					사 례 수	%
성 별	남				성	630	61.4
	여				성	396	38.6
연 령	20				대	123	12.0
	30				대	408	39.8
	40				대	311	30.3
	50	대	이		상	184	17.9
학 령	고	졸	이	하		403	39.3
	전	문	대	졸		219	21.3
	대	졸	이	상		404	39.4
직 업	농	림	어	축	산	55	5.4
	사	무	영	행	업	80	7.8
	자	비	스	업	업	108	10.5
	공			원	업	79	7.7
	전			직	업	140	13.6
	학			생	부	103	10.0
	주			업	업	306	29.8
	무	직	기	타	직	104	10.1
						51	5.0
가구소득	100	만	원	미	만	197	19.2
	100	-	150	만	원	231	22.5
	150	-	200	만	원	181	17.6
	200	-	250	만	원	132	12.9
	250	만	원	이	상	285	27.8
거주지	제		주	시		574	55.9
	서		포	시		236	23.0
	북		주	군		119	11.6
	남		주	군		97	9.5
축제별	들	불	축	제		170	16.6
	유	채	꽃	잔		206	20.1
	서	귀	포	칠		193	18.8
	국	제	시	민		125	12.2
	제	주	레	저		182	17.7
	국	제	관	악		150	14.6
전				체		1,026	100.0

2) 일반적 사항

가) 제주도 축제 참여 경험

- 이전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76.4%는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3.6%는 축제에 처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0> 제주도 축제 참여 경험

구 분	구성비(%)
경험이 있다	76.4
경험이 없다	23.6
계	100

나) 해당 축제 참여 경험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60.4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와 ‘레저스포츠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처음 참가한다’(61.6%, 57.1%)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들불축제’와 ‘국제관악제’는 ‘2번째’(32.9%, 32.0%), ‘유채꽃 큰 잔치’는 ‘3번째’(23.8%)와 ‘4번 이상’(13.1%), ‘서귀포 칠선녀 축제’는 ‘4번 이상’(11.9%) 참가한다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21> 해당 축제 참여 경험

구 분		처음	2번째	3번째	4번이상	통계량
축제별	들불축제	48.8	32.9	11.8	6.5	$\chi^2=60.45$ $p=.000$
	유채꽃잔치	38.8	24.3	23.8	13.1	
	칠선녀축제	42.0	30.1	16.1	11.9	
	마라톤축제	61.6	24.8	11.2	2.4	
	레저스포츠	57.1	27.5	9.9	5.5	
	국제관악제	52.0	32.0	14.7	1.3	

다) 축제 분위기 느낌 정도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5.06$,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가 3.6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주레저스포츠 축제’ 3.528점, ‘국제관악제’ 3.413점,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3.368점, ‘유채꽃 큰잔치’ 3.282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145점 순으로 나타나 축제별로 축제 분위기의 느낌 정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2> 축제 분위기 느낌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못느낌	못 느낌	보통	다소 느낌	많이 느낌	평균	통계량
축제별	들불축제	2.9	10.0	31.2	33.5	22.4	3.624	$F=5.06$ $p=.000$
	유채꽃잔치	6.3	10.7	46.1	22.3	14.6	3.282	
	칠선녀축제	4.1	16.6	48.7	21.8	8.8	3.145	
	마라톤축제	4.0	12.0	45.6	20.0	18.4	3.368	
	레저스포츠	2.2	14.3	34.1	27.5	22.0	3.528	
	국제관악제	4.0	14.7	36.0	26.7	18.7	3.413	

라) 축제에 참가한 주 목적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259.0$,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가족/친지/친구 등과 여가시간을 보내려고’(50.0%)와 ‘행사 자체에 대한 호기심’(23.5%)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채꽃 큰잔치’는 ‘가족/친지/친구 등과 여가시간을 보내려고’(51.5%)와 ‘자녀의 교육적 목적으로’(10.2%), ‘서귀포 칠선녀 축제’와 ‘레저스포츠 축제’는 ‘가족/친지/친구 등과 여가시간을 보내려고’(48.7%, 54.9%),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18.4%)와 ‘개인적 이유(건강 증진 목적)’(36.8%), ‘국제관악제’는 ‘개인적 이유(문화지식 증진 목적)’(20.0%)와 ‘기타’(12.0%)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이 결과 ‘국제시민마라톤 축제’와 ‘국제관악제’는 ‘개인적 이유(건강, 문화지식 증진 목적)’, 나머지 ‘들불축제’와 ‘유채꽃 큰잔치’, ‘서귀포 칠선녀 축제’, ‘레저스포츠 축제’는 ‘여가시간을 보낼려고’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3> 축제에 참가한 주 목적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여가 시간	교육 목적	호기 심	문화 이해	주위 권유	개인 이유	여행 도중	기 타	통계량
축제별	들불축제	50.0	8.2	23.5	6.5	4.1	3.5	0.6	3.5	$\chi^2=259.0$ $p=.000$
	유채꽃잔치	51.5	10.2	18.9	4.9	5.3	2.4	2.9	3.9	
	칠선녀축제	48.7	7.3	17.6	5.2	2.1	5.2	8.3	5.7	
	마라톤축제	15.2	4.8	9.6	4.8	18.4	36.8	0.8	9.6	
	레저스포츠	54.9	5.5	14.3	4.4	8.8	8.8	3.3	0.0	
	국제관악제	26.7	8.0	20.0	2.7	8.0	20.0	2.7	12.0	

마) 축제 동행인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287.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와 ‘유채꽃 큰 잔치’, ‘서귀포 칠선녀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가족/친지’(61.8%, 54.9%, 51.8%)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레저스포츠 축제’와 ‘국제관악제’는 ‘친구’(46.2%, 53.3%),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직장 동료’(34.4%) 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24> 축제 동행인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연인	혼자	기 타	통계량
축제별	들불축제	61.8	22.9	8.8	4.7	0.6	1.2	$\chi^2=287.5$ $p=.000$
	유채꽃잔치	54.9	27.7	4.9	5.3	3.9	3.4	
	칠선녀축제	51.8	30.6	7.8	5.2	2.6	2.1	
	마라톤축제	21.6	24.0	34.4	17.6	0.8	1.6	
	레저스포츠	36.3	46.2	2.2	3.3	11.0	1.1	
	국제관악제	20.0	53.3	2.7	12.0	0.6	8.0	

바) 축제 참가 결정시기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260.0$,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채꽃 큰 잔치’는 다른 축제에 비해 ‘행사시작 1~2주전’(26.2%)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칠선녀 축제’는 ‘행사시작 당일’(47.7%),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행사시작 1~2주전’(39.2%)과 ‘행사시작 3주 이

상'(46.4%), '레저 스포츠 축제'는 '행사시작 2~3주전'(42.9%)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조사되어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25> 축제 참가 결정 시기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행사시작 당일	행사 시작 1-2주전	행사시작 2-3주전	행사시작 3주 이상	통계량
축제별	들불축제	30.6	20.0	34.7	14.7	$\chi^2=260.0$ $p=.000$
	유채꽃잔치	27.7	26.2	35.9	10.2	
	칠선녀축제	47.7	15.0	31.1	6.2	
	마라톤축제	1.6	39.2	12.8	46.4	
	레저스포츠	37.4	15.4	42.9	4.4	
	국제관악제	52.0	8.0	14.7	25.3	

사) 축제에 대한 정보 입수 경로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267.3$,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와 '유채꽃 큰 잔치'는 '라디오와 TV'(51.2%, 50.0%)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 칠선녀 축제'는 '거리의 플래카드'(24.4%),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신문이나 잡지'(16.8%)와 '주위 사람'(41.6%), '레저스포츠 축제'는 '각종 팜플렛'(15.4%)과 '거리의 플래카드'(25.3%), '주위사람'(34.1%), '국제관악제'는 '각종 팜플렛'(16.0%)과 '주위사람'(32.0%)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26> 축제 정보 입수 경로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신문 잡지	라디오 TV	팜플렛	인터넷	플랜 카드	주위 사람	기 타	통계량
축제별	들불축제	18.2	51.2	5.3	1.2	11.8	10.6	1.8	$\chi^2=267.3$ $p=.000$
	유채꽃잔치	14.1	50.0	3.9	1.0	13.1	13.6	4.4	
	칠선녀축제	8.8	19.2	8.3	1.0	24.4	30.1	8.3	
	마라톤축제	16.8	12.0	10.4	3.2	6.4	41.6	9.6	
	레저스포츠	5.5	5.5	15.4	5.5	25.3	34.1	8.8	
	국제관악제	9.3	17.3	16.0	2.7	16.0	32.0	6.7	

아)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227.6$,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와 '유채꽃 큰 잔치'는 '자가용'(87.6%, 83.0%)이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 칠선녀 축제'와 '국제 관악제'는 '시내외 버스'(29.5%, 36.0%), '국제시민마라톤 축제'와 '국제관악제'는 '기타'(11.2%, 14.7%)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시외곽지에서 열린 '들불 축제'와 유채꽃 큰잔치'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시내외서 개최된 '서귀포 칠선녀 축제'와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국제관악제'는 '시내외버스'와 '기타' 교통수단을 다른 축제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7>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자가용	시내외 버스	관광 버스	택시	렌트카	기 타	통계량
축제별	들불축제	87.6	4.1	2.4	1.2	2.4	2.4	$\chi^2=227.6$ $p=.000$
	유채꽃잔치	83.0	9.7	2.4	1.0	0.5	3.4	
	칠선녀축제	62.7	29.5	0.5	1.6	0.0	5.7	
	마라톤축제	68.8	12.0	0.0	7.2	0.8	11.2	
	레저스포츠	59.3	15.4	3.3	8.8	8.8	4.4	
	국제관악제	37.3	36.0	2.7	9.3	0.0	14.7	

3) 만족도

가) 접근성

- ①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쉽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24.8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6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관악제 3.333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306점, 들불축제 3.294점 순으로 조사되었으

며 레저스포츠 축제와 유채꽃 큰 잔치는 각각 2.703점, 2.597점으로 나타나 다른 축제에 비해 행사장까지 오기가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8>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쉽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축제별	들불축제	7.1	10.0	37.1	38.2	7.6	3.294	F=24.85 p=.000
	유채꽃잔치	26.2	20.9	27.2	18.4	7.3	2.597	
	칠선녀축제	4.1	12.4	42.0	31.6	9.8	3.306	
	마라톤축제	2.4	5.6	32.0	40.0	20.0	3.696	
	레저스포츠	25.3	13.2	36.3	16.5	8.8	2.703	
	국제관악제	4.0	14.7	38.7	29.3	13.3	3.333	

②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9.21$,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4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들불축제가 3.194점으로 긍정적으로 조사된 반면, 국제 관악제 2.933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917점, 유채꽃 큰 잔치 2.888점, 레저스포츠 축제 2.791점으로 평점 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6-29>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8.2	15.3	34.7	32.4	9.4	3.194	F=9.21 p=.000
	유채꽃잔치	14.1	15.5	41.7	24.8	3.9	2.888	
	칠선녀축제	5.2	19.7	56.5	15.5	3.1	2.917	
	마라톤축제	3.2	8.8	36.8	39.2	12.0	3.480	
	레저스포츠	15.4	24.6	30.8	18.7	8.8	2.791	
	국제관악제	6.7	26.7	38.7	22.7	5.3	2.933	

나) 행사장내 시설

①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41.67$,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4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들불축제가 3.377점, 국제관악제 2.907점, 레저스포츠 2.615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456점, 유채꽃 큰 잔치 2.218점 순으로 조사되어 들불축제와 마라톤 축제 참여자는 긍정적인 인식을, 나머지 국제관악제, 레저스포츠, 칠선녀, 유채꽃 잔치 참여자는 주차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 6-30>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5.3	12.9	30.6	41.2	10.0	3.377	F=41.67 p=.000
유채꽃잔치	30.6	29.6	28.6	9.7	1.5	2.218	
칠선녀축제	17.1	30.1	43.5	8.8	0.5	2.456	
마라톤축제	2.4	7.2	36.0	48.0	6.4	3.488	
레저스포츠	25.3	20.9	27.5	19.8	6.6	2.615	
국제관악제	13.3	13.3	44.0	28.0	1.3	2.907	

②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9.33$,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관악제가 3.2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귀포 칠선녀 축제 2.886점,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2.848점, 레저스포츠 축제 2.560점, 들불축제 2.341점, 유채꽃 큰 잔치 2.335점 순으로 조사되어 국제 관악제 참여자는 휴식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머지 축제 참여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연령별로 휴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표 6-31>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8.8	41.2	28.2	10.6	1.2	2.341	F=19.33 p=.000
유채꽃잔치	18.9	41.3	29.6	7.8	2.4	2.335	
칠선녀축제	7.3	25.4	42.5	21.2	3.6	2.886	
마라톤축제	8.8	24.0	43.2	21.6	2.4	2.848	
레저스포츠	25.3	28.6	22.0	13.2	11.0	2.560	
국제관악제	6.7	9.3	44.0	37.3	2.7	3.200	

③ 화장실이 청결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29.72$,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관악제가 3.3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귀포 칠선녀 축제 3.238점,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2.936점, 유채꽃 큰 잔치 2.704점, 레저스포츠 축제 2.517점, 들불축제 2.353점 순으로 조사되어 국제 관악제 참여자는 화장실 청결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머지 축제 참가자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2> ‘화장실이 청결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20.6	32.9	38.2	7.1	1.2	2.353	F=29.72 p=.000
유채꽃잔치	14.1	19.9	50.0	13.6	2.4	2.704	
칠선녀축제	3.6	8.3	53.4	30.1	4.7	3.238	
마라톤축제	7.2	19.2	51.2	17.6	4.8	2.936	
레저스포츠	27.5	22.0	28.6	15.4	6.6	2.517	
국제관악제	5.3	4.0	42.7	44.0	4.0	3.373	

④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2.68$,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0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귀포

칠선녀 축제 2.824점, 들불축제 2.747점, 레저스포츠 축제 2.725점, 유채꽃 큰 잔치 2.718점, 국제 관악제 2.707점 순으로 조사되어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참여자는 행사장 안내 표지판 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머지 축제 참여자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3>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1.8	32.9	28.8	21.8	4.7	2.747	F=2.68 p=.021
유채꽃잔치	11.7	26.2	43.2	16.5	2.4	2.718	
칠선녀축제	7.3	22.3	51.8	18.1	0.5	2.824	
마라톤축제	4.8	18.4	46.4	27.2	3.2	3.056	
레저스포츠	15.4	26.4	35.2	16.5	6.6	2.725	
국제관악제	8.0	26.7	52.0	13.3	0.0	2.707	

⑤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3.13,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가 2.8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2.856점, 레저스포츠 축제 2.703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689점, 국제 관악제 2.600점, 유채꽃 큰 잔치 2.54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34>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축제별	들불축제	5.9	30.6	39.4	20.0	4.1	2.859	F=3.13 p=.008
	유채꽃잔치	12.6	32.5	43.2	10.7	1.0	2.549	
	칠선녀축제	9.8	28.0	46.1	15.5	0.5	2.689	
	마라톤축제	4.0	28.0	47.2	20.0	0.8	2.856	
	레저스포츠	17.6	24.2	37.4	12.1	8.8	2.703	
	국제관악제	8.0	38.7	40.0	12.0	1.3	2.600	

⑥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2.48$,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들불축제 2.994점, 유채꽃 큰 잔치 2.893점, 국제 관악제 2.880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736점, 레저스포츠 축제 2.582점 순으로 조사되어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참여자는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나머지 축제 참여자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5>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6.5	22.9	41.2	23.5	5.9	2.994	F=12.48 p=.000
유채꽃잔치	7.8	24.8	42.7	19.9	4.9	2.893	
칠선녀축제	8.3	24.4	53.4	13.5	0.5	2.736	
마라톤축제	2.4	8.0	47.2	32.0	10.4	3.400	
레저스포츠	18.7	30.8	31.9	11.0	7.7	2.582	
국제관악제	6.7	20.0	53.3	18.7	1.3	2.880	

다) 환대성

①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5.68$,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5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들불축제 3.247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192점, 유채꽃 큰 잔치 3.112점, 국제관악제 2.853점, 레저스포츠 축제 2.824점 순으로 조사되어 국제시민마라톤 축제와 들불축제, 서귀포 칠선녀 축제, 유채꽃 큰 잔치 참여자는 행사 안내요원 및 관리요원이 친절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레저스포츠 축제와 국제관악제 참여자는 친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6>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4.1	8.8	51.2	30.0	5.9	3.247	F=15.68 p=.000
유채꽃잔치	5.3	13.1	51.0	26.2	4.4	3.112	
칠선녀축제	3.6	8.8	54.9	30.1	2.6	3.192	
마라톤축제	1.6	5.6	38.4	40.8	13.6	3.592	
레저스포츠	12.1	23.1	42.9	14.3	7.7	2.824	
국제관악제	6.7	9.3	76.0	8.0	0.0	2.853	

② 지역주민이 친절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1.12$,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5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들불축제 3.424점, 유채꽃 큰 잔치 3.267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244점, 국제관악제 3.133점, 레저스포츠 축제 2.912점 순으로 조사되어 레저스포츠 축제 참여자는 지역주민이 친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머지 축제 참여자는 친절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7> '지역주민이 친절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2	5.9	49.4	36.5	7.1	3.424	F=11.12 p=.000
유채꽃잔치	2.4	7.8	55.3	29.6	4.9	3.267	
칠선녀축제	2.1	10.4	53.9	28.5	5.2	3.244	
마라톤축제	0.0	5.6	45.6	39.2	9.6	3.528	
레저스포츠	9.9	20.9	44.0	18.7	6.6	2.912	
국제관악제	2.7	13.3	54.7	26.7	2.7	3.133	

③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3.34$,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1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귀포 칠선녀 축제 3.130점, 들불축제 3.100점, 유채꽃 큰 잔치 3.029점, 레저스포츠 축제

2.923점, 국제관악제 2.867점순으로 조사되어 레저스포츠 축제와 국제관악제 참여자는 관광종사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부정적인 인식, 나머지 축제 참여자는 친절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8>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축제별	들불축제	2.4	15.3	55.3	24.1	2.9	3.100	F=3.34 p=.005
	유채꽃잔치	3.9	16.0	56.8	19.9	3.4	3.029	
	칠선녀축제	2.6	13.5	56.0	24.4	3.6	3.130	
	마라톤축제	0.8	15.2	53.6	24.8	5.6	3.192	
	레저스포츠	14.3	13.2	48.4	14.3	9.9	2.923	
	국제관악제	6.7	14.7	64.0	14.7	0.0	2.867	

라) 행사내용

① 행사내용이 흥미롭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7.14$,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관악제가 3.2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120점, 레저스포츠 축제 2.956점, 들불축제 2.947점, 유채꽃 큰 잔치 2.583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554점 순으로 조사되어 국제관악제와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참여자는 행사 내용이 흥미롭다는 긍정적인 인식, 나머지 축제 참여자는 흥미롭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9> ‘행사 내용이 흥미롭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축제별	들불축제	5.9	19.4	51.2	21.2	2.4	2.947	F=17.14 p=.000
	유채꽃잔치	11.7	30.6	47.1	9.2	1.5	2.583	
	칠선녀축제	14.5	26.4	50.3	6.7	2.1	2.554	
	마라톤축제	3.2	15.2	52.0	25.6	4.0	3.120	
	레저스포츠	13.2	17.6	36.3	26.4	6.6	2.956	
	국제관악제	5.3	13.3	32.0	45.3	4.0	3.293	

② 행사 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9.86$,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2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관악제 3.187점, 들불축제 3.135점, 레저스포츠 축제 3.044점, 유채꽃 큰 잔치 2.850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689점 순으로 조사되어 유채꽃 큰 잔치와 서귀포 칠선녀 축제 참여자는 행사 내용이 제주도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머지 축제 참여자는 이미지에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40> ‘행사 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4.1	20.0	40.6	28.8	6.5	3.135	F=9.86 p=.000
유채꽃잔치	5.8	24.8	50.5	16.5	2.4	2.850	
칠선녀축제	12.4	25.9	42.5	18.7	0.5	2.689	
마라톤축제	1.6	16.8	36.0	41.6	4.0	3.296	
레저스포츠	9.9	19.8	34.1	28.6	7.7	3.044	
국제관악제	4.0	14.7	44.0	33.3	4.0	3.187	

마) 식음료

- 국제시민마라톤 축제에서는 식음료 제공시설이 없어서 만족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①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4.33$,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 관악제가 2.5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채꽃 큰 잔치 2.422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358점, 들불축제 2.306점, 레저스포츠 축제 2.154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41>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24.7	26.5	43.5	4.1	1.2	2.306	F=4.33 p=.002
유채꽃잔치	17.5	28.2	49.5	4.4	0.5	2.422	
칠선녀축제	21.8	28.0	43.0	7.3	0.0	2.358	
레저스포츠	39.6	27.5	15.4	13.2	4.4	2.154	
국제관악제	13.3	26.7	49.3	10.7	0.0	2.573	

②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4.99$,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레저스포츠 축제가 2.2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관악제 2.693점, 들불축제 2.618점, 유채꽃 큰 잔치 2.587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539점, 레저스포츠 축제 2.275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42>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4.1	28.2	41.8	13.5	2.4	2.618	F=4.99 p=.001
유채꽃잔치	10.2	30.1	51.9	6.3	1.5	2.587	
칠선녀축제	15.0	26.4	48.2	10.4	0.0	2.539	
레저스포츠	31.9	30.8	19.8	13.2	4.4	2.275	
국제관악제	8.0	30.7	48.0	10.7	2.7	2.693	

③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8.0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채꽃 큰 잔치가 2.7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들불축제 2.624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472점, 레저스포츠 축제 2.286점, 국제 관악제 2.253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43>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7.1	22.9	42.4	15.9	1.8	2.624	F=8.05 p=.000
유채꽃잔치	13.1	19.9	50.0	16.0	1.0	2.718	
칠선녀축제	18.1	28.0	43.0	10.4	0.5	2.472	
레저스포츠	31.9	27.5	25.3	11.0	4.4	2.286	
국제관악제	14.7	48.0	34.7	2.7	0.0	2.253	

④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6.54,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관악제가 2.7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귀포 칠선녀 축제 2.679점, 들불축제 2.529점, 유채꽃 큰 잔치 2.495점, 레저스포츠 축제 2.286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44>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2.9	32.4	45.3	7.6	1.8	2.529	F=6.54 p=.000
유채꽃잔치	13.6	27.7	54.9	3.4	0.5	2.495	
칠선녀축제	10.9	21.8	57.5	8.3	1.6	2.679	
레저스포츠	34.1	20.9	31.9	8.8	4.4	2.286	
국제관악제	5.3	28.0	56.0	10.7	0.0	2.720	

바) 기념품

- 국제시민마라톤 축제에서는 기념품 제공시설이 없어서 만족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①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4.63,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들불축제가 2.5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채꽃 큰 잔치 2.544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378점, 국제관악제 2.307점, 레저스포츠 축제 2.253 점 순이다.

<표 6-45>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0.6	27.1	59.4	2.4	0.6	2.553	F=4.63 p=.001
유채꽃잔치	9.7	29.6	58.7	0.5	1.5	2.544	
칠선녀축제	16.1	33.2	47.7	3.1	0.0	2.378	
레저스포츠	33.0	26.4	27.5	8.8	4.4	2.253	
국제관악제	17.3	38.7	40.0	4.0	0.0	2.307	

②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4.41,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가 2.5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관악제 2.480 점, 유채꽃 큰 잔치 2.471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373점, 레저스포츠 축제 2.220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46>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6.5	32.9	55.3	5.3	0.0	2.594	F=4.41 p=.001
유채꽃잔치	13.1	30.1	54.4	1.5	1.0	2.471	
칠선녀축제	15.5	39.4	38.3	5.7	1.0	2.373	
레저스포츠	37.4	23.1	24.2	11.0	4.4	2.220	
국제관악제	14.7	30.7	48.0	5.3	1.3	2.480	

③ 기념품의 질이 좋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5.27,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들불축제가 2.6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채꽃 큰 잔치 2.631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529점, 국제관악제 2.440점, 레저스포츠 축제 2.31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47> '기념품의 질이 좋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5.9	24.1	66.5	3.5	0.0	2.677	F=5.27 p=.000
유채꽃잔치	7.8	25.2	64.1	1.9	1.0	2.631	
칠선녀축제	11.4	26.9	59.1	2.6	0.0	2.529	
레저스포츠	36.3	20.9	22.0	16.5	4.4	2.319	
국제관악제	12.0	36.0	49.3	1.3	1.3	2.440	

④ 기념품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0.60,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관악제가 2.8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채꽃 큰 잔치 2.675점, 들불축제 2.659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534점, 레저스포츠 축제 2.24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48> '기념품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7.1	29.4	54.1	9.4	0.0	2.659	F=10.60 p=.000
유채꽃잔치	11.2	21.8	56.8	8.7	1.5	2.675	
칠선녀축제	15.0	29.0	44.0	11.4	0.5	2.534	
레저스포츠	36.3	24.2	22.0	14.3	3.3	2.242	
국제관악제	6.7	26.7	41.3	24.0	1.3	2.867	

⑤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총 지출 경비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340.3$,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채꽃 큰 잔치’와 ‘서귀포 칠선녀 축제’, ‘국제관악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지출하지 않음’(44.7%, 45.6%, 50.7%)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들불축제’는 ‘5만원 미만’(70.0%)과 ‘5만원~10만원’(21.8%),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5만원 미만’(52.8%), ‘레저스포츠 축제’는 ‘10~15만원’(11.0%)과 ‘20만원 이상’(20.9%)이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49> ‘총 지출 경비’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지출 안함	5만원 미만	5-10 만원	10-15만 원	15-20만 원	20만원 이상	통계량
들불축제	0.0	70.0	21.8	2.9	1.2	4.1	$\chi^2=340.3$ $p=.000$
유채꽃잔치	44.7	39.8	10.7	2.9	0.5	1.5	
칠선녀축제	45.6	30.6	13.0	7.3	0.5	3.1	
마라톤축제	36.0	52.8	8.0	0.8	0.8	1.6	
레저스포츠	25.3	22.0	12.1	11.0	8.8	20.9	
국제관악제	50.7	42.7	2.7	1.3	0.0	2.7	

5) 축제 전반적인 만족도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23.54$,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6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관악제 3.307점, 레저스포츠 축제 3.154점, 들불축제 3.012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907점, 유채꽃 큰 잔치 2.835점 순으로 조사되어 유채꽃 큰 잔치와 서귀포 칠선녀 축제 참여자는 전반적으로 불만족했다는 부정적인 인식, 나머지 축제 참여자는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50> ‘축제 전반적인 만족도’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4.1	15.3	56.5	23.5	0.6	3.012	F=23.54 p=.000
유채꽃잔치	2.9	23.8	61.2	11.2	1.0	2.835	
칠선녀축제	4.1	14.5	68.9	11.4	1.0	2.907	
마라톤축제	0.8	2.4	36.0	57.6	3.2	3.600	
레저스포츠	2.2	20.9	41.8	29.7	5.5	3.154	
국제관악제	0.0	4.0	64.0	29.3	2.7	3.307	

6) 재참가 의사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20.6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4.3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들불축제 3.665점, 국제관악제 3.453점, 레저스포츠 축제 3.451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435점, 유채꽃 큰 잔치 3.335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51> ‘재참가 의사’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 겠다	아마 올 것이다	반드시 오겠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2.9	8.2	28.2	40.6	20.0	3.665	F=20.65 p=.000
유채꽃잔치	3.4	12.6	41.3	32.5	10.2	3.335	
칠선녀축제	3.1	8.8	40.4	36.8	10.9	3.435	
마라톤축제	0.0	1.6	22.4	16.0	60.0	4.344	
레저스포츠	5.5	5.5	52.7	11.0	25.3	3.451	
국제관악제	2.7	9.3	41.3	33.3	13.3	3.453	

7) 추천의사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95.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채꽃 큰 잔치’와 ‘서귀포 칠선녀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추천할 의사가 없음’(30.6%, 26.4%)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들불축제’와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국제관악제’는 ‘추천할 의사가 있음’(60.0%, 84.0%, 60.0%), ‘서귀포 칠선녀 축제’와 ‘레저스포츠 축제’는 ‘모르겠다’(35.2%, 36.3%)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52> ‘추천 의사’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추천할 의사가 있음	추천할 의사가 없음	모르겠다	통계량
들불축제	60.0	17.1	22.9	$\chi^2=95.5$ $p=.000$
유채꽃잔치	43.7	30.6	25.7	
칠선녀축제	38.3	26.4	35.2	
마라톤축제	84.0	4.8	11.2	
레저스포츠	45.1	18.7	36.3	
국제관악제	60.0	14.7	25.3	

나. 관광객 의견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은 남성 926명(68.6%), 여성 423명(31.4%)로 나타났다.
- 연령은 20대 674명(50.0%), 30대 399명(29.6%), 40대 228명(16.9%), 50대 이상 48명(3.6%)로 나타났다.
- 학력은 고졸이하 260명(19.3%), 전문대졸 211명(15.6%), 대졸 이상 878명(65.1%)로 나타났다.
- 직업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19명(1.4%), 사무행정 153명(11.3%), 자영업 104명(7.7%), 서비스업 85명(6.3%), 공무원 322명(23.9%), 전문직 173명(12.8%), 학생 311명(23.1%), 주부 79명(5.9%), 무직 및 기타 103명(7.6%)로 나타났다.
-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 208명(15.4%), 100~150만원 298명(22.1%), 150~200만원 242명(17.9%), 200~250만원 244명(18.1%), 250만원 이상 357명(26.5%)로 나타났다.
- 축제별로는 들불축제 207명(15.3%), 유채꽃잔치 248명(18.4%), 칠선녀축제 232명(17.2%), 국제시민마라톤축제 216명(16.0%),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232명(17.2%), 제주국제관악제 214명(15.9%)로 나타났다.

<표 6-53> 인구통계학적 특성(제주지역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

변 수					사 례 수	%
성 별	남			성	926	68.6
	여			성	423	31.4
연 령	20			대	674	50.0
	30			대	399	29.6
	40			대	228	16.9
	50	대	이	상	48	3.6
학력수준	고	졸	이	하	260	19.3
	전	문	대	졸	211	15.6
	대	졸	이	상	878	65.1
직 업	농 · 립 · 어 · 축		산	업	19	1.4
	사 무		행	정	153	11.3
	자		영	업	104	7.7
	서 비		스	업	85	6.3
	공 무			원	322	23.9
	전 문			직	173	12.8
	학			생	311	23.1
	주			부	79	5.9
	무 직 및 기 타			직 업	103	7.6
가구소득	100 만 원	미	만		208	15.4
	100 - 150 만 원				298	22.1
	150 - 200 만 원				242	17.9
	200 - 250 만 원				244	18.1
	250 만 원 이 상				357	26.5
축제별	들 불 축 제				207	15.3
	유 채 꽃 큰 잔 치				248	18.4
	서 귀 포 칠 선 녀				232	17.2
	국 제 시 민 마 라 톤				216	16.0
	제 주 레 저 스 포 츠				232	17.2
	국 제 관 악 제				214	15.9
전 체					1,349	100.0

2) 일반적 사항

가) 제주도 축제 참여 경험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56.38$,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와 ‘유채꽃 큰 잔치’, ‘국제관악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참여한

경험이 있다'(43.5%, 43.5%, 40.2%)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 칠선녀 축제'와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참여한 경험이 없다'(80.2%, 77.8%)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54> '제주도 축제 참여 경험'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참여경험이 있다	참여경험이 없다	통계량
들불축제	43.5	56.5	$\chi^2=56.38$ $p=.000$
유채꽃잔치	43.5	56.5	
칠선녀축제	19.8	80.2	
마라톤축제	22.2	77.8	
레저스포츠	33.2	66.8	
국제관악제	40.2	59.8	

나) 해당 축제 참여 경험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38.52$,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서귀포 칠선녀 축제'와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처음 참가한다'(87.1%, 84.3%)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관악제'는 '2번째'(15.9%), '들불축제'와 '레저스포츠 축제'는 '3번 이상'(13.0%, 13.8%) 참가한다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55> '축제 참여 경험'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처음	2번째	3번이상	통계량
들불축제	73.9	13.0	13.0	$\chi^2=38.52$ $p=.000$
유채꽃잔치	80.6	12.9	6.5	
칠선녀축제	87.1	9.5	3.4	
마라톤축제	84.3	12.0	3.7	
레저스포츠	72.4	13.8	13.8	
국제관악제	78.0	15.9	6.1	

다) 축제 분위기 느낌 정도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6.31$,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6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 축제’ 3.522점, ‘국제관악제’ 3.257점, ‘유채꽃 큰잔치’ 3.194점, ‘들불축제’ 3.044점 순으로 나타나 축제별로 축제 분위기의 느낌 정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56> ‘축제 분위기 느낌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못느낌	못 느낌	보통	다소 느낌	많이 느낌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3.0	17.4	30.4	30.4	8.7	3.044	F=16.31 p=.000
유채꽃잔치	4.8	17.7	40.3	27.4	9.7	3.194	
칠선녀축제	8.6	24.1	38.8	22.4	6.0	2.931	
마라톤축제	1.9	6.0	37.0	32.9	22.2	3.676	
레저스포츠	3.0	10.3	37.5	29.7	19.4	3.522	
국제관악제	7.5	15.9	34.6	27.6	14.5	3.257	

라) 축제에 참가한 주 목적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470.9$,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가족/친지/친구 등과 여가시간을 보내려고’(47.8%)와 ‘행사자체에 대한 호기심’(21.7%)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채꽃 큰 잔치’는 ‘가족/친지/친구 등과 여가시간을 보내려고’(33.9%), ‘서귀포 칠선녀 축제’와 ‘레저스포츠 축제’, ‘국제 관악제’는 ‘여행도중 잠시 경유’(51.7%, 44.8%, 46.7%),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개인적 이유(건강증진)’(22.7%)와 ‘기타’(24.5%)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조사되어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57> ‘축제에 참가한 주 목적’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여가 시간	교육 목적	호기심	문화 이해	주위 권유	개인 이유	여행 도중	기 타	통계량
들불축제	47.8	0.0	21.7	4.3	4.3	4.3	17.4	0.0	$\chi^2=470.9$ p=.000
유채꽃잔치	33.9	3.2	11.3	8.1	1.6	0.0	32.3	9.7	
칠선녀축제	23.3	0.0	11.2	6.9	1.7	2.6	51.7	2.6	
마라톤축제	13.9	3.7	14.4	0.9	6.5	22.7	13.4	24.5	
레저스포츠	22.4	5.2	13.4	1.7	2.2	8.2	44.8	2.2	
국제관악제	22.9	6.5	16.4	0.0	0.5	6.1	46.7	0.9	

나) 축제 동행인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313.4$,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와 ‘서귀포 칠선녀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가족/친지’(56.5%, 44.0%)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채꽃 큰잔치’와 ‘레저스포츠 축제’, ‘국제관악제’는 ‘친구’(41.9%, 46.6%, 41.6%),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직장동료’(12.5%)와 ‘연인’(23.1%)이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58> ‘축제 동행인’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단체 여행	연인	혼자	기 타	통계량
들불축제	56.5	26.1	4.3	0.0	0.0	13.0	0.0	$\chi^2=313.4$ $p=.000$
유채꽃잔치	24.2	41.9	6.5	1.6	12.9	8.1	4.8	
칠선녀축제	44.0	26.7	7.8	6.0	13.8	0.9	0.9	
마라톤축제	22.2	17.6	12.5	7.9	23.1	5.6	11.1	
레저스포츠	20.3	46.6	5.2	0.9	14.7	11.6	0.9	
국제관악제	36.9	41.6	5.6	0.0	10.7	0.9	4.2	

바) 축제 참가 결정 시기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474.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와 ‘유채꽃 큰 잔치’는 다른 축제에 비해 ‘행사 시작 2~3주 전’(30.4%, 29.0%)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 칠선녀 축제’와 ‘레저스포츠 축제’, ‘국제관악제’는 ‘행사 시작 당일’(73.3%, 50.4%, 65.9%),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행사 시작 3주 이상’(59.7%)이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59> '축제 참가 결정 시기'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행사시작 당일	행사시작 1-2주전	행사시작 2-3주전	행사시작 3주 이상	통계량
들불축제	39.1	17.4	30.4	13.0	$\chi^2=474.5$ p=.000
유채꽃잔치	45.2	16.1	29.0	9.7	
칠선녀축제	73.3	10.3	14.7	1.7	
마라톤축제	7.9	18.1	14.4	59.7	
레저스포츠	50.4	17.2	22.4	9.9	
국제관악제	65.9	9.3	20.1	4.7	

사) 축제에 대한 정보입수 경로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517.2$,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는 '신문이나 잡지'(26.1%)와 '라디오와 TV'(30.4%)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채꽃 큰잔치'는 '라디오와 TV'(19.4%)와 '거리의 플래카드'(29.0%), '서귀포 칠선녀 축제'는 '기타'(25.9%),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인터넷'(22.2%)과 '여행사'(19.4%), '레저스포츠 축제'는 '각종 팜플렛'(22.4%)과 '거리의 플래카드'(34.1%), '국제관악제'는 '거리의 플래카드'(38.3%)이라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60> '축제에 대한 정보입수 경로'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신문 잡지	라디오 TV	팜플렛	인터넷	플랜 카드	여행사	주위 사람	기 타	통계량
들불축제	26.1	30.4	8.7	13.0	13.0	4.3	4.3	0.0	$\chi^2=517.2$ p=.000
유채꽃잔치	3.2	19.4	9.7	4.8	29.0	11.3	16.1	6.5	
칠선녀축제	2.6	7.8	9.5	0.9	28.4	9.5	15.5	25.9	
마라톤축제	10.2	6.9	6.5	22.2	8.3	19.4	18.5	7.9	
레저스포츠	9.9	3.4	22.4	9.9	34.1	6.0	11.2	3.0	
국제관악제	7.0	10.3	7.0	1.9	38.3	2.8	16.4	16.4	

아)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381.6$,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와 '유채꽃 큰 잔치'는 다른 축제에 비해 '자가용'(43.5%, 33.9%)

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 칠선녀 축제’와 ‘레저스포츠 축제’는 ‘렌터카’(41.4%, 65.1%),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관광버스’(34.3%), ‘국제관악제’는 ‘택시’(23.8%)라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어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61>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자가용	시내외 버스	관광 버스	택 시	렌터카	기 타	통계량
들불축제	43.5	8.7	0.0	8.7	34.8	4.3	$\chi^2=381.6$ $p=.000$
유채꽃잔치	33.9	8.1	6.5	11.3	37.1	3.2	
칠선녀축제	24.1	12.1	7.8	11.2	41.4	3.4	
마라톤축제	14.8	10.2	34.3	13.0	21.3	6.5	
레저스포츠	8.6	7.3	1.7	12.9	65.1	4.3	
국제관악제	23.8	11.7	1.9	23.8	29.9	8.9	

3) 만족도

가) 접근성

①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쉽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36.17$,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관악제 3.383점, 들불축제 3.217점, 레저스포츠 축제 3.190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078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채꽃 큰 잔치는 2.403점으로 평점 3점을 넘지 못해 다른 축제에 비해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62>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쉽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4.3	17.4	34.8	39.1	4.3	3.217	$F=36.17$ $p=.000$
유채꽃잔치	22.6	37.1	21.0	16.1	3.2	2.403	
칠선녀축제	6.9	17.2	45.7	21.6	8.6	3.078	
마라톤축제	3.7	9.3	33.3	44.9	8.8	3.458	
레저스포츠	6.0	14.2	40.9	32.3	6.5	3.190	
국제관악제	2.8	9.8	40.2	40.7	6.5	3.383	

②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6.09$,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3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 축제 3.216점, 국제 관악제 2.949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845점, 유채꽃 큰 잔치 2.758점, 들불축제 2.739점 순으로 조사되어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63>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3.0	26.1	39.1	17.4	4.3	2.739	F=16.09 p=.000
유채꽃잔치	16.1	16.1	46.8	17.7	3.2	2.758	
칠선녀축제	9.5	25.0	40.5	21.6	3.4	2.845	
마라톤축제	4.6	5.1	45.4	36.6	8.3	3.389	
레저스포츠	6.9	17.7	30.6	36.6	8.2	3.216	
국제관악제	6.1	21.0	47.7	22.4	2.8	2.949	

나) 행사장내 시설

①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45.26$,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레저스포츠 축제 3.1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들불축제 3.130점,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3.014점 순으로 조사됨. 국제관악제 2.977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586점, 유채꽃 큰 잔치 2.065점 순으로 나타나 축제별로 주차시설 이용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표 6-64>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3.0	17.4	21.7	39.1	8.7	3.130	F=45.26 p=.000
유채꽃잔치	33.9	33.9	25.8	4.8	1.6	2.065	
칠선녀축제	12.1	32.8	39.7	15.5	0.0	2.586	
마라톤축제	6.9	20.4	40.3	29.2	3.2	3.014	
레저스포츠	4.7	19.4	35.8	32.8	7.3	3.185	
국제관악제	7.5	15.9	50.0	24.8	1.9	2.977	

②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38.23$,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관악제가 3.2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3.222점, 레저스포츠 축제 3.047점으로 평점 3점보다 높게 나타나 휴식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서귀포 칠선녀 축제 2.966점, 유채꽃 큰 잔치 2.500점, 들불축제 3.348점으로 평점 3점을 넘지 못하여 휴식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65>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다' 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30.4	17.4	39.1	13.0	0.0	2.348	F=38.23 p=.000
유채꽃잔치	14.5	32.3	43.5	8.1	1.6	2.500	
칠선녀축제	4.3	25.0	44.0	23.3	3.4	2.966	
마라톤축제	6.0	9.3	48.6	28.7	7.4	3.222	
레저스포츠	4.3	23.3	40.5	27.2	4.7	3.047	
국제관악제	4.7	12.1	33.6	47.7	1.9	3.299	

③ 화장실이 청결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30.38$,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관악제가 3.5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시민마라

톤 축제가 3.222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172점, 레저스포츠 축제 3.035점으로 평점 3점보다 높게 나타나 화장실이 청결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채꽃 큰 잔치와 들불축제는 각각 2.516점, 1.700점으로 평점 3점보다 낮게 나타나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66> '화장실이 청결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52.2	26.1	21.7	0.0	0.0	1.700	F=130.38 p=.000
유채꽃잔치	16.1	25.8	50.0	6.5	1.6	2.516	
칠선녀축제	1.7	15.5	50.0	29.3	3.4	3.172	
마라톤축제	2.8	13.9	46.8	31.5	5.1	3.222	
레저스포츠	4.7	22.0	44.8	22.0	6.5	3.035	
국제관악제	1.4	6.5	34.6	51.4	6.1	3.542	

④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7.1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3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 축제 3.216점으로 평점 3점보다 높게 나타나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제관악제 2.949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845점, 유채꽃 큰 잔치 2.758점, 들불축제 2.739점 순으로 평점 3점보다 낮게 나타나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67>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8.7	30.4	43.5	17.4	0.0	2.739	F=7.15 p=.000
유채꽃잔치	16.1	29.0	43.5	8.1	3.2	2.758	
칠선녀축제	6.0	29.3	39.7	22.4	2.6	2.845	
마라톤축제	8.3	27.8	36.6	23.1	4.2	3.389	
레저스포츠	8.6	21.6	42.7	22.0	5.2	3.216	
국제관악제	1.4	27.6	46.7	24.3	0.0	2.949	

⑤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47.38$,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 축제가 3.030점으로 평점 3점보다 높게 나타나 행사안내 홍보물이 충분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서귀포 칠선녀 축제 2.741점, 들불축제 2.739점, 국제관악제 2.439점, 유채꽃 큰잔치 2.307점으로 평점 3점보다 낮게 나타나 홍보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68> ‘행사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8.7	34.8	34.8	17.4	4.3	2.739	$F=47.38$ $p=.000$
유채꽃잔치	16.1	41.9	38.7	1.6	1.6	2.307	
칠선녀축제	7.8	28.4	46.6	16.4	0.9	2.741	
마라톤축제	5.6	8.8	34.3	39.4	12.0	3.435	
레저스포츠	6.9	15.5	50.9	21.1	5.6	3.030	
국제관악제	7.9	47.2	37.9	7.0	0.0	2.439	

⑥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35.79$,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6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들불축제 3.130점으로 행사 안내요원의 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레저스포츠 축제 2.961점, 국제관악제 2.897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793점, 유채꽃 큰잔치 2.710점으로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69>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0.0	17.4	56.5	21.7	4.3	3.130	F=35.79 p=.000
유채꽃잔치	11.3	22.6	51.6	12.9	1.6	2.710	
칠선녀축제	6.0	29.3	45.7	17.2	1.7	2.793	
마라톤축제	1.4	5.1	37.0	44.0	12.5	3.611	
레저스포츠	6.5	14.2	59.1	17.2	3.0	2.961	
국제관악제	3.3	18.2	64.5	13.6	0.5	2.897	

다) 환대성

①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20.8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5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 축제 3.263점, 국제관악제 3.201점, 들불축제 3.174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129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채꽃 큰잔치는 2.774점으로 행사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70>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다'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4.3	8.7	52.2	34.8	0.0	3.174	F=20.85 p=.000
유채꽃잔치	9.7	24.2	50.0	11.3	4.8	2.774	
칠선녀축제	2.6	15.5	50.0	30.2	1.7	3.129	
마라톤축제	3.2	4.2	37.5	44.9	10.2	3.546	
레저스포츠	4.3	9.5	47.4	33.2	5.6	3.263	
국제관악제	1.9	11.7	52.3	32.7	1.4	3.201	

② 지역주민이 친절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0.53,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국제관악제가 3.4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3.357점, 레저스포츠 축제 3.285점, 들불축제 3.261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172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채꽃 큰잔치는 2.952점으로 평점 3점을 넘지 못하여 지역주민이 불친절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71> '지역주민이 친절하다'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4.3	0.0	60.9	34.8	0.0	3.261	F=10.53 p=.000
유채꽃잔치	3.2	22.6	54.8	14.5	4.8	2.952	
칠선녀축제	5.2	15.5	37.9	39.7	1.7	3.172	
마라톤축제	4.6	9.3	40.3	37.5	8.3	3.357	
레저스포츠	2.6	12.5	41.8	40.1	3.0	3.285	
국제관악제	0.9	4.2	47.2	43.9	3.7	3.453	

③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7.53$,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레저스포츠 축제가 3.3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관악제 3.379점,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3.269점, 들불축제 3.261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207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채꽃 큰잔치는 2.968점으로 평점 3점 보다 낮게 나타나 관광종사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2>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4.3	8.7	47.8	34.8	4.3	3.261	F=7.53 p=.000
유채꽃잔치	4.8	19.4	54.8	16.1	4.8	2.968	
칠선녀축제	6.9	13.8	34.5	41.4	3.4	3.207	
마라톤축제	3.2	9.7	48.6	33.8	4.6	3.269	
레저스포츠	3.0	7.3	46.6	34.5	8.6	3.384	
국제관악제	1.4	9.3	43.9	40.7	4.7	3.379	

라) 행사 내용

① 행사 내용이 흥미롭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37.44$,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3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관악제 3.308점, 레저스포츠 축제 3.276점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들불축제 2.783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776점, 유채꽃 큰 잔치 2.565점으로 행사내용이 흥미롭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3> '행사 내용이 흥미롭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3.0	13.0	56.5	17.4	0.0	2.783	$F=37.44$ $p=.000$
유채꽃잔치	9.7	33.9	48.4	6.5	1.6	2.565	
칠선녀축제	4.3	28.4	53.4	12.9	0.9	2.776	
마라톤축제	2.8	12.0	43.1	32.9	9.3	3.338	
레저스포츠	3.0	10.3	47.8	33.6	5.2	3.276	
국제관악제	3.3	9.8	43.5	39.7	3.7	3.308	

② 행사 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0.28$,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레저스포츠 축제가 3.3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시민마라톤 축제 3.157점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 관악제 2.977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948점, 유채꽃 큰 잔치 2.823점, 들불축제 2.870점 순으로 조사되어 행사내용이 제주도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74> ‘행사 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3.0	21.7	30.4	34.8	0.0	2.870	F=10.28 p=.000
유채꽃잔치	9.7	21.0	46.8	22.6	0.0	2.823	
칠선녀축제	5.2	22.4	45.7	25.9	0.9	2.948	
마라톤축제	5.1	18.5	38.9	30.6	6.9	3.157	
레저스포츠	0.9	10.3	50.4	31.9	6.5	3.328	
국제관악제	5.1	21.0	48.1	22.4	3.3	2.977	

마) 식음료

○ 국제시민마라톤 축제에서는 식음료 제공시설이 없어서 만족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①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5.66$,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레저스포츠 축제가 2.6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관악제 2.617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543점, 유채꽃 큰 잔치 2.532점, 들불축제 2.304점 순으로 조사되어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75>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21.7	30.4	43.5	4.3	0.0	2.304	F=5.66 p=.000
유채꽃잔치	16.1	27.4	43.5	12.9	0.0	2.532	
칠선녀축제	12.1	30.2	49.1	8.6	0.0	2.543	
레저스포츠	16.4	19.4	44.0	19.4	0.9	2.690	
국제관악제	10.7	30.4	45.8	12.6	0.5	2.617	

②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③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3.8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레저스포츠 축제가 2.6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채꽃 큰 잔치 2.677점, 들불축제 2.652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560점, 국제 관악제 2.379 점 순으로 조사되어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76>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21.7	26.1	17.4	34.8	0.0	2.652	$F=3.85$ $p=.004$
유채꽃잔치	14.5	30.6	30.6	21.0	3.2	2.677	
칠선녀축제	10.3	37.1	38.8	13.8	0.0	2.560	
레저스포츠	13.4	28.9	34.5	21.1	2.2	2.698	
국제관악제	12.6	45.8	32.7	8.9	0.0	2.379	

④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34.5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관악제가 2.9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 축제 2.910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862점, 유채꽃 큰 잔치 2.419점, 들불축제 2.174점 순으로 조사되어 축제별로 식음료 관련시설의 청결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표 6-77>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34.8	26.1	26.1	13.0	0.0	2.174	$F=34.55$ $p=.000$
유채꽃잔치	22.6	25.8	41.9	6.5	3.2	2.419	
칠선녀축제	5.2	20.7	58.6	13.8	1.7	2.862	
레저스포츠	7.8	20.3	47.0	23.3	1.7	2.910	
국제관악제	0.9	15.9	68.2	15.0	0.0	2.972	

바) 기념품

○ 국제시민마라톤 축제에서는 기념품 제공시설이 없어서 만족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①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1.46$,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레저스포츠 축제가 2.7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들불축제 2.696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543점, 국제 관악제 2.509점, 유채꽃 큰 잔치 2.306 점 순으로 조사되어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78>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3.0	13.0	65.2	8.7	0.0	2.696	$F=11.46$ $p=.000$
유채꽃잔치	14.5	41.9	41.9	1.6	0.0	2.306	
칠선녀축제	5.2	38.8	52.6	3.4	0.0	2.543	
레저스포츠	18.1	16.4	37.5	26.3	1.7	2.772	
국제관악제	7.0	43.9	40.2	8.9	0.0	2.509	

②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6.86$,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레저스포츠 축제가 2.7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귀포 칠선녀 축제 2.638점, 국제 관악제 2.579점, 들불축제 2.435점, 유채꽃 큰 잔치 2.371 점 순으로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79>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21.7	21.7	47.8	8.7	0.0	2.435	$F=6.86$ $p=.000$
유채꽃잔치	12.9	45.2	35.5	4.8	1.6	2.371	
칠선녀축제	8.6	30.2	50.9	9.5	0.9	2.638	
레저스포츠	12.5	22.0	46.1	19.4	0.0	2.724	
국제관악제	5.6	41.1	43.0	10.3	0.0	2.579	

③ 기념품의 질이 좋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3.04$,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레저스포츠 축제가 2.8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귀포 칠선녀 축제 2.698점, 국제 관악제 2.654점, 유채꽃 큰 잔치 2.468점, 들불축제 2.304점 순으로 조사되어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80> ‘기념품의 질이 좋다’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30.4	13.0	52.2	4.3	0.0	2.304	F=13.04 p=.000
유채꽃잔치	16.1	29.0	46.8	8.1	0.0	2.468	
칠선녀축제	8.6	24.1	56.9	9.5	0.9	2.698	
레저스포츠	9.5	25.4	38.4	25.4	1.3	2.836	
국제관악제	4.7	31.8	57.9	4.7	0.9	2.654	

④ 기념품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1.87$,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관악제는 3.0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점 3점을 넘어 기념품이 제주도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 축제 2.841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793점, 유채꽃 큰 잔치 2.613점, 들불축제 2.522점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81> ‘기념품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21.7	17.4	47.8	13.0	0.0	2.522	F=11.87 p=.000
유채꽃잔치	12.9	32.3	37.1	16.1	1.6	2.613	
칠선녀축제	7.8	31.9	36.2	21.6	2.6	2.793	
레저스포츠	9.9	24.1	39.7	24.6	1.7	2.841	
국제관악제	0.5	21.5	48.6	28.5	0.9	3.079	

⑤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15.2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레저스포츠 축제가 2.6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관악제 2.509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2.336점, 들불축제 2.130점, 유채꽃 큰 잔치 2.097점 순으로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82>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26.1	39.1	30.4	4.3	0.0	2.130	$F=15.25$ $p=.000$
유채꽃잔치	21.0	51.6	25.8	0.0	1.6	2.097	
칠선녀축제	14.7	47.4	27.6	10.3	0.0	2.336	
레저스포츠	20.7	20.3	37.9	20.3	0.9	2.603	
국제관악제	9.3	37.9	45.3	7.5	0.0	2.509	

4) 총 지출 경비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351.0$,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는 ‘5만원 미만’(47.8%)과 ‘5만원~10만원’(30.4%)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채꽃 잔치는 ‘지출하지 않음’(27.4%)과 ‘5만원 미만’(35.5%), 서귀포 칠선녀 축제는 ‘지출하지 않음’(25.9%), 국제시민마라톤 축제는 ‘지출하지 않음’(26.4%)과 ‘10만원~15만원’(16.7%), 레저스포츠 축제는 ‘5만원~10만원’(30.6%)과 ‘20만원 이상’(32.3%), 국제 관악제는 ‘지출하지 않음’(35.0%)과 ‘20만원 이상’(29.0%)로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83> ‘총 지출 경비’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지출 안함	5만원 미만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만원 이상	통계량
들불축제	0.0	47.8	30.4	4.3	0.0	17.4	$\chi^2=351.0$ $p=.000$
유채꽃잔치	27.4	35.5	8.1	3.2	6.5	19.4	
칠선녀축제	25.9	29.3	18.1	6.9	3.4	16.4	
마라톤축제	26.4	24.5	13.0	16.7	2.8	16.7	
레저스포츠	1.7	11.6	30.6	15.5	8.2	32.3	
국제관악제	35.0	15.9	6.1	10.3	3.7	29.0	

5) 축제 전반적인 만족도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34.90$,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4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관악제 3.421점, 레저스포츠 축제 3.379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017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들불축제와 유채꽃 큰 잔치는 각각 2.913점과 2.855점으로 평점 3점 보다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84> 축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8.7	21.7	39.1	30.4	0.0	2.913	$F=34.90$ $p=.000$
유채꽃잔치	4.8	25.8	50.0	17.7	1.6	2.855	
칠선녀축제	0.0	12.9	72.4	14.7	0.0	3.017	
마라톤축제	1.4	3.7	45.4	43.1	6.5	3.495	
레저스포츠	0.0	3.4	56.9	37.9	1.7	3.379	
국제관악제	0.0	5.1	51.4	39.7	3.7	3.421	

6) 재참가 의사

- 축제별로 차이분석한 결과 $F=24.50$,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시민마라톤 축제가 3.6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 축제 3.487점, 국제관악제 3.322점, 서귀포 칠선녀 축제 3.060점으로 다시 방문하겠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반면 유채꽃 큰 잔치와 들불축제는 각각 2.952점과 2.913점으로 평점 3점을 넘지 못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85> '재참가의사'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절대 오지 않겠다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 겠다	아마 올 것이다	반드시 오겠다	평균	통계량
들불축제	13.0	21.7	39.1	13.0	13.0	2.913	F=24.50 p=.000
유채꽃잔치	3.2	29.0	41.9	21.0	4.8	2.952	
칠선녀축제	1.7	18.1	55.2	22.4	2.6	3.060	
마라톤축제	0.9	4.2	38.4	39.8	16.7	3.671	
레저스포츠	0.4	15.9	36.6	28.4	18.5	3.487	
국제관악제	0.0	16.8	44.9	27.6	10.7	3.322	

7) 추천 의사

- 축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174.3$,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불축제'와 '유채꽃 큰 잔치'는 다른 축제에 비해 '추천할 의사가 없다'(30.4%, 37.1%)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 칠선녀 축제는 '잘 모르겠다'(44.8%), '국제시민마라톤 축제'와 '레저스포츠 축제', '국제관악제'는 '추천할 의사가 있다'(74.1%, 53.4%, 55.1%)는 의견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축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86> '추천 의사'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추천할 의사가 있다	추천할 의사가 없다	잘 모르겠다	통계량
들불축제	34.8	30.4	34.8	$\chi^2=174.3$ p=.000
유채꽃잔치	32.3	37.1	30.6	
칠선녀축제	32.8	22.4	44.8	
마라톤축제	74.1	6.9	19.0	
레저스포츠	53.4	14.7	31.9	
국제관악제	55.1	8.4	36.4	

다. 축제 주관처 의견조사

1) 축제별 응답자 수

- 축제별 응답자를 보면 21.0%가 '서귀포 칠선녀 축제 주관처'로 나타났으며 18.1%

는 각각 ‘유채꽃 큰 잔치’와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15.2%는 ‘제주국제시민마라톤’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87> 축제별 응답자 수

구 분	구성비(%)
정월대보름들불축제	18.1
유채꽃큰잔치	18.1
서귀포칠선녀축제	21.0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15.2
제주레저스포츠축제	13.3
제주국제관악제	14.3
계	100

2) 행사 프로그램의 비교

- 작년 행사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41.9%가 ‘매우 크게 향상되었다’, 37.1%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라고 응답하여 79.0%가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4.8%는 ‘작년보다 크게 떨어졌다’, 1.9%는 ‘작년보다 약간 떨어졌다’라고 응답하여 축제의 주관처에서는 작년보다 행사 프로그램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88> 행사 프로그램의 비교

구 분	구성비(%)
작년보다 크게 떨어졌다	4.8
작년보다 약간 떨어졌다	1.9
작년과 차이없다	14.3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37.1
매우 크게 향상되었다	41.9
계	100

3) 여행상품화로서의 가능성

- 제주도 고유 생활문화 홍보 또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행상

품화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32.4%가 '매우 높다', 39.0%는 '대체로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71.4%가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10.5%는 '매우 낮다', 3.8%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여행상품화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89> 여행상품화로서의 가능성

구 분	구성비(%)
매우 낮다	10.5
대체로 낮은 편이다	3.8
그저 그렇다	14.3
대체로 높은 편이다	39.0
매우 높다	32.4
계	100

4) 만족도

가) 접근성

☐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쉬웠다

-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쉬웠다는 의견에 대해 47.6%가 '그렇다', 16.2%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63.8%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 2.9%, '그렇지 않다' 6.7%로 부정적인 인식은 9.6%에 그쳐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쉬웠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90>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쉬웠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2.9
그렇지 않다	6.7
보통이다	26.7
그렇다	47.6
매우 그렇다	16.2
계	100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다

-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있었다는 의견에 대해 37.1%가 '그렇다', 12.4%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49.5%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11.4%로 부정적인 인식은 12.4%로써 도로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91>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11.4
보통이다	38.1
그렇다	37.1
매우 그렇다	12.4
계	100

나) 행사장내 시설

☐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였다

-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25.7%가 '그렇다', 22.9%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48.6%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8.1%, '그렇지 않다' 12.4%로 부정적인 인식은 30.5%이다. 즉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였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92>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18.1
그렇지 않다	12.4
보통이다	21.0
그렇다	25.7
매우 그렇다	22.9
계	100

□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었다

- 휴식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있었다는 의견에 대해 20.0%가 '그렇다', 14.3%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34.3%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8.1%, '그렇지 않다' 21.9%로 부정적인 인식은 40.0%로써 휴식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표 6-93>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었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18.1
그렇지 않다	21.9
보통이다	25.7
그렇다	20.0
매우 그렇다	14.3
계	100

□ 화장실이 청결하였다

- 화장실이 청결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36.2%가 '그렇다', 14.3%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49.5%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6.7%, '그렇지 않다' 10.5%로 부정적인 인식은 17.2%로써 화장실이 청결하였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표 6-94> 화장실이 청결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6.7
그렇지 않다	10.5
보통이다	33.3
그렇다	36.2
매우 그렇다	13.3
계	100

□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 26.7%가 '그렇다', 12.4%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39.1%가 긍정적인 인식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3.3%, '그렇지 않다' 14.3%로 부정적인 인식은 27.6%이다. 즉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되어 있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표 6-95>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13.3
그렇지 않다	14.3
보통이다	33.3
그렇다	26.7
매우 그렇다	12.4
계	100

□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였다

-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31.4%가 '그렇다', 18.1%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49.5%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0.5%, '그렇지 않다' 16.2%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26.7%로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였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96>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4.3
그렇지 않다	6.7
보통이다	9.8
그렇다	71.7
매우 그렇다	7.5
계	100

□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였다

-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38.1%가 ‘그렇다’, 16.2%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54.3%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7.6%, ‘그렇지 않다’ 16.2%로 부정적인 인식은 23.8%로 나타나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였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97>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7.6
그렇지 않다	16.2
보통이다	21.9
그렇다	38.1
매우 그렇다	16.2
계	100

다) 환대성

□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였다

-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41.9%가 ‘그렇다’, 21.9%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63.8%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6.7%, ‘그렇지 않다’ 8.6%로 부정적인 인식은 15.3%로 매우 낮게 나타나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였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98>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6.7
그렇지 않다	8.6
보통이다	21.0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21.9
계	100

☐ 지역주민이 친절하였다

- 지역주민이 친절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41.9%가 '그렇다', 13.3%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55.2%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9%, '그렇지 않다' 5.7%로 부정적인 인식은 7.6%로 나타나 지역주민이 친절하였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99> 지역주민이 친절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1.9
그렇지 않다	5.7
보통이다	37.1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13.3
계	100

☐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였다

-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39.0%가 '그렇다', 9.5%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48.5%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4.8%로 부정적인 인식은 5.8%로 나타나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였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00>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4.8
보통이다	45.7
그렇다	39.0
매우 그렇다	9.5
계	100

라) 행사 내용

☐ 행사 내용이 흥미로웠다

- 행사 내용이 흥미로웠다는 의견에 대해 39.0%가 ‘그렇다’, 18.1%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57.1%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6.7%, ‘그렇지 않다’ 5.7%로 부정적인 인식은 12.4%로 나타나 행사 내용이 흥미로웠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01> 행사 내용이 흥미로웠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6.7
그렇지 않다	5.7
보통이다	30.5
그렇다	39.0
매우 그렇다	18.1
계	100

☐ 행사 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였다

- 행사 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30.5%가 ‘그렇다’, 27.6%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58.1%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8.6%, ‘그렇지 않다’ 10.5%로 부정적인 인식은 19.1%로 행사 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였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로 조사되었다.

<표 6-102> 행사 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8.6
그렇지 않다	10.5
보통이다	22.9
그렇다	30.5
매우 그렇다	27.6
계	100

마) 식음료

☐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였다

-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24.3%가 '그렇다', 1.4%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25.7%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27.0%, '그렇지 않다' 17.6%로 부정적인 인식은 44.6%로 나타나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03>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27.0
그렇지 않다	17.6
보통이다	29.7
그렇다	24.3
매우 그렇다	1.4
계	100

☐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20.3%가 '그렇다', 2.7%는 '매우 그렇다'

다'라고 응답하여 23.0%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23.0%, '그렇지 않다' 24.3%로 부정적인 인식은 47.3%로 높게 나타나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04>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23.0
그렇지 않다	24.3
보통이다	29.7
그렇다	20.3
매우 그렇다	2.7
계	100

☐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32.4%가 '그렇다', 1.4%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33.8%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27.0%, '그렇지 않다' 18.9%로 부정적인 인식은 45.9%로 나타나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05>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27.0
그렇지 않다	18.9
보통이다	20.3
그렇다	32.4
매우 그렇다	1.4
계	100

□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였다

-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28.4%가 ‘그렇다’, 2.7%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31.1%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20.3%로 부정적인 인식은 40.6%로 약간 높게 나타나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06>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20.3
그렇지 않다	20.3
보통이다	28.4
그렇다	28.4
매우 그렇다	2.7
계	100

바) 기념품

□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였다

-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16.2%가 ‘그렇다’, 1.4%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17.6%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4.1%, ‘그렇지 않다’ 25.7%로 부정적인 인식은 29.8%로 높게 나타나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07>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4.1
그렇지 않다	25.7
보통이다	52.7
그렇다	16.2
매우 그렇다	1.4
계	100

□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13.5%가 ‘그렇다’, 2.7%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16.2%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8.1%, ‘그렇지 않다’ 44.6%로 부정적인 인식은 52.7%로 높게 나타나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08>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8.1
그렇지 않다	44.6
보통이다	31.1
그렇다	13.5
매우 그렇다	2.7
계	100

□ 기념품의 질이 좋았다

- 기념품의 질이 좋았다는 의견에 대해 24.7%가 ‘그렇다’, 2.7%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27.4%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5.5%, ‘그렇지 않다’ 24.7%로 부정적인 인식은 30.2%로 약간 높게 나타나 기념품의 질이 좋지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09> 기념품의 질이 좋았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5.5
그렇지 않다	24.7
보통이다	42.5
그렇다	24.7
매우 그렇다	2.7
계	100

□ 기념품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 기념품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 21.6%가 '그렇다', 8.1%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29.7%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6.8%, '그렇지 않다' 25.7%로 부정적인 인식은 32.5%로 나타나 기념품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10> 기념품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6.8
그렇지 않다	25.7
보통이다	37.8
그렇다	21.6
매우 그렇다	8.1
계	100

□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의견에 대해 13.5%가 '그렇다', 4.1%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17.6%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21.9%, '그렇지 않다' 25.7%로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67.6%로 매우 높게 나타나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11>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구 분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	31.1
그렇지 않다	36.5
보통이다	14.9
그렇다	13.5
매우 그렇다	4.1
계	100

5) 만족도 조사 참고 여부

- 축제 참가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 행사 기획에 참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3.8%는 '참고하고 있다', 36.2%는 '참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6-112> 만족도 조사 참고 여부

구 분	구성비(%)
참고하고 있음	63.8
참고하지 않음	36.2
계	100

3. 제주도 축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은 남성 54명(93.1%), 여성 4명(6.9%)로 나타났다
- 연령은 20대 5명(8.6%), 30대 19명(32.8%), 40대 31명(53.4%), 50대이상 3명(5.2%)로 나타났다
- 학력은 고졸이하 6명(10.3%), 대졸 32명(55.2%), 대학원졸이상 20명(34.5%)로 나타났다
- 직업은 학계 16명(27.6%), 공무원 19명(32.8%), 여행업체 대표자 23명(39.7%)로 나타났다.

<표 6-113> 인구통계학적 특성(전문가 의견조사)

변 수			사 례 수	%
성 별	남	성	54	93.1
	여	성	4	6.9
연 령	20	대	5	8.6
	30	대	19	32.8
	40	대	31	53.4
	50	대 이 상	3	5.2
학 력	고 졸 이	하	6	10.3
	대	졸	32	55.2
	대 학 원 졸 이	상	20	34.5
직 업	학 공 무	계 원	16	27.6
	여 행 업 자	대 표	19	32.8
			23	39.7
전 체			58	100.0

나. 분석 결과

□ 제주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과제

- 전체 57명의 응답자 중 축제 관련 재정 지원의 확대 11명(19.3%), 관광 관련 행정 기관 및 주관처의 역할 분담 조정 16명(28.1%), 축제 전담 조직의 설립 26명(45.6%), 기타 4명(7.0%)로 나타나 축제 전담 조직의 설립에 높은 의견이 나타났다.

<표 6-114> 제주도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축제관련 재정지원의 확대	11	19.3
관광관련 행정기관 및 주관처의 역할 분담 조정	16	28.1
축제 전담 조직의 설립	26	45.6
기 타	4	7.0
계	57	100

□ 제주지역 축제의 문제점

- 전체 58명의 응답자중 축제프로그램의 획일화 14명(24.1%), 예산 부족 9명(15.5%)

축제 주관처의 능력 부족 6명(10.3%), 민·관 협력 부족 4명(6.9%), 제주도민의 자발적 참여 부족 7명(12.1%), 홍보 부족 1명(1.7%), 관광상품화 기능 미비 15명(25.9%), 기타 2명(3.4%)으로 나타나, 관광상품화 기능 미비와 축제프로그램의 획일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표 6-115> 제주도 축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축제프로그램의 획일화	14	24.1
예산 부족	9	15.5
축제 주관처의 능력 부족	6	10.3
민·관 협력 부족	4	6.9
제주도민의 자발적 참여 부족	7	12.1
홍보 부족	1	1.7
관광상품화 기능 미비	15	25.9
기타	2	3.4
계	58	100

□ 향후 축제재원확충을 위한 방안

- 전체 58명의 응답자중 관광 관련 업체의 일정 금액 부담 16명(27.6%), 축제 참가 방문객에게 일정 금액 부담 1명(1.7%), 축제 주관처에서 스폰서 확보 12명(20.7%), 행정부서에서 안정된 축제 재원 확보 26명(44.8%), 기타 3명(5.2%)로 나타나, 행정부서에서 안정된 축제 재원 확보가 향후 축제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타당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표 6-116> 향후 축제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

구 분	빈도(명)	구성비(%)
관광 관련 업체의 일정 금액 부담	16	27.6
축제 참가 방문객에게 일정 금액 부담	1	1.7
축제 주관처에서 스폰서 확보	12	20.7
행정부서에서 안정된 축제 재원 확보	26	44.8
기타	3	5.2
계	58	100

□ 계절별 육성해야할 축제

- 봄 축제의 경우 전체 55명의 응답자중 유채꽃 잔치 34명(61.8%), 왕벚꽃 잔치 10명(18.2%),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5명(9.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4명(7.3%), 고사리 꺾기 대회 2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17> 계절별로 육성해야할 축제(봄)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유채꽃 잔치	34	61.8
왕벚꽃 잔치	10	18.2
제주국제 시민 마라톤 축제	5	9.1
제주세계섬문화 축제	4	7.3
고사리 꺾기 대회	2	3.6
계	55	100

- 여름 축제의 경우 전체 55명의 응답자중 해변 축제 15명(27.3%),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14명(25.5%), 제주국제시민마라톤축제 10명(18.2%), 제주세계섬문화축제 8명(14.5%), 제주아이어맨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6명(10.9%), 제주국제관악제 2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18> 계절별로 육성해야할 축제(여름)

구 분	빈도(명)	구성비(%)
해변축제	15	27.3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14	25.5
제주국제 시민 마라톤 대회	10	18.2
섬문화 축제	8	14.5
제주아이어맨 국제 트라이 애슬론 대회	6	10.9
제주국제 관악제	2	3.6
계	55	100

- 가을 축제의 경우 전체 56명의 응답자중 억새꽃 축제 29명(52.7%), 한라문화제 16명(29.1%), 제주감귤축제 10명(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19> 계절별로 육성해야할 축제(가을)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억새꽃 축제	29	52.7
한라문화제	16	29.1
제주감귤 축제	10	18.2
계	55	100

- 겨울 축제의 경우 전체 57명의 응답자중 한라산 눈꽃축제 43명(75.4%), 들불 축제 11명(19.3%), 성산 일출제 2명(3.5%), 탐라국 입춘굿 놀이 1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20> 계절별로 육성해야할 축제(겨울)

구 분	빈도(명)	구성비(%)
한라산 눈꽃 축제	43	75.4
정월 대보름 들불 축제	11	19.3
성산 일출제	2	3.5
탐라국 입춘굿 놀이	1	1.8
계	57	100

□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해야할 축제

- 제주도의 경우 전체 51명의 응답자중 제주세계섬문화축제 17명(33.3%), 한라산 눈꽃 축제 16명(31.4%), 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 9명(17.6%), 한라문화제 5명(9.8%), 제주감귤축제 2명(3.9%), 억새꽃 축제 2명(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21>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해야할 축제(제주도)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섬문화 축제	17	33.3
한라산 눈꽃 축제	16	31.4
제주국제 시민 마라톤 대회	9	17.6
한라문화제	5	9.8
제주감귤 축제	2	3.9
억새꽃 축제	2	3.9
계	51	100

- 제주시의 경우 전체 47명의 응답자중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17명(36.2%), 왕벚꽃 잔치 14명(29.8%), 제주국제관악제 7명(14.9%), 해변 축제 7명(14.9%), 용연선상 음악회 2명(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22>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해야할 축제(제주시)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제주레저 스포츠 대축제	17	36.2
왕벚꽃 잔치	14	29.8
제주국제 관악제	7	14.9
해변 축제	7	14.9
용연선상 음악회	2	4.2
계	47	100

- 서귀포시의 경우 전체 47명의 응답자중 서귀포 칠십리 축제 20명(42.6%), 서귀포 바다 축제 9명(19.1%), 제주아이언맨트라이애슬론대회 9명(19.1%), 서귀포 칠선녀 축제 6명(12.8%), 중문 해수욕장 축제 2명(4.3%), 보목수산물품자리돔잔치 1명(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23>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해야할 축제(서귀포시)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서귀포 칠십리 축제	20	42.6
서귀포 바다 축제	9	19.1
제주아이언맨 트라이 애슬론 대회	9	19.1
서귀포 칠선녀 축제	6	12.8
중문해수욕장 축제	2	4.3
보목 수산물품 자리돔 큰잔치	1	2.1
계	47	100

- 북제주군의 경우 전체 48명의 응답자 모두가 새천년 정월 대보름 들불 축제를 선호했다.

<표 6-124>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해야할 축제(북제주군)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새천년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48	100
계	48	100

- 남제주군의 경우 전체 46명의 응답자중 성산 일출제 28명(60.9%), 고사리 꺾기 대회 9명(19.6%), 유채꽃 잔치 7명(15.2%), 덕수리 전통 민속축제 2명(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25>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해야할 축제(남제주군)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성산 일출제	28	60.9
고사리 꺾기 대회	9	19.6
유채꽃 잔치	7	15.2
덕수리 전통민속축제	2	4.4
계	46	100

□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축제

- 전체 54명의 응답자중 유채꽃 잔치 13명(24.1%), 한라 문화제 10명(18.5%),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7명(13.0%), 섬문화 축제 6명(11.1%), 한라산 눈꽃 축제 5명(9.3%), 제주 감귤 축제 4명(7.4%), 억새꽃 축제 3명(5.6%), 성산 일출제 3명(5.6%),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1명(1.9%), 제주국제 시민 마라톤 대회 1명(1.9%), 기타 1명(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26>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축제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유채꽃 잔치	13	24.1
한라 문화제	10	18.5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7	13.0
섬문화 축제	6	11.1
한라산 눈꽃 축제	5	9.3
제주 감귤 축제	4	7.4
억새꽃 축제	3	5.6
성산 일출제	3	5.6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1	1.9
제주국제시민 마라톤 대회	1	1.9
기 타	1	1.9
계	54	100

□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

- 전체 56명의 응답자중 제주세계섬문화축제 13명(23.2%), 한라산 눈꽃 축제 11명(19.6%), 제주국제 시민 마라톤 대회 10명(17.9%),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8명(14.3%), 제주 감귤 축제 4명(7.1%), 제주 레저스포츠 대축제 4명(7.1%), 한라문화제 1명(1.8%), 고사리 꺾기 일출제 3명(5.6%),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1명(1.9%), 제주국제 시민 마라톤 대회 1명(1.9%), 기타 1명(1.9%)순으로 나타났다.

<표 6-127>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제주세계섬문화 축제	13	23.2
한라산 눈꽃 축제	11	19.6
제주국제 시민 마라톤 대회	10	17.9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8	14.3
제주감귤 축제	4	7.1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4	7.1
한라문화제	1	1.8
고사리 꺾기 대회	1	1.8
왕벚꽃 잔치	1	1.8
유채꽃 잔치	1	1.8
기 타	2	3.6
계	56	100

☐ 축제전문기구의 설립에 대한 견해

- 전체 58명의 응답자중 절대반대한다 1명(1.7%), 반대한다 4명(6.9%), 그저그렇다 8명(13.8%), 찬성한다 19명(32.8%), 매우 찬성한다 26명(44.8%)로 나타나 축제전문기구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표 6-128> 축제전문기구의 설립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절대반대한다	1	1.7
반대한다	4	6.9
그저그렇다	8	13.8
찬성한다	19	32.8
매우찬성한다	26	44.8
계	58	100

☐ 축제 조직의 전체적인 조직 구조의 방향

- 전체 58명의 응답자중 현행대로 각 기관에서 역할 수행 4명(6.9%), 신설 관광진흥

원이 담당 14명(24.1%), 현행 축제 주관처의 업무를 통합하는 전문기구 설립 23명(39.7%), 관광협회에 축제 전담 부서의 설치 및 기능 강화 6명(10.3%), 제주세계섬 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축제전문기구로 상설기구화 8명(13.8%), 기타 3명(5.2%)로 나타났다

<표 6-129> 축제 조직의 전체적인 조직 구조의 방향

구 분	빈도(명)	구성비(%)
현행대로 제주도, 4개 시·군, 관광협회, 예총도지회 등이 각 역할 수행	4	6.9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신설 관광진흥원이 담당	14	24.1
현행 축제 주관처의 업무를 통합하는 전문기구 설립	23	39.7
제주도 관광협회에 축제 전담 부서의 설치 및 기능 강화	6	10.3
섬문화 축제 위원회의 축제전문기구로 상설기구화	8	13.8
기타	3	5.2
계	58	100

□ 지자체 협의를 통한 통폐·합 방안

- 전체 58명의 응답자중 절대 반대한다 1명(1.7%), 반대한다 1명(1.7%), 그저그렇다 2명(3.48%), 찬성한다 22명(37.9%), 매우 찬성한다 32명(55.2%)로 나타나 도, 4개 시·군의 협의를 통한 통폐·합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표 6-130> 도, 4개 시·군의 협의를 통하여 통폐합 방안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절대반대한다	1	1.7
반대한다	1	1.7
그저그렇다	2	3.4
찬성한다	22	37.9
매우찬성한다	32	55.2
계	58	100

제 3 절 시사점

1. 제주도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조사

- 현재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개최회수 적정성에 대해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2.8%, 더 많이 개최 30.8%, 현재보다 줄여야 26.5%로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제주지역 축제의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도,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도,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지역 축제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축제’와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미지가 반영된 축제’는 ‘유채꽃잔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을 확대하여 규모를 늘려야 할 축제는 ‘한라산눈꽃축제’로 나타났다.

<표 6-131> 제주지역 축제중 인지도, 문화적 이미지, 상품화 가능성이 큰 축제(지역주민의식조사)

내용 \ 순위	1순위 축제	2순위 축제	3순위 축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축제	유채꽃잔치	한라산눈꽃축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미지가 반영된 축제	유채꽃잔치	한라문화제	한라산눈꽃축제
예산을 확대하여 규모를 늘려야 할 축제	한라산눈꽃축제	유채꽃잔치	한라문화제

2. 축제 참여자 의견 조사

- 사례 축제에 대해 제주도민, 관광객, 축제 주관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6-132>, <표 6-133>과 같다.
- 접근성과 행사내용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축제 주관처 담당자가 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 행사시설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보통 이하로 평가하였으나, 축제 주관처 담당자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식음료와 기념품은 제주도민, 관광객, 축제 주관처 담당자 모두 3점이하로 평가했다.
- 환대성은 제주도민, 관광객, 축제 주관처 담당자가 모두 3점이상으로 평가했으나, 그다지 만족할만한 평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사례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는 3점을 조금 넘고 있으나, 만족도와 재참여의사가 크다고 볼 수 없다.

<표 6-132> 사례 축제에 대한 관련 집단간 만족도 항목 비교표

구분	항 목	제주도민	관광객	주관처
접근성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쉽다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	3.1062	3.1038	3.6762
		3.0058	2.9800	3.4857
행사시설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2.7807	2.8073	3.2286
	휴식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다	2.6686	2.8933	2.9048
	화장실이 청결하다	2.8392	2.8681	3.3905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있다	2.7836	2.8021	3.1048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다	2.6988	2.7739	3.3048
	행사 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다	2.8850	3.0059	3.3905
식음료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다	2.3574	2.5410	2.5541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다	2.5372	2.7184	2.5541
	향토적인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2.4828	2.5966	2.6216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다	2.5361	2.6699	2.7297
기념품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2.4118	2.5596	2.8514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2.4240	2.5490	2.5811
	기념품의 질이 좋다	2.5228	2.5958	2.9452
	기념품은 제주의 고유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2.5860	2.7679	2.9865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2.2464	2.3336	2.2297
환대성	행사장 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다	3.1189	3.1720	3.6381
	지역주민이 친절하다	3.2378	3.2387	3.5905
	관광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다	3.0370	3.2387	3.5143
행사내용	행사 내용이 흥미롭다	2.8733	2.9985	3.5619
	행사 내용이 제주의 이미지에 적합하다	3.0049	3.0163	3.5810

<표 6-133> 사례 축제에 대한 관련 집단간 전반적인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

항 목	제주도민	관광객
전반적인 만족도	3.0965	3.1742
재참여 의사	3.5692	3.2305

3. 제주도 축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제주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축제 전담조직의 설립’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제주지역 축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관광상품화 기능 미비’와 ‘축제프로그램의 획일화’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 축제 재원확충 방안으로는 행정부서에서 안정된 축제 재원 확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계절별로 육성해야 할 축제는 봄인 경우 ‘유채꽃잔치,’ 여름인 경우 ‘해변축제’와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을인 경우 ‘억새꽃축제,’ 겨울인 경우 ‘한라산눈꽃축제’로 나타났다.

<표 6-134> 계절별 육성해야 할 축제 종합(전문가 의견조사)

계절 순위	봄	여름	가을	겨울
1순위	유채꽃잔치(61.8%)	해변축제(27.3%)	억새꽃축제(51.8%)	한라산눈꽃축제(75.4%)
2순위	왕벚꽃잔치(18.2%)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25.5%)	한라문화제(28.6%)	정월대보름 들불축제(19.3%)

- 지자체별 육성해야 할 축제는 제주도인 경우 ‘섬문화축제,’ 제주시인 경우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서귀포시인 경우 ‘칠십리축제,’ 북제주군인 경우 ‘정월대보름들불축제,’ 남제주군인 경우 ‘성산일출제’로 나타났다. ‘유채꽃잔치’인 경우 지자체별로 순회 주관함에 따라 순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35> 지방자치단체별 육성해야 할 축제 종합(전문가 의견조사)

지자체 순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1순위	섬문화축제 (33.3%)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36.2%)	칠십리축제 (42.6%)	정월대보름들 불축제(100%)	성산일출제 (60.9%)
2순위	한라산눈꽃축제 (31.4%)	왕벚꽃잔치 (29.8%)	바다축제 · 제주 아이언맨트라이 애슬론대회 (19.1)		고사리꺾기대 회 (19.6%)

-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축제는 ‘유채꽃잔치’였으며,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는 ‘섬문화축제’로 나타났다.

<표 6-136> 지역적 특성과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 순위	1순위 축제	2순위 축제	3순위 축제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축제	유채꽃잔치 (24.1%)	한라문화제 (18.5%)	정월대보름들불축제 (13.0%)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	섬문화축제 (23.2%)	한라산눈꽃축제 (19.6%)	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 (17.9%)

- 축제전문기구의 설립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77.6%로 나타났으며, 축제 조직의 전체적인 조직 구조의 방향은 현행 축제 주관처의 업무를 통합하는 전문기구의 설립에 대한 의견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도, 4개 시·군의 협의를 통한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는 93.1%가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4. 종합 검토

- 제주지역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화 부족과 관광상품화 기능 미비로 나타나, 개별 축제의 차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된다.
- 제주지역 축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소득증대 기여도,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도,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주지역 축제중 지역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제주도 고유의 이미지가 반영된 축제는 ‘유채꽃잔치’였으며, 전문가 집단에서도 ‘유채꽃잔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품화 가능성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한라산눈꽃축제’를 1순위로 응답하였으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섬문화축제’가 1순위로 나타났다. ‘섬문화축제’의 경우 지역주민들에게는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축제 조직의 전체적인 조직 구조의 방향은 현행 축제 주관처의 업무를 통합하는 전문기구의 설립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사례 축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행사시설, 식음료, 기념품 등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접근성과 행사내용 또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제주지역 축제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도, 4개 시·군의 협의를 통한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 객관적인 축제 통폐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7 장 제주지역 축제의 문제점

- 제주지역 축제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반면에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고, 관광 상품화 미흡, 철학의 빈곤,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 부족, 축제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는 체계화 되지 못한 기획과 운영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급조된 축제의 관광상품화는 이익 보다는 오히려 제주도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 1 절 축제 프로그램 독창성 결여

- 제주지역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시기나 장소 또는 주최와 주관만을 달리하여 개최되고 있다.
- 축제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행사들이 특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축제들은 민속을 공연하거나, 음악이나 무용의 공연, 또는 가수나 연예인 초청공연, 청소년 또는 중장년의 노래자랑 등의 연예오락적인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편성하고 있고, 부대행사에는 먹거리, 각종 잡기의 놀이판, 흥미거리 이벤트 등이 동원되고 있다. 목적과 관련되는 행사는 한 두 가지에 불과하다.
- 이와 같이 제주 축제는 행사 내용과 구성 측면에서 타지역의 축제와 유사하고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요소가 혼재된 종합축제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인 것으로는 감귤이라는 소재를 부각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귤과 관련된 행사로 구성하려는 감귤축제나, 눈이라는 소재를 부각하기 위하여 모든 행사를 눈과 관련시키려고 한 눈꽃축제 등이 있다.
- 2000년 제주축제의 소재는 레저, 스포츠 중심의 관광 이벤트가 증가하였으나, 축제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소재 측면에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최근의 관광 수요행태도 변화하여 자연관광에 식상한 관광객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주제 설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관광객을 감동 시킬 수 있는 축제관광 상품이 부족하며 프로그램 구성에서 주제의 독창성, 일관성이 투영되지 못하고 있다.

제 2 절 축제 해설 기능의 미흡

- 축제를 접착하고 이해하려는 관광객에게 축제에 대한 정확한 해설은 성공적인 축제의 필수요건이다. 축제에서 소개되는 전통적인 민속놀이 및 祭儀의 형식, 방법, 절차 등을 방문객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축제에 대한 설명책자 등의 준비가 부족하고 일부 행사 주관단체에서는 아예 행사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행사는 해설기능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용이 전문적이고 지루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 축제의 명칭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타시도의 예를 들면 ‘부산 자갈치축제,’ ‘양양 송이축제,’ ‘남원 춘향제,’ ‘강릉 단오제’ 등은 지역 명칭과 축제 명칭이 하나로 묶어져 관광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내 축제들도 어느 지역하면 어느 축제란 명칭이 자연스레 연상되도록 지역적 특색을 갖춘 축제 명칭을 만드는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 명칭에 걸맞는 특색있는 축제 테마 프로그램의 개발·발굴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제 3 절 홍보와 마케팅

- 축제행사가 성공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홍보가 필수적이다. 행사 기간이 임박하여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제주 도민들도 ‘한라문화제,’ ‘유채꽃축제’ 등 몇몇 축제를 제외하고는 지역축제를 모르고 있다.
- 특히 해외 홍보는 늦어도 5~6개월 전에 홍보를 해야하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축제의 개최 시기 결정과 주최 당사자 선정이 늦어지는 것도 홍보 효과를 감소시키는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제 4 절 축제의 지속성과 정례화의 미흡

- 각 축제의 개최 시기 및 기간이 정례화가 미흡하다. 하나의 축제가 관광상품으로서 국내외 여행사·관광객 등에 홍보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전에 개최 시기·기

간이 확정돼야 하나 행사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도 행사 개최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사례마저 있다.

-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오던 축제가 중단되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있다. 매년 새로운 축제를 개최한다는 취지하에서 신규 관광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지만 호응이 시들해지면 중단되어, 단시일 동안 기획된 축제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축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축제를 기획할 때는 신중하고 세심하게 해야 한다. 즉, 단회성 행사로 전락하여 축제의 통합성, 연속성이 결여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제 5 절 행정기관 주도의 축제 운영

-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의 축제들은 관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관과 특정 단체의 합동주관이 대부분이다. 다행히 최근들어 민간 이양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민간 스스로도 자생적인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주도나 특정 단체 주도의 편향성이 계속되고 있다.
- 관주도나 특정단체 주도의 축제는 사실상 모방적이거나, 고착적인 행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축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게 되므로 언제나 사람을 동원하기 위하여 소위 쇼적인 볼거리에 집착하게된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성공이라는 식의 대중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어서, 축제의 본질과 방향성, 그리고 그 장기적인 성공여부를 생각하기 보다는 당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하여 쇼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동원해 놓고 보자는 생각에 쉽게 빠지게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 해의 축제도 전해의 축제를 모방 답습하게 됨은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점점 고착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축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민간조직으로 순차적으로 넘겨져야 하며, 이양 초기에 다소간 서툰 진행을 하더라도 민간조직의 자생성을 위하여 좀 더 지켜보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 2000년도 광역시·도별 문화축제 개최현황은 축제의 수에서 제주도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3.0개로 가장 많은 수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제 6 절 재정과 예산 부족

- 제주축제는 대부분 1억원 미만의 낮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제주지역과 같이 축제의 수가 많은 지역은 예산 배분 및 활용에 있어 위축받게 되는데 소규모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품질을 높이지 못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 7 절 종합서비스체계

-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수용 여건, 외국인에 대한 친절 운동 등 관광축제에 대한 물적, 인적 관광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타지방과 비교해 볼 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하다.

<표 7-1> 2000년도 광역지자체별 문화행사 현황표

자치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역문화축제		국제행사		문화행사 전체평균	
	평균 개최수	평점평균	평균 개최수	평점평균	평균 개최수	평점평균	평균 개최수	평점평균
서울	8.9	7.7	1.0	6.0	0.1	3.1	3.3	5.6
부산	3.2	7.2	2.3	6.3	0.3	3.8	1.9	5.8
대구	2.3	5.0	1.7	5.3	0	2.0	1.3	4.1
인천	2.2	5.2	0.8	4.0	0	2.0	1.0	3.7
광주	2.0	6.7	1.0	5.3	0	2.0	1.0	4.7
대전	3.5	4.0	2.0	5.5	0.35	3.0	1.9	4.2
울산	1.0	3.5	1.8	5.0	0	2.0	0.9	3.5
경기	2.4	6.0	1.4	5.6	0.4	3.8	1.4	5.1
강원	1.9	5.9	2.9	7.6	0.6	3.9	1.8	5.6
충북	3.8	4.9	2.7	7.1	0.6	3.3	2.3	5.1
충남	1.1	4.4	2.6	7.3	0.5	3.6	1.4	5.1
전북	1.1	4.5	1.9	6.3	0.3	3.0	1.9	4.6
전남	1.3	4.8	1.9	5.2	0.1	2.4	1.1	4.1
경북	1.6	5.0	2.3	4.8	0.1	2.3	1.3	4.1
경남	3.7	6.5	2.7	6.8	0.8	4.5	2.4	5.9
제주	2.7	6.0	3.0	6.0	0.3	4.0	2.0	5.3
전체평균	2.6	5.5	2.2	6.2	0.3	3.3	1.7	5.0

자 료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정책개발원 소식」, 2000년 9·10, p.13.

제 8 절 축제 전문인력의 부족

- 축제를 포함한 이벤트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이므로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는 축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축제의 기획, 운영, 진행,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축제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축제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의 축제 관련 상설기구로는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축제문화연구소, 한국예총도지회 등이 있지만, 특정 축제에만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문인력과 기관이 필요하다.
- 제주도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주의 축제는 대부분 전문성을 결여한 축제 조직자에 의해서 축제의 기획, 운영, 진행,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축제현장에서 영상, 조명, 음향, 연출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대단히 부족하여 축제 및 이벤트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또한 관주도의 축제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축제의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사 이동될 경우 비전문성 공무원이 축제를 기획·운영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 9 절 도민의 자발적 축제 참여 미흡

- 기존의 도내 축제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대부분 축제들이 초청 연예인이나 민속예술단 등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의 행사 관계자들에 의해 축제 분위기를 북돋우려 안감힘을 쏟아온게 사실이다.
- 인도네시아의 ‘발리예술제’나 하와이의 ‘카메하메하 축제’처럼 지역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주민들의 역사·전통을 재현하려는 사례를 본받아야한다.

제 10 절 축제평가 체계 미흡

- 제주지역 축제는 축제가 지역화합 및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측면이 강한데도

체계적 또는 계량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 일부의 축제들은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지만 그 시도에 대한 효과도 우선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에서 엇갈리는 주장과 함께 ‘적극적인 개혁 추진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축제의 다음해 발전방안을 구축하는데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체계적인 목표 설정이 어렵다.
- 먼저 지역축제 자체에 대한 평가는 축제기간 중 행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기록 보존을 통해 행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축제 목표와 컨셉을 재정립하고 다음 연도의 축제 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feedback)과정을 거쳐야 한다.
- 대부분 제주지역 축제평가보고서가 설문조사법, 신문 기사 내용 등에 의존하여 축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한 축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효율적인 평가기법을 확립하여 평가표를 만들어야 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문서들은 차기년도에 실시될 축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제 8 장 제주지역 축제의 활성화방안

제 1 절 기본 목표 및 방향

1. 기본 목표

- ‘지역적인 공감대’와 ‘지역주민의 동질성 확보’라는 대전제 위에 축제를 통해 문화 보존, 문화예술의 전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2. 기본 방향

- 제주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향후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현재 제주지역의 축제개최 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축제의 통합화 방안 마련

- 현재 도내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는 도, 시·군 별로 남발되고 있으며, 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끝나는 실정이다.
- 제주도내에서 개최되는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축제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 도,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열리는 축제를 면밀하게 진단·평가를 통해 축제의 통폐·합화 방안을 마련하고, 집중 육성 축제를 선정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나. 축제의 체계화 방안 마련

- 제주지역 축제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행정기관과 특정 단체의 합동주

관이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축제 기획 및 운영의 전문화와 체계화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 이는 지자체의 경쟁적인 축제의 개최에 큰 원인이 있다. 축제 기획 및 운영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지원 방안 강구

- 일부 축제를 제외하고는 제주지역 축제의 대부분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여행업체 등 관광사업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미흡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라. 지역축제의 자립화 방안 강구

- 타 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제주지역 축제의 대부분이 도, 시·군 보조 예산 등으로 축제가 치루어지고 있다. 안정적 축제기금 조성을 위한 축제기금조성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 제주지역 축제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축제의 통폐·합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축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축제의 체계화·차별화를 유도하며, 축제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축제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제주지역 축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민간이 축제를 주관하고 행정기관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협조, 행정지원, 예산지원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효율적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3. 주요 개선 과제

- 지자체별로 축제 난립, 축제 프로그램 차별성 미흡, 축제 기획 및 운영의 전문화와 체계화 미흡, 관광상품화 미흡, 안정적 축제 기금 확보 미흡 등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개선과제를 설정한다.

구 분	문제점	개선과제
체계화	· 축제 기획 및 운영의 전문화 · 체계화 미흡 · 축제해설체계 미흡 · 축제전문인력 양성 미흡 · 축제자원봉사체계 미흡	· 문화관광자원 정보체계 구축 · 축제 기술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 축제안내정보시스템 구축 · 통합적 축제자원봉사시스템 구축 · 국내외 유명축제와 자매결연추진 · 축제정보망 구축
통합화	· 축제전담조직 부재 · 지자체별 축제 난립	· 관련조직 개선 · 축제평가체계 확립 · 집중 육성 축제의 선정 및 지원
관광상품화	· 관광상품화 미흡 · 홍보전략 미흡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미흡 · 축제 소재 빈약	· 다양한 축제소재 발굴 · 여행업계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축제 캘린더 · 지도 제작 · 차별화된 홍보전략 마련
자립화	· 안정적 축제기금 확보 미흡 · 지역주민 참여 미흡	· 축제기금 조성방안 마련 · 지역주민 참여방안 마련

[그림 8-1] 제주지역 축제 활성화 체계

제 2 절 제주지역 축제의 활성화 방안

1. 축제의 통합화

가. 관련 조직 개선

- 제주지역 축제의 통폐·합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다.
- 현재 제주도에는 제주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나 이벤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축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중요성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 제주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축제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 집단이 많을수록, 단일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축제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
- 이러한 필요성과 실정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축제를 전담하여 개발·육성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이 시급하다. 조직은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협력 관계 구축으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가칭 ‘제주도축제평가위원회’ 신설

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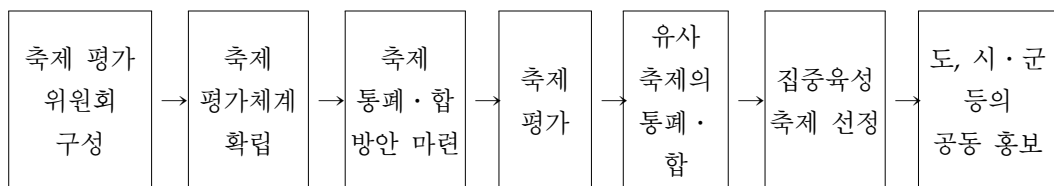
- 기존 제주도에는 제주지역의 관광이벤트(축제)를 국제수준의 이벤트로 발전시켜 관광객 유인 효과를 높이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에 ‘제주도축제자문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관광학계, 관계 공무원, 언론인, 관광협회, 관광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관광이벤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관광이벤트 개발 및 아이디어 제공, 지원대상 이벤트의 심의 선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

나 현재 실질적인 활동은 미비한 실정이다.

- 제주지역 축제의 평가와 자문 등을 전담할 실질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나) 추진방안

- 우선 기존의 '제주도축제자문협의회'를 개편하여 제주지역 축제의 평가와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인 신설 '제주도축제평가위원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명칭 : 가칭 '제주도축제평가위원회'.
 - 성격 :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범도민적 위원회.
 - 구조 : 도, 시·군, 제주도관광협회, 한국예총도지회, 축제문화연구원, 제주섬문화 축제조직위원회, 학계, 관광업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한다.
 - 기능
 - 축제의 통폐·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 축제의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매년 축제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축제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 축제평가를 토대로 집중 육성축제를 선정한다.
- 축제에 대한 평가는 문화관광부에서 마련한 문화관광축제 평가기준과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평가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제주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 마련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1년동안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집중 육성 축제와 유사한 축제의 통·폐합화 방안, 개별 축제의 발전전략 등을 마련한다.



[그림 8-2] 제주지역 축제 통폐·합 방안 흐름도

2) 축제전담부서 또는 전담기구 신설

가) 필요성

-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와 적절한 배치 그리고 체계적인 조직 구성은 축제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그러나 현재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축제에 별도의 조직을 두는 일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축제 개최에 따른 인력과 조직 구성은 행사 몇 개월 전부터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장기적 홍보체제 등에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은 상시적 고용 창출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 따라서 지역축제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조직이 필요하다. 각각의 행사프로그램은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 일임하되 행사의 기본적 방향과 지침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전문조직에서 조정해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축제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홍보, 관광상품화 방안, 축제 발전방안 등의 업무를 '축제전문조직'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추진방안

- 축제전담조직의 설립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과 신설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대안 1)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 제주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활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활용.
 - 제주도관광협회의 활용.
 - 대안 2) 신설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
 - 가칭 '제주도관광진흥원'의 관광사업부⁵⁷⁾에서 담당.
- 축제전담조직의 설립대안은 통제기능, 조정기능, 협력기능이라는 전담조직의 기능

57)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기초모형 개발」, 2000. 참고

성과 실현성, 조직위상, 재정력, 전문성이라는 전담기구의 조직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능성과 조직능력의 거의 모든 면에서 가칭 ‘제주도관광진흥원’이 축제전담조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도관광협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미약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축제전문조직 설립대안 비교

구 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주도관광 진흥원내	제주국제컨벤 션센터내	제주섬문화축 제조직위원회	제주도 관광협회내
조직기능	통제력	중앙정부	×	×	×	×
		지방자치단체	△	×	×	×
		민간업계	△	×	×	△
	조정력	중앙정부	○	×	×	×
		지방자치단체	○	○	○	○
		민간업계	○	×	×	○
	협동력	중앙정부	△	×	×	×
		지방자치단체	○	△	○	○
		민간업계	△	△	△	○
추진능력	조직위상		○	△	△	×
	실 현 성		○	△	△	△
	재 정 력		○	×	×	×
	전 문 성		○	△	△	△

주 : ○높음, △보통, ×낮음

<표 8-2> 축제전문조직의 주요 사업분야

구분	주요 사업분야
축제문화 발전분야	· 축제프로그램의 성공사례, 문제점 등에 관한 정보교환 관련 사업 : 워크샵, 관계자 회의, 책자 발간 등. · 축제 관련 DB 구축 및 네트워크화. · 지역문화의 주체적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문화행사 의미를 해당 지역주민 등에 전파 또는 그 방안 수립. · 지역내 관련 업체 육성을 위한 방안 수립 : 기획·연출부문, 영상·음향·시설부문, 도우미 등 인력관리 부문.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축제테마 공모 및 개발.
축제정책 개발분야	· 보존 및 집중 육성해야 할 지역축제의 설정. · 전도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축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고 재정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정의 역할. · 모든 축제에 대한 보호 및 육성 등급 책정 등 체계적 지원·관리방안 수립 · 지역 축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원칙과 기준의 설정.
통합적 홍보분야	· 지역내 개별 축제들의 연중 종합적 홍보 : 지역내·외 대상 상시 홍보채널 확보 및 실행. · 여행업, 호텔업 등과 협력하여 축제의 상품화 방안 마련.
기술적 지원분야	· 문화관광축제의 가치 평가에 따른 재정적·인적 자원의 지원과 지원 내용의 결정 · 지역의 문화관광축제의 보존과 기록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회장·캐릭터 사업분야	· 회장·캐릭터 사업 발굴 및 지원
기타 분야	· 개별 축제 개최자 지원 요구 접수 및 해결 방안 강구.

나. 축제평가체계 확립

1)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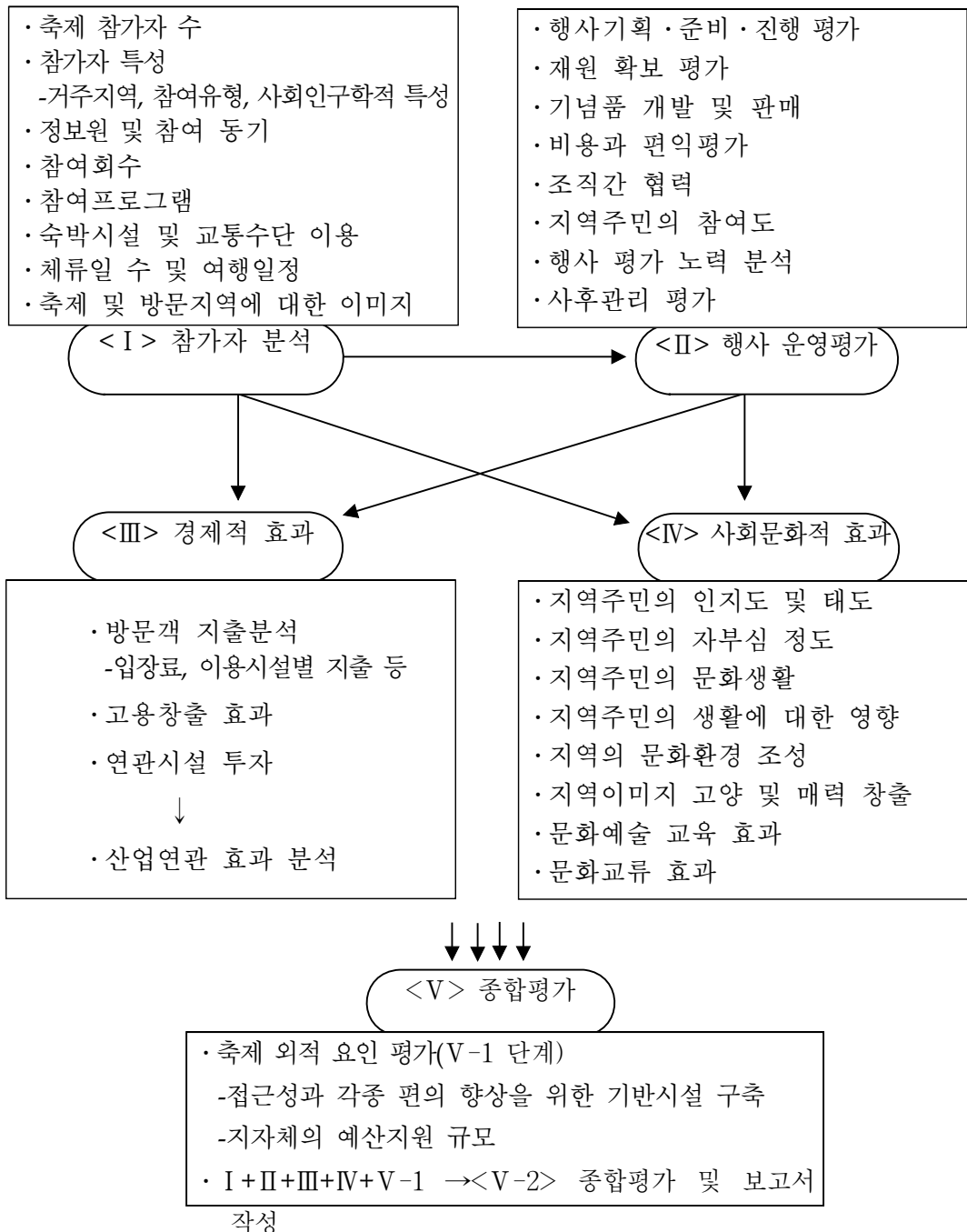
-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확보해 합리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제주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은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든 축제 가운데 그 취지와 목적, 테마와 주제 등의 차별성과 운영방식의 효율성 및 성과 등을 감안하여 축제별로 육성 등급을 책정하는 등 통합적 관리가 요구된다. 즉, 지자체의 예산 등 행·재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2) 추진방안

가) 제주지역 축제 평가지표 마련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역축제의 평가지표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면 [그림 8-3]과 같다.
- 이 그림에서 나타난 각 단계는 형식상의 처리단계일 뿐 실제 평가과정에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V-1 단계는 다른 단계와의 관계없이 평가할 수 있으며, II단계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 하지만 대체적으로 I 단계는 다른 평가단계 보다 먼저 수행되어야 하며, III단계와 IV단계에 앞서 II단계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I 단계의 ‘참여프로그램’ 항목은 II단계 평가의 기초가 되며, ‘숙박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항목은 III단계, 그리고 ‘축제 및 방문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IV단계 평가 자료가 된다. 또한 II단계에서의 ‘비용과 편익평가’나 ‘기념품 개발 및 판매’ 항목은 III단계 평가에, ‘조직원 협력’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IV단계 평가 자료가 된다.
- I 단계의 모든 측정치들은 다른 단계를 평가하는 기본이므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동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단계 내에서도 항목별 평가 순서 등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II단계에서는 ‘비용·편익평가’ 이전에 ‘재원 확보’ 상황 등이 파악되어야 하며, IV단계에서는 ‘산업연관 효과’ 분석 이전에 ‘방문객 지출’, ‘고용창출 효과’, ‘연관시설 투자’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그리고 접근성과 각종 편의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자체의 예산지원 규모, 그리고 개최 회수 등 축제의 외적 여건을 평가하여 V단계 ‘종합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축제의 내용과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모든 축제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토대가 된다.



[그림 8-3] 단계별 평가지표 및 상관관계

나) 제주지역 축제 평가기준표

- 제주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축제 관광상품화 평가체계를 제안하면 다음 <표 8-3>과 같다. 여기서는 축제 관련 평가항목을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요성에 따라 배점을 할당하였다. 또한 각각의 관련 항목은 세부항목으로 나누며 그 중요도는 세부항목내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평가 배점을 할당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표를 <표 8-4>에서 제시하였다. <표 8-3>과 <표 8-4>를 참고로 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축제 평가기준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나 평가 주체는 주최자, 정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대상도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 또는 다년간에 걸쳐 치러져온 행사 등 여러 가지다. 따라서 획일적인 평가 기준은 다양한 형태의 평가 방법에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특정한 평가 주체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 대상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시된 평가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표를 참고로 축제 주최측이나 정책입안자는 평가 목적에 입각하여 평가 항목을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있으며, 세부항목의 배점 규모를 달리함으로써 축제의 방향을 조정·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를 특정유형으로 정립함으로써 축제의 성과와 지향점, 나아가서는 축제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축제 평가를 통해 축제의 당면 과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으나, 1년만의 시도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보다 장기적인 치유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설정은 2~3년간의 평가를 통한 시행착오를 종합할 때 파악될 수 있다.
- ‘광주김치축제’의 경우 참가업체간의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하강곡선을 다시 상승곡선으로 만드는 데 3년 걸렸다. 또한 전국적으로 불붙고 있는 도자기 축제의 활성화 요인도 장소적 요인, 개최시기의 적절한 결정, 홍보전략의 영향, 축제 방문객들의 이미지 요인, 기후 요인, 주변의 경쟁 요인 등 다양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

<표 8-3> 문화관광축제의 관광상품화 관련 세부 점검항목 및 평점 구분

관련항목	배분	세부항목		기준점수
1. 축제행사의 구성 및 내용	25%	행사내용	독창성	7
			흥미성	7
			이해성	7
			충실성	7
			고유성	7
		개최기간		5
		체험관광		5
		주민참여 프로그램		5
		소계(A)		50
2. 문화관광자원	15%	자연 지리		5
		지역특산물		5
		역사문화		5
		스포츠 레크레이션		5
		관광관련 문화행사		5
		타관광지와 연계성		5
		소계(B)		30
		3. 관광수용체계	10%	교통체계 구축
주차시설 및 안내체계				2
식당(인근 및 간이)				2
대중휴게시설/편의시설				2
공연시설				2
홍보(인터넷 등)				5
축제추진 인력 조직의 구성				2
소계(C)				20
4. 경제효과	25%	관광객 유치실적	외국인	15
			내국인	10
		캐릭터 상품개발		15
		스폰서쉽 유치		10
		소계(D)		50
5. 사회문화	10%	안전성 및 범죄		5
		외국과의 연계성		5
		지역주민 호응도		10
		소계(E)		20
6. 환경·기술	5%	환경보호프로그램		5
		축제후 쓰레기 규모		5
		소계(F)		10
7. 외적 요인	10%	지자체의 개최 또는 지원 의지		5
		개최시기		3
		개최회수		3
		행사장 접근성		3
		인근 숙박시설 유무		2
		기반시설		2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2
		소계(G)		20
총계(A+B+C+D+E+F+G) = 200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방안」, 1998, pp. 116-117을 참조하여 재작성.

<표 8-4>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구 분	내 용
평가항목	○ 공통평가사항 : 축제장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 ○ 외래객 유치실적 : 인바운드 여행사의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조사 ○ 문화관광부 자체평가 : 축제 개최시 참관
산정방법 : 총점 100+가산점	○ 총점 100점 : 공통평가사항(70점)+외래객 유치실적(20점)+문관부 자체평가(10점) ○ 가산점 : 전년대비 외래객 유치실적에 따라 차등 부여 · 전년도 외래객 유치실적 대비 금년도 증가율이 - 1%이상 ~ 10%이하 증가시 1점 - 11%이상 ~ 20%이하 증가시 2점 - 10% 증가시마다 1점씩 추가 - 91%이상 ~ 100%이하 증가시 10점 - 100%이상 증가시, 최고 15점 부여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 축제별 공통평가 항목의 설정 및 설문조사 · 축제별 전문가 평가시 공통평가항목을 포함해 설문조사하여 축제별 방문객 의견 상호 비교 · 공통평가 7항목 - 방문객중 관광객(외국인, 외지인)비율 - 관광객 1인당 지출액(숙박, 식음료, 현지교통비, 유흥, 쇼핑비 등) - 전체적인 행사 짜임새에 대한 관광객의 평가 -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음식 판매부스 및 가격에 대한 만족도 - 관광정보안내체계에 대한 만족도(안내부스, 안내요원, 홍보물 등) -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 설문조사 방법 - 기간 : 축제기간중 3일간 조사(토, 일요일은 반드시 1일 포함) - 유효표본수 : 250명 이상 - 응답내용 : 7단계로 구분(예 : (1)아주만족, (2)~(6), (7) 아주불만족) - 구체적인 산정방법 : 문항별 10점 만점, 총점 70점 기준으로 차등 부여 · 외래객 유치실적 조사 - 지자체 및 인바운드 여행사의 유치실적 조사 - 구체적인 산정방법 : 20점 만점을 최고로 차등 부여 · 문화관광부 자체 평가 - 축제시 문화관광부 참관자가 프로그램 전반(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정보제공 및 홍보전략, 관광객 참여도 등을 평가 - 구체적인 산정방법 :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으로 5등급 평가

자료 :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p.7.

다. 집중 육성 축제의 선정 및 지원

1) 필요성

- 현재 제주도에에서 개최되는 축제 가운데 특성화·차별화 된 모든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축제는 그대로 놔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대상 축제의 선정이 시급하다.
- 집중 육성 축제는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어느 기준 항목에 우선 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 추진방안

- 선정 기준으로는 앞서 축제 평가와 관련해서도 언급되었듯이, 개념적인 것과 유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념적 기준으로는 주제 또는 컨셉, 그리고 소재 등의 특성화·차별화 수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유형적인 기준으로는 행사의 규모, 행사의 개최시기, 시설, 행사지 주변 관광지나 경관, 행사지역의 접근성(교통), 이용시설의 수준 등이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선정 기준으로서도 다소 모호할 수 있지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간 안배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 같은 사항들은 가칭 ‘제주도축제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연구를 통해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축제를 평가한 후 집중 육성 축제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축제는 축제의 규모와 파급효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2000년도의 경우 제주도는 18개 축제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집중 육성 축제의 선정 기준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가칭 ‘제주도축제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집중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지원 등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지역주민 의견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제주지역 축제중 인지도, 지역적 특성, 상품화 가능성, 집중 육성해야 할 축제 등의 내용을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 지역주민 의견조사 결과 제주지역 축제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축제’와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미지가 반영된 축제’는 ‘유채꽃잔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을 확대하여 규모를 늘려야 할 축제는 ‘한라산눈꽃축제’로 나타났다.

<표 8-5> 제주지역 축제중 인지도, 문화적 이미지, 상품화 가능성이 큰 축제(지역주민 의견조사)

내용 \ 순위	1순위 축제	2순위 축제	3순위 축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축제	유채꽃잔치	한라산눈꽃축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미지가 반영된 축제	유채꽃잔치	한라문화제	한라산눈꽃축제
예산을 확대하여 규모를 늘려야 할 축제	한라산눈꽃축제	유채꽃잔치	한라문화제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계절별로 육성해야 할 축제는 봄인 경우 ‘유채꽃잔치,’ 여름인 경우 ‘해변축제’와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을인 경우 ‘억새꽃축제,’ 겨울인 경우 ‘한라산눈꽃축제’로 나타났다.

<표 8-6> 계절별 육성해야 할 축제 종합(전문가 의견조사)

계절 \ 순위	봄	여름	가을	겨울
1순위	유채꽃잔치(61.8%)	해변축제(27.3%)	억새꽃축제(51.8%)	한라산눈꽃축제(75.4%)
2순위	왕벚꽃잔치(18.2%)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25.5%)	한라문화제(28.6%)	정월대보름들불축제(19.3%)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지자체별 육성해야 할 축제는 제주도인 경우 ‘섬문화축제,’ 제주시인 경우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서귀포시인 경우 ‘칠십리축제,’ 북제주군인 경우 ‘정월대보름들불축제,’ 남제주군인 경우 ‘성산일출제’로 나타났다. ‘유채꽃잔치’인 경우 지자체별로 순회 주관함에 따라 순위가 오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7> 지방자치단체별 육성해야 할 축제 종합(전문가 의견조사)

순위\지자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1순위	섬문화축제 (33.3%)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36.2%)	칠십리축제 (42.6%)	정월대보름들불 축제(100%)	성산일출제 (60.9%)
2순위	한라산눈꽃 축제 (31.4%)	왕벚꽃잔치 (29.8%)	바다축제·제주 아이언맨트라이 애슬론대회 (19.1)		고사리꺾기대회 (19.6%)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축제는 ‘유채꽃잔치’였으며,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는 ‘섬문화축제’로 나타났다.

<표 8-8> 지역적 특성과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순위	1순위 축제	2순위 축제	3순위 축제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축제	유채꽃잔치 (24.1%)	한라문화제 (18.5%)	정월대보름들불축제 (13.0%)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	섬문화축제 (23.2%)	한라산눈꽃축제 (19.6%)	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 (17.9%)

○ 축제 육성 방안 예시

- 제주세계섬문화축제
 - 세계섬문화축제는 각 섬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실 있는 문화축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날씨에 관계없이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축제장을 마련한다.
 - 참가 섬들의 공연 내용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섬의 대표적인 예술단을 초청하도록 한다.
 - 축제 개최시 연도마다 주제를 다르게 하여 세계섬들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한다.
- 입춘굿놀이
 -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온 지역축제이며, 입춘절 제주에만 남아있는 풍농굿이라는 특성을 살려내어 제주도를 대표하는 ‘겨울축제’, 지역문화축제로 복원 개발한다.

- 제주지역 유일의 탈놀이인 '입춘탈굿놀이'를 발전시켜 각 지역의 탈춤문화권과 연계한 전국 수준의 제주탈놀이축제로 개발한다.
- 한라문화제
 - 각 마을 민속보존회를 통하여 전승되는 특장의 민속놀이(민요·굿놀이 등)를 보여주는 제주민속축제이며,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마을 민속보존회나 민속놀이 전승 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장려가 필요하다.
 - 한라문화제가 도민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라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벤트성 축제의 정비와 새로운 축제의 개발
 - 벚꽃잔치, 유채꽃 잔치, 억새꽃축제 등 자연을 소재로 한 행사성 축제는 지양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동으로 체험하며 만들어 가는 참여형 환경축제로 개발한다.
 - 들불축제와 같이 발전 가능한 이벤트성 축제는 정월의 마을제 등 세시풍속과 연계하여 전통성을 보완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잠녀축제', '조랑말축제(테우리 축제)'와 같이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성 축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 '4·3 위령제', '세화리 해녀항쟁', '1901년 이재수의 난' 등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새로운 '역사맞이' 축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 성산일출제, 고산노을제, 한라산눈꽃축제 등 날씨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축제는 날씨와 관계없이 운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날씨에 대비한 대책이 요구된다.

2. 축제의 체계화

가. 문화관광자원 정보체계 구축

1) 필요성

- 문화관광자원 정보체계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정책상 관광자원을 관리하

기 위한 문화관광자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주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유·무형의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주도 문화관광자원의 보호, 문화관광 상품개발, 독특한 지역문화를 축제화 할 수 있는 소재 발굴, 종합적인 축제 발전계획 수립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추진방안

- 문화관광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자원(유·무형 문화재, 민속 및 생활풍습, 지역특산물 등)에 대한 목록화 작업이 시도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제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광자원 유형별로 종합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 문화관광자원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DB)를 문화관광자원 유형별, 문화관광자원 개발수준별, 관광이용가능 일수별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문화관광자원에 관한 정보들은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하여 제주도 문화관광자원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관광마케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전산작업을 통하여 향후 궁극적으로 인터넷과 연계시켜 전세계적인 관광자원정보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수집·분석은 제주도 전역의 축제요소나 축제기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기존 제주지역 축제의 프로그램 차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관광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문화관광자원 전체에 대한 개발·보존·이용·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제주도 지역축제에 대한 단·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이는 제주지역의 관광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표 8-9> 문화관광자원 정보체계의 구축

구 분	내 용
문화관광자원 목록화 작업	관광자원 유형별 종합적인 조사
문화관광자원정보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문화관광자원 유형별, 개발수준별, 관광이용가능 일 수별 등의 기준하에 구축
제주도 문화관광자원 홍보 프로그램 개발	관광마케팅과 연계, 인터넷과 연결하여 전세계적인 관광자원정보시스템 구축

나. 축제 기술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 필요성

- 축제 전문인력은 축제를 기획하는 일에서부터 연출·제작·개최에 이르기까지 스텝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제작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람, 돈, 물건, 정보, 문화와 같은 경영자원을 이용해 축제를 성공시키는 수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또한 시대의 요청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대중의 흥미를 끄는 연출로 디자인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축제 전문 프로듀서이어야 한다.

2) 추진방안

- 제주도는 이와 같은 축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각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 전문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그리고 창출 인력의 관리 및 수급 조절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
- 또한 축제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축제 담당 인력의 전문화도 필요하다. 축제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이므로, 담당 인력의 빈번한 교체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사회 전반에 전문가 의식이 형성되어 있고,

담당자는 3~4년씩 동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표 8-10> 축제 기술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축제 주관처 임직원 · 관광사업체 임직원 · 축제 참여 자원봉사자
교육내용	· 세계관광의 동향 · 축제마케팅 · 축제기획 · 국내·외 유명 축제 사례 · 축제상품 개발
교육방법	· 외부전문가 초빙 · 교육기간은 매년 1회로 함 ·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는 해외 유명축제 견학 등의 특전 부여

다. 축제 안내정보시스템 구축

1) 필요성

- 우리 나라의 대표적 체험관광상품으로서 자리잡은 문화관광축제의 경우에도 외래 관광객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해설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외래관광객이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의미없는 행사가 되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축제의 외래관광객 참여가 저조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축제 행사의 내용을 잘 모르는 관람객들에게 행사에 대한 안내 및 해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특히 전통민속축제들의 경우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전통의식의 의미와 절차 등 공연 내용을 알고 있을 뿐, 대다수의 관람객들은 그 의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람객의 축제에 대한 참여도를 낮게 하고, 전체적인 축제 만족도를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만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낮게 마련이다.
- 특히 제주지역 축제중 전통민속축제인 ‘한라문화제,’ ‘탐라국립춘국놀이,’ ‘덕수리 전통민속축제,’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등에 대한 안내 해설체계를 강화하는 서비스가 축제를 관광상품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추진방안

- 서양의 일부 민속축제의 경우 안내 팸플렛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품질을 고급화시켜 원하는(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시도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관람객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축제 기념품의 기능도 할 수 있다.
- 안내정보의 효과적 해설은 축제 안내원, 자원 봉사자, 향토사가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각 축제의 실정에 적합하게 ‘안내투어’를 오전, 오후로 몇 차례 나누어 구성하여 행사 진행과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투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또한 행사장별로 공연하기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관람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표 8-11> 축제안내정보시스템 구축

과 제	추진방안
안내 팸플렛 제작	· 개별 축제별 해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안내 팸플렛 제작
축제 안내원 육성	· 통합적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 · 안내투어 시스템 구축
안내 표지판 개선	· 행사장 안내표지판 개선
축제 홈페이지 개선	· 축제 홈페이지 구축 · 축제 홈페이지 내용 개선 · 축제 정보망 구축과 연계

라. 통합적 축제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1) 필요성

-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된 신문기사 내용 분석에서도 ‘성산일출제,’ ‘서귀포칠선녀축제,’ ‘세계 철인3종경기대회’ 등이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보도내용이 언급되었다.

- 국내적으로 최근 관광부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하여 제주지역의 경우 통합적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2) 추진방안

- 대학교, 전문대학의 관광 관련 학과 학생들의 자원봉사 안내활동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밖의 관광전문기관에서도 교육 과정에 관광 관련 자원봉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향후 관광분야에서 일하게 될 잠재 관광종사원에게 안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효과의 제공과 관광인력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또한 주부나 퇴직 교사 등을 이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축제와 관련된 일정의 혜택을 주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의 가족들에게 축제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포상하는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 물론 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제로는 효율적일수 있으나,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이벤트, 전문적인 관광안내원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관광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 시스템은 제주도 관광문화국, 제주도관광협회 등에서 통합적인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 제주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단체와 특히 각종 이벤트, 관광안내 등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는 더욱 중요하다.

<표 8-12> 제주지역 축제 자원봉사자 활용분야 프로그램

분 야	역 할	활동내용	배 치
교 통	· 교통소통 지원 · 안내 · 수송지원	· 교통 표지판, 신호체계 모니터 · 인근 관광, 숙박, 지역간 수송 지원 등	· 생명선(횡단보도)신호 준수계도 (휴무택시 기사 등)
문화관광	· 문화안내 · 축제안내 · 관광안내	· 축제의 역사, 제주문화 등 외국인 안내·통역 · 관광안내소 배치안내, 숙박업소 안내, 제주관광 안내 등	· 축제참가 불편사항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통보 · 외래관광객중 장애인, 청소년, 노약자 등 동행 안내
홍보	· 축제 국내외 홍보	· 인터넷, Ham, 구전홍보 등을 통한 홍보	· 사이버 제주축제 기획소개, 제주축제테마 게시 · 아마추어 무선통신사의 제주축제 메시지 각국 전파
질서	· 축제장 공중 질서 확립 유도 · 상거래 질서 확립 유도	· 축제장 질서 계도 활동 · 부당요금, 불량상품 근절지도	· 축제장예절, 관람예절 시연 및 준수 계도 · 건전 소비문화 정착 및 외국 우수 사례 전파
환경	· 환경장비 및 모니터 · 공중화장실 모니터	· 가로시설물 등 청결유지 · 공중화장실 등 청소·이용상태 점검	· 깨끗한 화장실, 찾기편한 화장실 모니터, 계도
민박	· 민박제공	· 국내외 관광객에게 제주가정, 문화체험 및 이해	· 민박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여 봉사	· 대학교 동아리, 문예진흥기금단체의 행사장 공연, 전시회 등 실시	· 행사장 열린 문화마당 · 전시

자료 : 서울시, 「새서울 자원봉사 2002 계획(안)」, 1999. 내용 수정 작성.

마. 국내외 유명 축제와 자매결연 추진

1) 필요성

- 제주지역 축제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면에서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국내외 유명 축제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축제기획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제주지역 축제와 조화를 시킨다면 시너지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2) 추진방안

- 제주도 및 시·군이 자매결연 도시와의 전반적인 관광협력과 각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축제의 장점을 살려 축제의 기획에서 운영, 평가단계까지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또한 국내외 유명 축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통해 축제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며,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제’와 ‘한라산눈꽃축제’의 경우 일본의 ‘삿포르 눈꽃축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의 경우 2000년에 처음 개최되면서도 축제의 주제와 부합되는 국제적인 관광축제의 하나인 ‘호주과학축제(Australian Science Festival)’와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화교류를 시도한 사례가 있다.

바. 축제정보망 구축

1) 필요성

- 싱가포르 관광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연간 외래객은 700만명에 달하며, 실제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도 약 700만명 정도 된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싱가포르의 관광 홈페이지는 늘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축제의 경우 전문 사이트를 따로 개설하여 홍보하고 있다.
- 축제는 일정한 기간에만 실시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축제는 언제나 계속되고 있다. 오프라인 축제가 끝난 뒤에도 이곳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기획을 시험하며, 지속적으로 홍보 아이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받는다면 더 나은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단순히 지역만이 아닌 전국, 또는 세계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
-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며 외부의 축제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등의 지속적

이고 전문화된 홍보활동의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축제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 현재 도, 시·군, 제주도관광협회의 홈페이지의 경우 대부분 주요 축제에 대한 소개 항목은 있으나, 축제명과 주관처, 시기 등과 관련된 한정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추진방안

- 인터넷을 통해 국내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문화인프라를 통해 지역축제관련 콘텐츠를 단일화해 네티즌의 방문을 유도하고 네티즌의 의견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각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다른 지역의 축제 정보를 공유해 지역축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축제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도에서 거행되는 모든 축제 및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를 PC통신망 및 인터넷상에 올림으로써 온라인상의 정보 접근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축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유·무선을 통해 통합서비스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주지역 축제 전문 사이트를 개설하여 독자적인 축제정보를 제공하며, 전자지도, 사이버여행사의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 수행하여, 여행사별 상품판매를 촉진하며, 축제정보 기능뿐만 아니라 축제상품 판매, 호텔·교통편 등 예약·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표 8-13> 축제정보망 구축

구 분	현 홈페이지 문제점	장점
축제 전문 사이트 개설	· 한정된 축제 정보 제공 · 지역축제에 대한 콘텐츠가 전혀 소개되지 않음	· 행사전, 행사후 지속적 홍보 가능 · 상세한 축제정보 제공 가능 · 전문적인 사이트 역할 수행

3. 축제의 상품화

-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한 지역에 국한된 지역행사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제주지역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경우 ‘행사 자체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비교적 우연적인 판단에 의해 축제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즉, ‘여행도중에 잠시 경유’하거나 ‘동반자와 여가시간을 보내려고’ 찾는 것이다.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축제의 의의와 다양성 등을 알림으로써 관광자원화해 나가야 한다.
- 홍보 강화의 필요성은 참가 결정 시기나 정보 입수 경로에서도 나타난다. 관광객 의견조사에 의하면 참가 도민들에 비해 관광객들은 ‘행사 당일’에 결정하는 비율이 높으며, 매스컴 보다도 ‘거리의 현수막’을 통해 행사 개최 정보를 파악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은 타 지역의 잠재관광객을 축제 참가자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크게 모자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가. 다양한 축제 소재 발굴

1) 필요성

- 축제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소재 발굴에 있다.
- 세계 각국의 축제 및 이벤트는 대부분 문화, 종교,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행사의 정례화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한 사례가 많다. 이렇듯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이벤트는 지속성이 강하고 외래객들에게도 문화적 신선감을 주므로 볼거리가 됨은 물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므로 관광이벤트로 적합하다.
- 다양한 축제 소재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해서는 좋은 소재나 다양한 아이디어의 수집 채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발굴은 개별 조직에 의하기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기존 제주도의 문화예술행사를 활용하여 축제의 소재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추진방안

- 우리고유의 전통민속을 발굴하여 특색있는 향토문화를 재조명하는 전통민속의 대 축제인 한국민속예술축제(1999년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명칭 변경)을 비롯한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의 문화예술행사에 제주도에서도 매년 선정된 작품들이 참가하고 있다.
- 이러한 작품들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사 후에 활용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향토문화의 재조명과 계승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또한 이를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알린다는 취지에서 제주지역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가칭 ‘제주축제소재 공모전’을 개최하여 제주지역 향토문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축제소재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 관광협회, 선정된 축제의 소재는 여행사 관계자나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표 8-14> 다양한 축제 소재 발굴방안

구 분	문제점	추진방향
제주지역 문화예술행사	· 기존 문화예술행사의 활용 미흡	· 문화예술행사의 발굴 및 지원 · 기존 축제의 주제와 맞는 문화예술행사를 개별 축제 프로그램에 편성
축제소재 공모전	· 축제 아이디어 부족 · 축제 프로그램 단순	·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축제 아이디어를 프로그램화 · 프로그램은 모니터링을 통해 축제의 가능성 진단
인터넷 활용	· 축제 아이디어 부족 · 축제 프로그램 차별화 미흡	· 도, 시·군 홈페이지에 축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내용 게재 · 채택된 소재 시상

- 제주도의 전통문화나 자연적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관광객의 관심을 모을 만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소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8-15> 축제 소재(1)

주 제	축제 소재
역 사	· 선사시대 및 탐라국을 재현하여 체험할 수 있는 축제장 구축 · 유배지를 찾아 유배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화 · 항몽유적지의 역사재현 및 항전 체험 축제 · 일제시대 때 강제노역으로 만든 인공동굴의 체험교육장 · 대정읍 소재 군사 훈련장의 재정비를 통한 안보문화 체험장
문 화	· 제주전설 및 설화에 근거한 축제 · 마을단위 전설·설화, 민요 등에 근거한 축제 · 향토음식의 개발을 통한 제주음식축제 · 전통민속놀이 축제 · 전국 민속주 축제 · 세계음식축제 · 세계토산품축제 · 세계태권도축제 · 세계장난감축제
지역산업	· 지역산업에 기반을 둔 축제(감귤 꽃, 선인장, 조랑말, 해산물) · 체험어장을 중심으로 풍어제를 축제화 · 지역별, 업종별에 따른 체험농장을 축제화(타조, 말, 소 등을 이용) · 신혼관광지의 메카를 부각시키는 세계신혼축제
자연환경	· 바람을 주제로 한 바람축제(윈드서핑, 요트, 연날리기, 열기구, 행글라이더 등) · 물을 주제로 한 세계생수축제 · 눈 축제와 함께 'Snow Big Sale' 실시 · 성산일출제와 연계한 송년 맞이 송악산일몰제 · 생태관광 이벤트축제

- 또한 관광객이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축제 프로그램별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8-16> 축제 소재(II)

내 용	개 발 대 상 활 동
관광농원의 활동을 축제화	· 각종 과일따기, 딸기따기 감자캐기, 고구마캐기, 산채뜯기, 버섯따기 등 각종 채취 활동 · 식물공장 관람, 꽃 감상 및 이름 맞추기, 비닐 하우스, 버섯재배시 견학, 젖소관리 및 젖짜기, 토끼·양털깎기 가축 사육 · 물놀이, 등산, 각종 스포츠(싸이클, 테니스, 퍼팅골프, 게이트볼 등) 활동 · 민속놀이 활동(제기차기, 널뛰기, 썰매타기, 자치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그네뛰기, 연 날리기, 인형극 등)
체험농원의 활동을 축제화	· 동식물의 채집, 꽃밭가꾸기, 씨앗뿌리기, 씨앗채집, 누에치기, 분재, 나무가꾸기(전정, 전지, 접목, 삽목, 수정 등) · 목공예 실습, 흙공예 실습, 도자기 만들기 · 야생조류의 관찰, 곤충 및 식물의 생태관찰 및 실험 · 친체관찰(별자리 그리기)
농·수산물 가공 활동을 축제화	· 김치 담그기, 손칼국수 만들기, 떡 만들기, 두부 만들기, 한과 만들기, 메주 만들기, 묵 만들기, 과실주 만들기, 썰 만들기, 치즈 만들기, 각종 젓갈 만들기, 생선회 만들기 등
도시교류 활동을 축제화	· 농업생산 행사에 참석, 노인정, 유적지 시찰, 부업관리, 농장 방문, 농촌행사에 참가(민속행사), 농산물 가공공장 및 농업 관련 관계기관 견학, 도시와 농촌학생 교류행사, 민속놀이 배우기(농악, 탈춤 등) · 전설 이야기 듣기(역사, 인물, 기념물 등) · 예절 배우기(제사지내는 법, 족보 보는 법, 삼강오륜 등)
농·수·축·임산물 판매 활동을 축제화	· 무공해 농·수·축·임산물의 판매(유기 농산물, 수경재배 농산물, 양식 해산물), 향토음식 판매(보신, 보양, 민속주, 약용주 등) · 각종 꽃(분재, 선인장, 난, 절화 등)판매, 농기구(꽃삽, 꽃가위, 화분 등) 및 각종씨앗(채소, 화훼, 묘목 등), 비료 판매

나. 여행업계 인센티브 제도 도입

1) 필요성

-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대부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러나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하려면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축제 참여를 위해 방문한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에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2) 추진방안

-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은 각종 입장료의 할인과 면제,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념품 제공 및 할인 판매, 안내 홍보물 제공, 숙박시설과 음식점 이용에 따른 할인 등이 있다.

<표 8-17> 여행업체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

구 분	사례예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업체 포상금 지급	· 200명이상 : 300만원 · 150~200명 : 200만원 · 100~150명 : 150만원 · 50~100명 : 100만원
단체관광객 숙박 및 음식점소 특별할인	· 호텔 : 객실요금의 20~30% · 콘도 : 객실요금의 30~50% · 여관 : 객실요금의 20% · 음식 : 음식유형별 이용요금의 10~20%
기타 혜택	· 행사장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 행사장 주변 문화유적지 안내 프로그램 개발 및 요청 시 안내원 동행 · 축제연계 숙박, 식당 지정업소 할인 10%~50% 이상 · 행사장과 주요 교통 요충지 연결 셔틀버스 운행 · 관광기념품 할인 판매 및 참가 기념품(배지) 제공 · 공영 주차시설 무료 이용 · 주변 관광지 안내 및 홍보책자 배부 · 농·수산 특산물 특별 할인판매 · 축제기간 중 축제장소에서 관광기념품 판매 가격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 · 홍보인쇄물 지원 : 영문, 일문, 중문 인쇄물 지원

다. 축제 켈린더 · 지도 제작

1) 필요성

-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언제 · 어디서 · 어떤 행사로 개최되는지 도민은 물론 이고 도외에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

- 도민과 관광객이 지역축제에 참여하고 축제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지역 축제 캘린더와 지도를 제작하여 국내·외 관광업계, 관광객, 학교,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에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

2) 추진방안

- 축제 캘린더를 제작하려면 최소한 1년 전부터 행사 일시와 장소 등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축제 주관처에서는 충분한 축제 준비기간을 갖게 되고, 또한 축제를 관광상품화하려는 여행사에서도 관광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여유있게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
- 또한 개별 축제에 대한 축제지도가 필요하다. 축제행사장의 자세한 도면, 특히 외국인 수용태세가 되어 있는 주변 식당이나 쇼핑점들의 위치, 주변 연계 관광지들의 위치를 소개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면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다. ‘금산인삼축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응답의 1위는 ‘축제안내지도’였다.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제주도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8-18> 축제 캘린더·지도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축제 캘린더	· 제주지역 축제 월별 캘린더 제작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공항·여객선터미널 관광안내소 등 비치 · 매년 6월경에 제작·배포
축제 지도	· 개별 축제별 제작 · 제주국제공항, 제주여객선터미널, 숙박업체, 행사장 입구 등에 비치 · 행사장·행사프로그램 안내, 주요 교통·숙박·식당·관광안내 정보 등 수록 · 국·영·일·중문 작성 · 저렴한 가격에 유료 판매

라. 차별화된 홍보 전략 마련

- 축제에서의 홍보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방축

제의 경우 지역사회를 외부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겸하게 되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종 매체와 수단을 활용하여 축제의 기획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단계별 홍보 전략

-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상당수의 축제는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홍보의 형태는 도내 홍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도내에 현수막과 선전탑 등 가시적인 시설홍보에 주력하고 있어서 국내외 홍보를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
- <표 8-19>과 <표 8-20>는 제주지역 축제의 주요 마케팅 대상과 단계별 홍보전략을 예시한 것이다.
-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팸투어나 매체광고 보다는 매체를 활용한 기획기사 형태의 전략적인 홍보가 더욱 효과적이다. 즉 홍보 효과를 고려하여 홍보행위 그 자체를 위한 전시적 홍보나 비효율적인 홍보를 지양해야 한다.

<표 8-19> 주요 마케팅 대상

구 분	대 상
국 내	· KATA 등록 여행사 · 각 시·도 항공 판매실적 우수여행사 및 제주송객 여행사 · 도내 여행사, 호텔 등 관광 관련 업체 · 각 시·도 방송사 및 유력 지방지 광고부 및 문화부 · 재외도민회, 전국 산악연맹, 대형보험사 홍보실
일 본	· 한국관광공사 4개 지사 :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 한국 인바운드 여행사 : 30개소 · 일본 주재 한국여행사 : 도쿄 3, 나고야 14, 오사카 13, 후쿠오카 6개소 · 한국 주재 외신기자 : 30명 · 재외 제주도민회 : 16개소
중 국	· 한국관광공사 1개 지사 : 북경 · 중국여행사 46개소 : 중앙 6, 북경 9, 상해 13, 광둥 8개소 · 중국인 단체여행객 유치 지정여행사 : 35개 업체
홍콩, 대만, 싱가포르	· 한국관광공사 3개 지사 · 한국송객여행사 · 한국인바운드 여행사 · 제주 취재경험이 있는 언론인 10명

<표 8-20> 단계별 홍보 전략

구 분	대 상	전 개 방 안
1단계 홍보준비 단계	· 각 급 관청 및 행정기관 · 각 시·도 교육청 · 한국관광공사 · 언론사(지역, 중앙) · 각 지역 여행사 · 재외 출향인사 · 제주관광관련 SITE · 도내 여행사, 호텔, 항공업계 · 전국 관광협회	· 국내외 대상의 Press Release · PC통신, 인터넷 이용 홍보 전개 · 해외홍보 활동 전개(한국관광공사) · 협찬 유치 목적의 홍보 활동 전개 · 유관 단체를 이용한 홍보 전개 · 도내 관광관련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여행사, 호텔 축제상품 판촉 전개 · 국내외 관광 관련 모임 참석 홍보 전개 · 국내외 여행사 텔레마케팅 시작
2단계 홍보성숙 단계	· 1단계와 동일	· 협찬 유치에 따른 추가 홍보 전개 · 홍보 전개 상황에 대한 기사화 유도 · 공항, 부두, 호텔, 여행사 홍보물 비치 · 국내외 제주송객여행사 텔레마케팅
3단계 집중홍보 단계	· 1단계와 동일	· 현수막, 광고 전개 · Pre Event 등 행사 분위기 고조 · 축제 준비상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언론사의 기획, 취재 기사를 통한 홍보 · 국내외 여행사 집중마케팅
4단계 현장홍보 단계	· 언론사 · 제주도민 · 관광객	· 축제 진행상황 및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화 · 특집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축제 분위기 극대화 · 축제기간 중 Gossip, 미담 기사화 유도
5단계 사후홍보 단계	· 언론사 · 제주관광관련 SITE	· 행사 평가 Press Release · 축제 후일담, 관람기사 게재

□ 국내 홍보 방안

○ 전국 관광안내소 활용 홍보 활동 전개

- 전국에 관광안내소는 공사운영 총 6개소, 지자체(관광협회, 민간운영안내소 포함) 운영 총 82개소, 철도청 관광안내소 총 10개소, 지하철역 관광안내소 총 3개소 등이 있다.
- 축제 홍보물 및 관련 정보를 전국 관광안내소에 제공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홍보한다.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관광정보 DB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는 국내외 방문객이 지자체 홈페이지의 방문객 수 보다 훨씬 많다. 공사 홈페이지에 제주지역 축제를 소개할 수 있도록 축제 관련 정보의 신속한 게재가 필요하다. 또한 축제 관련 시청각 자료를 공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여행업자, 언론인 팸투어 실시

- 연도별로 10~15명 규모로 2~3회 실시한다.
- 가급적 행사 개최 시기에 초청하여 답사토록 함으로써 차년도 이후의 관광상품화를 겨냥하며, 초청 인사에 대해서는 지속적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국내 업계대상 E-MAIL 서비스

- 제주지역 축제 정보 및 자료를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여행사의 관광상품 개발 촉진 및 축제 홍보 효과를 제고한다.

○ 국내 기자단 및 주한 외신기자단 대상 축제 설명회

- 국내·외 기자단 대상 축제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 Club Tourism Korea 주한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개발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주한 외국인 단체, 외국인학교 학생, 한국어학당 학생 등을 대상으로 Club Tourism Korea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 답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 답사 프로그램중 축제 개최지 답사 일정 등을 지원하여 주한 외국인들에게 구전 효과를 유도하여 해외 현지에 홍보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

○ 포털사이트업체를 이용한 인터넷 홍보

-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법으로는 현재 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자체 홈페이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만한 메리트가 없는 실정이다.
- 또한 방문객 수도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문객도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지 외국인들의 방문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지자체의 홈페이지 방문객 수를 많이 확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포털사이트 업체를 이용한다면 지역축제 행사시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여 단기간에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랙티브 미디어 광고(Interactive Media Advertising)⁵⁸⁾를 통해서 제주지역 축제를 적극 홍보한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광고에 비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 배너 광고(Banner Advertising)⁵⁹⁾를 이용한 인터넷상의 광고는 1일 24시간 광고가 제공되고 있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축제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와 제휴를 통해 사이버 쇼핑몰(B2C, B2B)업체와 연계한 특산물을 통한 소개, 대기업의 홈페이지와의 협력을 통하여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홍보 방안

○ 해외광고(TV/인쇄 매체)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TV/인쇄 매체를 통한 한국관광 광고시 지방축제 행사 고지자막삽입 등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TV광고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과다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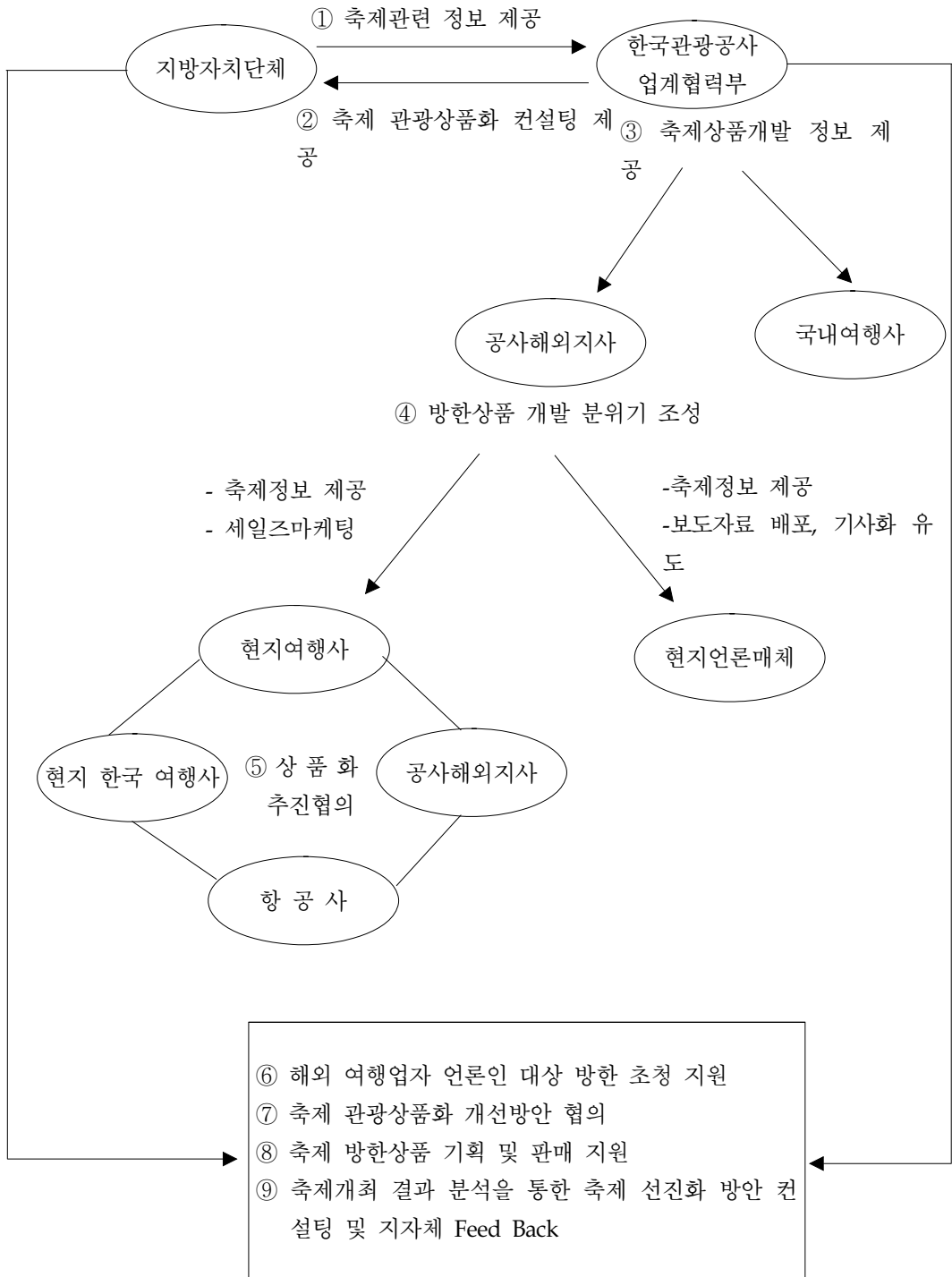
58)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활용,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차별적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59) 화면 한구석에 나오는 띠 광고를 말함. 도로 광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배너 광고를 띄워 놓고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이것을 클릭하면 홈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홍보 방법 중 하나다.

소요되므로 축제별 표적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인쇄 매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활용 관광상품화 및 홍보 활동 전개
 - 제주지역 축제를 소개하는 보도자료, 리플렛, 기념품, 시청각 자료, 축제 안내책자, 팸플렛 등을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로 조기 송부하여 현지 여행사, 국내여행자 주재원, 언론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서 관광상품화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전체 축제가 행사 일정 및 내용 등이 조기에 확정되어 각종 자료를 신속하게 송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축제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원
 - 해외 현지 여행사의 축제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홍보판촉비 지원), 관광상품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품 판매를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한다.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의 협조를 얻어 관광설명회 개최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관광협회 등의 해외관광 설명회 개최와 판촉방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서는 매년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해외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해외관광 설명회시 일본, 중국 등의 언론인, 여행업자 등에게 제주지역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활용
 - 공사 홈페이지는 제주도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보다 각종 관광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접속을 하므로, 제주지역 축제의 최신 정보를 외국어 정보 및 홍보자료로 제공한다. 이는 각국어로 서비스 되는 홈페이지로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홍보가 가능하게 한다.
- 현지 언론 기사화 유도
 - 축제 홍보 외국어 보도자료 및 홍보물의 조기 제작·배포를 통한 기사화 추진으로 현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 해외 주요 언론인 및 여행업자 대상 팸투어 실시

- 방한 취재 및 여행업자 팸투어 방한지원시 해당 지방 답사프로그램 삽입을 통해 축제 홍보 설명회 실시 등을 한다.
- <표 8-21>는 관광상품화 관련 일본 여행업자의 주요 검토사항과 일본 여행업계의 축제 주최측에 대한 요망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행사 일시 및 프로그램의 조기 확정, 일본어 자료 동시 제작·배포, 당초 예정대로의 행사 실시, 축제 담당자의 전문화 등은 어느 축제에서나 요구되어지는 공통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제 개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제주지역 축제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특히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호텔시설 및 종사원의 서비스에 가장 민감하며, 이에 따라 컴플레인 요소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관광객 컴플레인은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재방문 의욕을 감퇴시키므로, 축제 자체 운영 뿐만 아니라 특히 호텔 서비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림 8-4] 문화관광축제의 해외 현지 상품화 과정

자료 :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p.30.

<표 8-21> 일본 여행업계의 지역축제에 대한 요구사항

구 분	내 용
관광상품화 관련 일본 여행업자의 주요 검토사항	· 행사 자체의 유인력(특화된 매력, 지명도 등) · 행사 운영 능력(당초 계획대로의 진행 여부, 외국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 일본인 모객 가능성 · 일본인 숙박에 적합한 현지 숙박시설 유무 및 소요 객실 확보 가능여부 · 접근 교통의 편리성 및 주변 연계 관광여건 · 궁극적인 영업수익 기대치
일본 여행업계의 축제 주최측에 대한 요망사항	· 행사일시 및 프로그램 조기확정 공표 및 자료(일본어)동시 제작 배포 - 관광상품화 타당성 검토 및 모객기간 확보를 위해, 1년전 또는 최소한 6개월전 세부 프로그램(일시, 장소, 내용) 확정 공표 - 안내자료(일본어) 제작, 배포 - 일본은 유명 행사의 경우 대개 1년전부터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 활동 전개 · 축제의 차별화 및 매력(유인력)부각 - 유사한 축제와의 차별성 및 특별한 매력 필요 - 유명인사와의 축제 참여를 통한 유인력 제고 검토 필요 - 서울 선호의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지방축제에 참여할 경우 그 고장만의 특별한 매력(메리트) 제시가 필요 · 축제 담당자의 전문화 및 접촉창구 일원화 - 축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화가 요구되므로 운영 및 판촉담당자를 해마다 교체하는 것은 지양(일본 여행사에 불안감을 야기하여 상품화 의욕 저하) - 노하우의 전수와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해마다 유사한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요망 · 숙박호텔 객실 확보 - 축제 자체의 매력이 있어 관광상품화를 시도한다고 하여도, 현지 호텔 객실 확보가 불가시 상품화 무산 우려 - 일본 여행사의 단체관광객용 객실확보(블럭) 및 할인요금제 실시 요망 · 주변 연계관광 매력의 제시 - 행사 이외의 쇼핑, 음식, 위락요소 및 주변 연계 관광지의 부각 · 홍보 판촉활동 지원 - 축제는 5일 전후의 단기간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고, 해외 지명도가 낮아 모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홍보 및 판촉 활동 필요 - 모객 부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비하여 위험부담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홍보(광고) 및 판촉(모객 팸플렛 제작, 배포) 비용 일부 지원 요망 · 당초 예정대로의 행사 실시 - 당초 계획된 프로그램의 철저한 준수 - 일부 한국 축제의 경우 도중에 내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일본 여행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 발생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0년도 축제기획담당자 교육 세미나 자료집」, 2000, pp.49-50.

4. 축제의 자립화

가. 축제기금 적립

- 중점 육성축제 선정과 지원, 신규 축제의 발굴 등을 통해 제주관광진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익금중 일부를 적립하여 '제주도 축제 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현재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축제가 도, 시·군 등 행정기관의 보조금에 축제 예산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축제의 수익금은 적다고 할 수 있다.
- 각 개별축제에서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익사업(입장권 판매, 화장사업, 영업시설사업, 광고사업, 기타 수익사업 등)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점 육성축제를 선정하여 축제를 통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경쟁력있는 축제로 육성한다면 개별축제의 수익금 확보 등을 통해 축제기금 적립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1) 필요성

- 제주지역 축제의 대부분이 도, 시·군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년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체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축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 축제진흥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축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방안

- 개별 축제의 수익금을 축제 기금화
 - 개별 축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축제기금으로 조성한다.
- 제주도문예진흥기금 일부 금액을 축제 기금화
 - 제주도문예진흥기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을 위하여 '84년부터 출연금, 성금, 중앙문예진흥기금 등으로 조성하여 '98년말

에는 3,755백만원이 적립되었다. 또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목표액 상향 조정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94~2001년까지 매년 200백만원을 출연 받아, 5,000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1년부터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액의 50%는 재적립하고, 50%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사업에 지원하여 왔다.

- 제주도문예진흥기금의 일부 금액을 축제 기금화하여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광복권 발행 수익금을 축제 기금화
 - 제주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관광복권의 일부 수익금을 제주도의 관광진흥차원에서 축제 기금으로 조성한다.
- 관광진흥부가금의 일부 금액을 축제 기금화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모금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동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한 향토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금,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관광진흥·사회복지·농어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자연환경의 조사 및 보존관리에 쓰여지고 있는 관광진흥부가금의 일부 금액을 매년 제주지역 축제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광진흥부가금의 경우 일부 금액이 개별 축제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축제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조성을 통해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8-22> 축제기금 조성 내역

구 분	내 용
축제기금조성	• 개별축제의 수익금 • 제주도문예진흥기금 • 관광진흥부가금 • '제주도축제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제정

나. 지역주민의 참여 방안 마련

1) 필요성

- 외국의 관광학자들이 강조하는 이벤트 관광상품의 1차적인 성패는 이벤트에 동원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Volunteer)여하에 달려 있다고 한다. 성공적인 이벤트상품의 원동력을 살펴보면 이벤트 프로그램 외에도 자발적 참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축제 및 문화이벤트의 관광상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까닭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부족하거나, 주민들은 관주도 행사로 인한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마지못해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많다.
- 그것은 축제조직자 측면에서는 지역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거나 역으로 당연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측면에서는 참여의 즐거움과 이벤트 관광상품을 통해 얻는 관광수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경우 자발적 참여자에 의한 순수한 봉사동기도 있으나, 때로는 무엇인가 무형적, 유형적으로 단·장기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 지역축제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즐기는 지역공동체 전체의 잔치로 정착될 때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축제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지역축제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이다.

2) 추진방안

- 제주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비교적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었거나 계절적·내용적으로 기존 축제와 차별화가 용이한 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다수의 축제가 도민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표 8-23> 지역주민 참여 방안

구 분		주요 내용
매스컴을 통한 홍보		· TV, 라디오, 신문 등
인식프로그램 개발		· 지자체 중심이 된 주민참여 인식프로그램 개발
축제현장에서의 홍보		· 안내서비스 강화를 통한 축제 홍보
참여계층의 확대	· 청소년층의 참여 확대	· 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 구축 · 문화현장학습과 자원봉사로서의 참여 유도
	· 출향 인사들의 축제 참여도 제고	· 외지의 향우회 조직을 중심으로 홍보 · 축제기간 중 ‘출향인사의 날’을 설정 · 향우회가 축제의 경연 종목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 도입
	· 자생 단체의 참여 확대	·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와 같은 자생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마을 내 ‘민속보존회’ 같은 기구를 만들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
	· 지역의 연합으로 축제권역 확대	· 공동으로 축제를 기획하거나 또는 인근지역의 축제를 지원하는 방식 · 축제의 내용이나 시기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상호연계

제 3 절 주체별 · 시기별 추진방안

-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각종 정책과제별 개선방안들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정책기조, 예산범위, 법령·제도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별 추진주체를 설정하고 적정 추진시기를 단계별로 설정하였다.
- 제주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조직을 개선하여 조기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이러한 방향에 따라 추진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제1단계에서는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시급하면서도 단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을 포함시켰다. 제2단계에서는 2003에서 2004년까지, 제3단계에서는 2005년까지를 설정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정상화된 관련 조직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사항이 포함되었다.
- 추진주체의 설정은 제주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특성과 고유업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시기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에 따라 추진주체는 변경 가능하다.

<표 8-24> 주체별·시기별 추진일정(안)

구 분	개선과제	세부 개선과제	추진주체	추진시기		
				1단계 (2001-2002)	2단계 (2003-2004)	3단계 (2005)
축제의 통합화	관련 조직 개선	제주도축제평가위원회 신설	제주도	→		
		축제전담부서 또는 전담기구 신설	제주도	→		
	축제평가체계 확립	제주지역 축제 평가지표 마련	도, 시·군, 연구기관	→		
		집중 육성 축제의 선정 및 지원	도, 시·군	→		
축제의 체계화	문화관광자원 정보체계 구축	문화관광자원 목록화 작업	도, 시·군, 연구기관		→	
		문화관광자원정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도, 시·군, 연구기관			→
		제주도 문화관광자원 홍보 프로그램 개발	도, 시·군 연구기관			→
	축제 기술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도, 시·군, 연구기관	→		
	축제 안내정보시스템 구축	안내 팸플렛 제작	축제주관처	→		
		축제 안내원 육성	도, 시·군	→		
		안내 표지판 개선	도, 시·군	→		
	통합적 축제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축제 홈페이지 개선	축제주관처	→		
	국내외 유명 축제와 자매결연 추진		축제주관처			→
	축제정보망 구축	축제전문사이트 개설	도, 시·군, 관광협회			→

구 분	개선과제	세부 개선과제	추진주체	추진시기		
				1단계 (2001-2002)	2단계 (2003-2004)	3단계 (2005)
축제의 상품화	다양한 축제 소재 발굴	제주지역 문화예술행사	도, 시·군			→
		축제소재 공모전	도, 시·군, 관광협회			→
		인터넷 활용	도, 시·군			→
	여행업계 인센티브제도 도입		축제주관처			→
	축제캘린더·지 도 제작	축제 캘린더 제작	도, 시·군, 관광협회			→
		축제 지도 제작	도, 시·군, 관광협회			→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 및 전개	전국 관광안내소 활용 홍보	도, 시·군, 관광협회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활용	도, 시·군, 관광협회			→
		여행업자, 언론인 팸투어 실시	도, 시·군, 관광협회			→
		국내·외 업체대상 E-mail 서비스	도, 시·군, 관광협회			→
		Club Tourism Korea 주한외국인 대상 축제설명회	도, 시·군, 관광협회			→
		포털사이트업체를 이용한 인터넷 홍보	도, 시·군, 관광협회			→
축제의 자립화	축제기금 조성	개별축제 수익금 활용	도, 시·군		→	
		제주도문예진흥 기금 활용	도, 시·군		→	
		관광진흥부가금 활용	도, 시·군		→	
		제주도축제진흥 기금조성운영조례 제정	도, 시·군			→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마련		도, 시·군			→
						→

제 9 장 결 론

-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축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각 지자체들이 축제 개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축제가 다양하다는 것은 선택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자칫 희소성이 떨어지고 식상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축제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백화점식 행사를 지양하고 축제의 이미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결하고 이해되기 쉽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되도록 해야 한다.
- 제주도의 경우에도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개발 및 진흥, 도시의 생활환경 정비, 산업진흥과 특산품 개발, 교육·문화 진흥, 지역간 교류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여기에는 주제와 목적이 비슷한 축제를 통합하여 규모를 갖춘 대규모 축제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언제든지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가 지역별·계절별로 분산되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또한, 축제의 개최와 운영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치밀한 전략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이때 주지해야 할 것은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신명나는 한 판이 펼쳐질 때 외부인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동화되고 즐길 수 있는 범 지역성 행사가 된다는 점이다.
- 따라서 주민들에게 낯설지 않으며 친숙한 소재와 주제를 개발하여 신명을 끌어내야 한다. 즉, 지역문화의 차별성을 축제에 담아내지 못하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타 지역 국내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유인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를 구성하여 전통과 현대적 요소간의 조화도 꾀해야 하고 차별화된 축제를 위해서는 차별화 된 주제와 이에 따른 컨셉 도출이 요구되며 이는 축제성패의 주요 관건이라 하겠다.
-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요컨대 행사장, 행사 내용, 행사 주최자, 지역주민, 행사 참여자 등 모두가 축제의 성격에 맞게 연출 되어야 한다. 먼저 행사장 디자인이 축제 테마에 걸맞게 세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았

을 때 행사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각 장소별로 공간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들고 안내판, 표지판 등 사인(sign)시설이 행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 축제가 제한된 행사장이나 제주도내의 지역행사에 머물지 않고 전국화, 국제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련된 행사의 진행, 외지인, 외국인을 배려한 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사전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을 펴야한다.
- 아울러 홍보 및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벤트와 관광안내, 홍보, 정보수집·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광가이드 북, 팸플렛, 지도 등을 제작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축제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류 보다는 당일 코스로 축제만을 참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지는 물론이고 중심 시가지나 중심 상가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생활 및 생산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축제기간에는 그 지역주민은 외부손님을 초청한 주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평소에는 맛볼 수 없는 지역의 인심과 친절을 제공하고, 아울러 상품이나 체재비 등 모든 물가를 오히려 보통 때 보다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심어 줄 필요가 있고,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연간 30개의 축제가 제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관광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들이 주체가 된 축제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축제를 지역 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일체감 형성이 중요하다. 행사 참여에 있어서 관이나 일부 추진 주체 뿐 아니라 지역민 전체가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하고 행사장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축제는 지역의 향토성과 개성을 극대화한 지역가꾸기 운동으로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승익외 3인, “축제 방문동기 세분화에 따른 지각된 성과와 만족 분석-’98제주세계 섬문화축제를 사례로-,” 「관광학 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2000.
- 김동혁외 3인 공저, 「관광과 축제이벤트론」, 부산 : 신지서원, 2000.
- 김병철,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8.
- 김성혁 · 고호석 · 김순하, “지역축제 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선택속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학연구」, 24(1), 한국관광학회, 2000.
-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1996.
- 박철 · 손해식,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의례분석적 접근과 관광상품화 전략,” 관광학연구 구 특별호, 제22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1998.
- 서연호, “축제의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영문화재단, 1994.
- 서희석 · 이동기, “물리적 환경이 지역축제의 만족과 재방문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개혁과 지방자치 동계학술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 오순환, “문화관광축제의 연상도 차이-축제명과 지명간의 연상도를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관광학회, 1999.
-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방안-금산인삼축제 사례연구-」, 한국관광연구원, 1998.
- 이장주 · 조현상, “지역축제의 이미지 특성화에 관한 실증연구-우리나라 6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관광학회, 2000.
- 이장춘, “무형문화재 등의 정기공연 정착화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월간관협 9월호, 한국관광협회, 1993.
-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 장정룡, “강원도 축제문화의 이해와 반성,” 「강원민속학」, 제12집, 1996.
- 정강환, 「이벤트 관광전략 : 축제와 지역활성화」, 서울 : 일신사, 1996.
- 정삼철, 「충북 밀레니엄 대축제 개최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1998.
- 정연정, “직지축제의 발상전환을 위하여,” 「충북리포트」, Vol. 6, No. 2, 충북개발연구

원, 1999.

조배행, 「'88서울올림픽의 관광에 대한 영향연구」, 서울 : 한국관광연구원, 1999.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문화예술분야 원고(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기초모형 개발」, 2000.

제주시, 「제주시 자원봉사모형 개발을 통한 제주시 복지행정서비스의 향상방안」, 1999.

최승담, “지역관광개발의 실패와 편협한 사고,” 김사현 외 10인,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서울 : 일신사, 1995.

최철, “축제로서의 놀이판의 이미,”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한국관광공사,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1995.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유산 관광상품화 방안」, 1996.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1994.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백제문화권의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상품 개발방안 연구」, 199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1호, 1999. 1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2호, 2000. 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3호, 2000. 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4호, 2000. 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5호, 2000. 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7호, 2000. 4.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6호, 2000. 4.

함석중, “한국향토문화재의 관광대상화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British Columbia Task Force on Public Order, "Policy Report,"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1(2), 1993.

Crompton, J. L., & S. L. McKay, “Motives of visitors attending festival ev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4(2), 1997.

Gets, D., Festivals, Special events, & Tourism, New York : VNR, 1991.

Mohr, K., K. F. Backman, L. W. Gahan, & S. J. Backman, “An investigation of

festival motivations and event satisfaction by visitor type,"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Vo. 1(3), 1993.

Williams, Peter W., K. B. Dossa and L. Tompkins, "Volunteerism and special event management : A case study of Whistler's Mens World of Skiing," Festivals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3(2), 1995.

부 록

I.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설문서

1. 지역주민 대상 설문서

2. 전문가 대상 설문서

II. 사례별 축제에 대한 설문서

1. 관광객 대상 설문서

2. 지역주민 대상 설문서

3. 주관처 대상 설문서

I.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설문서

1. 지역주민 대상 설문서

□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0대 미만 조사중단)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1. 현재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3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2. 현재 제주지역에서 1년동안 개최되는 축제는 약 30개 정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개최되는 축제의 회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보다 더 줄어야 한다 ② 더 많이 개최되어야 한다 ③ 지금 수준이 좋다

3. 제주지역의 축제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어느정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기여한다	기여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기여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제주지역의 축제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기여한다	기여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기여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주지역의 축제가 지역문화 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기여한다	기여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기여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제주도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축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7.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예산을 확대하여 규모를 더 늘려야 할 축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재이상

☐ 선생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선생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 입니까? 동/읍/면

2. 전문가 대상 설문서

I. 맞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에 V를 표시해 주시거나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시점에서 제주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축제 관련 재정 지원의 확대 ② 관광 관련 행정기관 및 주관처의 역할 분담 조정
 ③ 축제 전담 조직의 설립 ④ 기타 : 구체적으로 _____

2.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축제프로그램의 획일화 ② 예산 부족 ③ 축제 주관처의 능력 부족
 ④ 민·관 협력 부족 ⑤ 제주도민의 자발적 참여 부족
 ⑥ 홍보 부족 ⑦ 관광상품화 기능 미비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향후 각 축제마다 축제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광 관련 업체의 일정 금액 부담 ② 축제 참가 방문객에게 일정 금액 부담
 ③ 축제 주관처에서 스폰서 확보 ④ 행정부서에서 안정된 축제 재원 확보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부록에 제시된 제주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중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축제는 어떤 축제인지 계절별로 한가지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5. 부록에 제시된 제주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중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축제는 어떤 축제인지 한가지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주도	
② 제주시	
③ 서귀포시	
④ 북제주군	
⑤ 남제주군	

6.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축제를 한가지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중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를 한가지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8. 제주도에 축제를 전문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축제전문기구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저그렇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앞으로 제주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 조직의 전체적인 방향은 어떠한 조직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제주도, 4개 시·군, 관광협회, 예총도지회 등이 각 역할 수행 ②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신설 관광진흥원이 담당 ③ 현행 축제 주관처의 업무를 통합하는 전문기구 설립 ④ 제주도관광협회에 축제 전담 부서의 설치 및 기능 강화 ⑤ 섬문화축제위원회의 축제전문기구로 상설기구화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_____

10. 제주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 도, 4개 시·군의 협의를 통하여 통제·합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저그렇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전국적인 축제와 차별화될 수 있는 제주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는 축제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수준은? ① 고졸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졸이상
4. 귀하는 어느 분야에 재직하고 계십니까? _____

7. 이번 축제에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이 함께 참가하셨습니까?()명

8. 이번 축제 참가에 대한 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

① 행사시작 당일	② 행사시작 2-3일전
③ 행사시작 1-2주전	④ 행사시작 3-4주전
⑤ 행사시작 2-3개월전	⑥ 행사시작 3개월전 이상

9. 이번 축제에 대한 정보는 주로 무엇을 통해 얻으셨습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신문이나 잡지	② 라디오나 T.V.
③ 관련 서적	④ 각종 팜플렛
⑤ 인터넷	⑥ 거리의 프랜카드
⑦ 여행사	⑧ 주위 사람
⑨ 기타()	

10. 이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도내에서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가용	② 시내·외 버스
③ 관광버스	④ 택시
⑤ 렌트카	⑥ 기타()

☐ 다음은 이번 축제에 대한 귀하의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를 해 주십시오.

11. 접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도로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찾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행사장내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 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위생시설(화장실 등)이 청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 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장내 안전시설 및 조치가 잘 되 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환대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사장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주민이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관광관련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다 (택시기사, 음식점 종업원 등)	①	②	③	④	⑤

14. 행사내용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사내용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진행이 체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시기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장소들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식음료 및 기념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향토색이 짙은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의 질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들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 는 것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께서는 이번 축제를 위해 경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셨습니까?(항공료 및 숙박
료는 제외한 경비) _____ 만원

17. 귀하께서는 이번 축제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에서 5사이의 번호에 귀하의 만족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께서는 내년 축제에 다시 참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아마 참가할 것이다	반드시 참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께서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금번 축제를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 다음의 응답자료는 오직 학술통계에만 사용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1.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2.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중졸	② 고등 재/졸	③ 전문대 재/졸
④ 대학 재/졸	⑤ 대학원 재/졸 이상	

2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림·어·축산업	② 사무행정직	③ 자영업
④ 공무원	⑤ 전문직	⑥ 서비스업
⑦ 학생	⑧ 주부	⑨ 무직
⑩ 기타()		

24. 귀하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부수입 및 보너스 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99만원 이하	② 100~149만원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⑤ 250~399만원	⑥ 400~449만원
⑦ 450~499만원	⑧ 500만원 이상	⑨ 무직
⑩ 기타()		

25. 귀하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_____도(특별시, 광역시)_____시(군)

2. 지역주민 대상 설문서

☐ 다음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항목에 √를 하거나 숫자로 표기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이전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기타 축제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금번 축제에 몇 회나 참가하셨습니다?

(금번 참가를 포함하여) ()회

3. 현재 제주도내에서 금번 축제에 대한 축제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셨습니까 ?

전혀 느끼지 못했다	못 느꼈다	보통이다	다소 느꼈다	많이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 금번 축제에 참가하신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가족/친지/친구 등과 여가시간을 보내려고
 ② 자녀의 교육적 목적으로
 ③ 행사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④ 제주도 문화의 이해를 위해
 ⑤ 주위사람들의 권유
 ⑥ 문화(음악)지식 증진 목적
 ⑦ 여행도중 참가
 ⑧ 기타()

5. 이번 축제에는 누구와 함께 참가하셨습니까 ?

- ① 가족 ② 친지 ③ 친구 ④ 직장동료 ⑤ 단체참가(여행사 주관)
 ⑥ 연인 ⑦ 혼자 ⑧ 기타 ()

6. 이번 축제에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이 함께 참가하셨습니까?()명

7. 금번 축제 참가에 대한 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

① 행사시작 당일	② 행사시작 2-3일전
③ 행사시작 1-2주전	④ 행사시작 3-4주전
⑤ 행사시작 2-3개월전	⑥ 행사시작 3개월전 이상

8. 금번 축제에 대한 정보는 주로 무엇을 통해 얻으셨습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신문이나 잡지	② 라디오나 T.V.
③ 관련 서적	④ 각종 팜플렛
⑤ 인터넷	⑥ 거리의 프랜카드
⑦ 여행사	⑧ 주위 사람
⑨ 기타()	

9. 이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도내에서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가용	② 시내·외 버스
③ 관광버스	④ 택시
⑤ 렌트카	⑥ 기타()

☐ 다음은 금번 축제에 대한 귀하의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를 해 주십시오.

10. 접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도로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찾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행사장내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위생시설(화장실 등)이 청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장내 안전시설 및 조치가 잘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환대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사장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주민이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관광관련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다 (택시기사, 음식점 종업원 등)	①	②	③	④	⑤

13. 행사내용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사내용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진행이 체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시기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장소들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식음료 및 기념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향토색이 짙은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의 질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들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 는 것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께서는 이번 축제 참여를 위해 경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셨습니까 ? (항공료 및 숙박료는 제외한 경비) _____ 만원

16. 귀하께서는 이번 축제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1에서 5사이의 번호에 귀하의 만족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께서는 내년 축제에 다시 참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아마 참가할 것이다	반드시 참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께서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금번 축제를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 다음의 응답자료는 오직 학술통계에만 사용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9.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0.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1.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중졸	② 고등 재/졸	③ 전문대 재/졸
④ 대학 재/졸	⑤ 대학원 재/졸 이상	

2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림·어·축산업	② 사무행정직	③ 자영업
④ 공무원	⑤ 전문직	⑥ 서비스업
⑦ 학생	⑧ 주부	⑨ 무직
⑩ 기타()		

23. 귀하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부수입 및 보너스 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99만원 이하	② 100~149만원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⑤ 250~399만원	⑥ 400~449만원
⑦ 450~499만원	⑧ 500만원 이상	⑨ 무직
⑩ 기타()		

24. 귀하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제주도 _____시(군)

3. 주관처 대상 설문서

☐ 다음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항목에 √를 하거나 숫자로 표기해 주십시오.

1. 이번 축제의 행사 프로그램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크게 떨어졌다	약간 작년보다 떨어졌다	작년과 다를 바 없었다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매우 크게 향상되었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금번 축제는 제주도 고유 생활문화 홍보 또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행상품화로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금번 축제에 대한 귀하의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를 해 주십시오.

3. 접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오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도로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찾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행사장내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휴식을 위한 시설(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위생시설(화장실 등)이 청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장내 안내표지판 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안내요원의 수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장내 안전시설 및 조치가 잘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환대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사장안내 및 관리요원들이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주민이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관광관련사업 종사자들이 친절하다 (택시기사, 음식점 종업원 등)	①	②	③	④	⑤

6. 행사내용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사내용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내용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진행이 체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시기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사장소들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식음료 및 기념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식음료의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향토색이 짙은 식음료가 제공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식음료 관련시설이 청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의 질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들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기념품은 이 행사에서만 구할 수 있 는 것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축제 참가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 행사 기획에 참고하고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9. 금번 축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진		
· 연구책임	양 영 근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공동연구	김 의 근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정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신 동 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제주지역 축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인 쇄 일 2000. 12

발 행 일 2000. 12

발 행 인 이 문 교(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경신인쇄사(☎ 746-2044)

ISBN 89-88021-09-6-933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出處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